

檀國大學校

石南善紀念博物館

開館紀念

石南善紀念民俗博物館

第十七回 學術세미나

第十八回 出土服飾 特別展

학술세미나 : 1999. 5. 2(일) 09:00 ~ 16:00

蘭坡紀念音樂館

出土服飾特別展 : 경기도 일영 출토 고려 신씨(조선전기) 유물

1999. 5. 2 ~ 5. 14

本博物館 중앙홀

開館 十八周年紀念

第十七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八回 特別展에 즈음하여

단국대학교는 금년 3월 본 대학 부속 중앙박물관(고고학 중심)과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전통복식·민속학 중심)을 통합하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통복식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사업은 종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금년에도 연례 행사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개관 18주년기념 제 17회 학술세미나와 제 18회 특별전시를 개최하여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에서는 국내 최초로 “북한지방의 전통복식 특별전”을 개최하여 갈채를 받은 전시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이북5도청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출품을 통해서 협조하여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본 박물관에서는 전통복식·염색을 주제로 전통문화강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큰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전시는 1998년 4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출토된 高靈 申氏 복식으로 다양한 무늬가 들어있는 복식이 많아서 조선전기 남녀 복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토 유물은 參奉公 彦湜(1519~1582년), 子婦 贈 淑夫人 陽川 許氏(1566~1626년), 郡守公 汝灌(1530년대 초~1580년대) 세분의 服飾입니다.

귀중한 문화재와 연구비를 희사하여 주신 高靈 申氏 安峽公派 宗中會와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실 김우림, 고부자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1999. 5.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손보기

目 次

●인사말	i
●第十七回 學術세미나	1
· 조선시대 묘비문을 통해서 본 함장 문제	김우림 3
· 일영 출토 고려신씨 유물 소고	고부자 39
●유물도해 및 해설	59
●유물무늬	101
●출토현장 자료	123
●開館紀念 行事 해적이	129
●博物館 利用案内	143

학 술 세 미 나

조선시대 묘비문을 통해서 본 합장 문제 김우림

일영 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고부자

朝鮮時代 墓碑文을 통해서 본 合葬 問題

金 右 臨

朝鮮時代 墓碑文을 통해서 본 合葬 問題

金 右 臨(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 리 말

墓制, 즉 墳墓制度 또는 墓葬制度는 死者의 집으로서의 무덤에 관한 제반 法制的 制度 및 樣式에 관한 問題이다. 즉, 신분에 따른 무덤의 명칭·규모·조성방법, 墓域에 조성되는 각종 石物類의 제한규정·배치방법 및 명칭·형태·수량 등 무덤의 외형적 요소에 나타난 제반문제 뿐만 아니라 喪葬禮의 결과로 나타난 무덤 속의 구조에 나타난 제반문제에 대한 制度 및 樣式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墓制는 복잡한 文化要素가 融合되어 있어 그 時代 사람의 宗教觀·生死觀·來世觀 등의 精神生活 및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질서 등 社會構造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朝鮮時代의 墓制에 대한 연구는 喪·葬禮의 연구에 비해 너무나도 미미하여 거의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朝鮮時代 墓制에 대한 연구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지만, 고고학에서도 시기적인 한계성으로 인하여 研究 및 發掘調査對象에서 상당 부분이 제외되어 왔기 때문이다.

本考에서는 조선시대의 묘제에 있어서 合葬 問題를 墓碑文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合葬의 概念 및 原則

묘비문은 대체로 碑陽(비신의 앞면)에 “某官某公之墓”라고 간단하게 官職과 姓 또는 姓名을 기록하고, 夫人의 本官 姓氏 및 合葬 關係를 기록하며, 碑陰(비신의 뒷면)에 보다 자세한 기록을 남겨둔다. 墓碑文에는 특히 조선시대의 墓制를 이해할 수 있는 合葬問題와 合葬의 方位 등이 기록되어 있다.

屍身의 매장 형태로 한 개의 封墳속에 한 시신만을 매장하는 것을 單獨葬이라고 한다. 반면 合葬은 祔葬·附葬 또는 合窆이라고도 부르며 한 개의 봉분속에 즉 單墳을 조성하여 둘 이상의 시신을 나란히 매장하거나, 墓穴을 달리하여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雙墳을 조성하여 둘 이상의 시신을 매장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3개의 單墳을 조성하여 셋 이상의 시신을 매장하는 형식이다.

이때 문제점은 單墳일 경우 외형상 單獨葬과 合葬의 구분은 대체로 墓碑의 碑文 내용을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지만, 雙墳 및 3개의 單墳이 있는 경우 과연 얼마간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合葬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 역시 1차적으로 墓碑文에 나타난 祔葬의 표현여부에 달려 있으며 2차적으로는 조성된 墓域에서 墓碑를 같이 쓰거나 하나의 莎城안에 있을 때 合葬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階節이나 拜階節을 같이 할 때 또는 床石을 같이 할 때도 합장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合葬은 부부의 경우에만 조성되었다. 따라서 필자가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문제는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부부의 卒年이 다르기 때문에 合葬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과 방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역시 부부의 卒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合葬하고 묘역을 조성하는데 墓碑 등 石物의 건립시기는 대체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合葬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으로 부부의 위치 문제이다. 合葬에 있어서 祔左와 祔右 등의 방위 문제는 과연 어떤 원칙이 존재했으며 그 의미는 과연 무

엇인가라는 문제는 조선시대 사람의 방위관념이나 생사관념을 밝히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조사된 墓碑 211基 가운데서 먼저 실제의 예를 살펴보면서 위의 세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체적 의미를 후술하고자 한다.

〈表1〉墓碑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211基 가운데 墓碑文에 의해 合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47基, 單獨葬의 경우는 24基, 묘비문을 통해서 합장과 단독장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39基가 조사되었다. 일단 合葬(147基)과 單獨葬(24基)의 비율은 약 6:1의 비율로 合葬의 例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이전까지 일반적이지 않았던 合葬이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인 매장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朱子の『家禮』에서 제시하고 있는 合葬은 오른쪽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남편을 오른쪽에 묻고, 부인을 왼쪽에 합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 『四禮便覽』에 의하면 부인의 서열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元配일 때는 남편의 왼쪽에 합장하지만 繼配일 때에는 다른 墓穴에 單獨葬을 하도록 되어 있다.²⁾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禮書에서 합장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性理學의 정착으로 합장을 일반적인 매장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李炯信과 그의 前夫人인 淸州韓氏 등의 묘비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金聖澤(1691-1741) 묘비 : 1807년(순조7) 건립

配位 嘉林趙氏는 부군과 한해에 낳아 부군보다 15년 뒤에 돌아가 禮대로 附葬(附左)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823)

- 原州元氏 (1740-1783) 묘비 : 1810년(순조10) 건립

부인을 장사지낸지 7년 후에 公이 작고하였는데 地家(風水家)의 말을 들어 合附하지는 않았으나 산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松楸는 연결하여 뒤덮고 있으니 합부는 아니더라도 合附와 다름이 없었다.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823)

- 李炯信(?-1682) 묘비 : 1698년(숙종24) 건립

公은 두 번 娶妻하였는데 모두 韓氏의 따님이다. 後夫人은 戊申年(1668)에 公보다 먼저 沒하여 옛 楊州에 장사지냈는데 癸亥年(1683)에 여러 아들들이 公을 모셔 合葬하였다. 前夫人의 묘소는 廣州에 있는데 도리상 마땅히 옮겨 附葬하여야 하지만 모두들 말

1) 朱熹, 『家禮』 卷之三 喪禮 治葬條 '問合葬夫妻之位 地道以右爲尊 恐男當居右 朱子 曰 祭時以西爲上則葬時亦當如此方是'

2) 李緯, 『四禮便覽』 卷之五 喪禮 治葬條 '程子曰 合葬以元妃 朱子曰 繼室別營兆域'

하기를 “세월도 벌써 50년이 지났고 또 아들이 族位(宗職)에 나가고 있지 않느냐”하여 옮기지 않았다. (京畿金石大觀 第六集 p.357)

- 淸州郡夫人 韓氏(1601-1630) 묘비 : 1701년(숙종27) 건립

부인께서 작고하신 53년 뒤인 壬戌年(1682)에 祖考(위 李炯信)께서 세상을 떠나 楊州의 淸山에 禮葬하였으나 마땅히 부인의 묘를 옮겨 합장해야 올랐지만 오래되어 움직일 수 없어 禮에 따르지 못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六集 p.395)

위의 기록에 의하면 合葬을 마땅히 하여야 하는 禮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合葬의 禮는 당연히 性理學的 禮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朝鮮時代의 묘비문에서 살펴보면 전술한 前夫人을 합장하고 後夫人을 별도로 單獨葬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예문의 李炯信의 경우처럼 前夫人을 合葬하지 않고 後夫人을 合葬한 경우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 몇 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權曄 (1520-1593) 묘비 : 1695년(숙종21) 건립

先娶는 海州鄭氏인 都事 承體의 따님이었다. 後娶는 慶州鄭氏인 倉守 忠仁의 따님으로서 정숙하고 덕성을 갖춘 분으로 公보다 22년후에 졸하여 公의 묘에 附葬되었다. 前夫人 소생으로 1남이 있고, 後夫人 소생으로는 5남을 두었다. (京畿金石大觀 第五集 p.581)

- 任重臣 (1517-1580) 묘비 : 1617년(광해군9) 건립

公은 平陵正 像의 따님에게 장가들었으나 後嗣가 없어 縣監 李璫의 따님에 다시 장가들었다(中略). 繼室은 같은 묘에 附左하였고(同穴而左). 初室은 따로 묘 우측에 장사지냈다(異原而右).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541)

- 閔燾 (1607-1684) 묘비 : 1717년(숙종43) 건립

公은 產陽金氏를 配位로 맞아들였다. 부덕이 두루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두 딸만 두고 乙酉年(1645)에 卒하여 墓는 公의 묘소와 同岡異墳이며, 再娶는 完山李氏로 역시 순실한 성품과 훌륭한 操行이 있어 유덕한 분과 짝하기에 손색이 없었는데 甲申年(1704)에 卒하니 公의 왼쪽에 附葬하였다. 三男一女를 낳았는데…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637)

- 申陞 (1543-1592) 묘비 : 1688년(숙종14) 건립

公의 前夫人 李氏는 소생이 없었고 後夫人 최씨는 여러 자녀(3남 2녀)를 홀로 교양하니… *碑陽에 後夫人을 附左함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二集 p.693)

- 趙 鑑(1578-1647) 묘비 : 1721년(경종1) 건립

公은 金敬의 따님을 첫부인으로 맞이하였으나 자녀가 없었고 許氏를 繼室로 맞이하였으니 성품이 순박하고 靖一하였으며 婦道를 잘지켜 공을 섬겨온지 40년 동안 순실하게 받들기를 하루같이 하셨다. 신묘년(1651)에卒하여 公墓의 좌측에 부장하였다. 김씨의 묘는 북쪽에 있다. 공은 3남 4녀를 두었으니... (京畿金石大觀 第三集 p.647)

위의 다섯 기록을 살펴보면 前夫人을 따로 장례지내고 後夫人을 合葬한 경우인데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前夫人이 後詞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後夫人을 合葬하게 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합장의 방위문제를 서술하면서 구체적으로 후술하겠다.

위의 5基를 비롯하여 전술한 李炯信과 후술할 安濬慶을 포함 7基의 例를 제외하고는 조사된 부부만의 合葬의 경우는 모두 부인이 1명인 경우이거나 前夫人을 合葬한 경우로 원칙적으로는 元配를 合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3. 合葬의 方法 및 墓碑의 建立 時期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부의 卒年이 다르기 때문에 合葬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으로 합장을 하게 되며 합장하고 묘역을 조성하는데 있어 묘비의 건립 시기는 대체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역시 이 부분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묘비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吳泰周(1668-1716) 묘비 : 1668년(숙종14) 건립

夫人 明安公主(1665-1687)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 禮葬하였는데 公이 卒하자 공주의 묘를 파서 合窆하였다.(1720년 金昌翁 撰 기록)

처음 공주가 돌아가자 비석을 下賜하여 表를 세웠으나 단지 前面의 左行만을 세웠으니 左方은 公이 손수 쓰시고 나머지는 후일에 대비하였다. 지금 삼가 공의 遺筆을 모아 이를 본떠 追刻하여 重建한다. 明安公主는 顯宗大王의 셋째 따님으로 崇禎 紀元後 乙巳(1665)생으로 丁卯(1687) 5월 16일 병환으로 일어나지 못하니 겨우 23세였다. 廣州 月谷里에 下棺하니 그해 7월 23일이었다. 장사지낸 다음해 戊辰(1668) 3월 4일 비석을

세우다(追記). (京畿金石大觀 第二集 p.715)

• 金萬採(1644-1715) 묘비 : 1716년 (숙종43)건립

10년 뒤 부인을 附葬하였는데 부인은 丙戌年(1646) 2월 23일에 출생하여 乙巳年(1725)

8월 18일 卒하여 10월 22일 장례하였다(追記).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631)

위 吳泰周의 묘비문의 내용을 보면 '公이 卒하자 공주의 묘를 파서 合窆하였다'는 기사는 1720년 金昌翁이 撰한 기록이다. 그 이후의 기록은 묘비의 碑陰에 金昌翁이 撰한 公의 行迹에 대한 기록을 전부 새긴 후 나머지의 공간에 묘비의 건립에 대한 기사를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결국 이 묘비의 건립과정을 분석하여 보면 明安公主가 卒한 다음해인 戊辰年(1688)년에 顯宗이 下賜한 비석으로 表를 세울 때 단지 前面(碑陽)의 左行만을 새겼는데 그 左方은 公이 손수 쓴 글이었다. 참고로 그 左方의 내용은 “朝鮮國 王女明安公主之墓”이다. 이후 公이 1716년에 卒하자 1720년에 金昌翁이 撰한 墓碣銘并序를 後面(碑陰)에 새기면서 碑陽의 右行은 公의 遺筆을 모아 이를 본떠 追刻하고, 이 사실을 다시 碑陰에 金昌翁의 撰 이후에 追記한 것이다. 결국 이 묘비의 건립연대는 1688년이 되지만 1720년경에 모든 비문이 완성되었던 묘비이다. 이상의 묘비건립과 追刻과정은 이미 공주의 墓에 公을 合葬시킬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방법은 공주의 묘를 파서 公을 合窆하여 單墳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예가 발굴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은 京畿道 華城郡 松羅里 第3號墳으로 이 灰槨墓는 夫人의 灰槨을 먼저 조성하고 이후 다시 壙中을 파고 남편의 灰槨을 조성함으로써 合葬을 한 灰槨墓임을 알 수 있었다.³⁾

한편 위 묘비문에서 말한 左行 및 左方의 방위 개념은 우리가 묘비를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右行, 右方으로서 결국 前者의 방위 개념은 산 자가 묘비를 바라보았을 때의 개념이 아니라 亡者 즉, 무덤에 누워 있는 자의 방위 개념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합장의 방위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후술하겠다. 다만 지금부터 쓰게 될 左·右의 방위 개념은 묘역의 뒤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즉, 亡者의 방위 개념으로 기술함을 밝혀둔다.

다음 金萬採의 묘비문을 살펴보면 위 기록은 아들 金鎭商이 撰하고 글을 써 1716년에 세운 묘비의 碑陰의 여유 공간에 1725년에 이루어진 부인의 合葬 사실을 후에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碑陽의 右行에는 “貞夫人全義李氏附左”라고 左行의 2行과 똑같은

3) 尹世英·金右臨, 1995, 「華城 松羅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간) 유적발굴조사보고서』 2.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pp.33-36.

글씨체로 刻字되어 있다. 이것은 위 吳泰周의 경우처럼 기록에는 없지만 右行을 비워 두었다가 夫人의 장례후 묘비문을 썼던 아들 金鎭商(1684-1755)이 다시 글을 쓰거나 준비하여 두었던 글씨로 刻字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吳泰周와 金萬採의 묘비는 부부중 한 사람이 먼저卒하여 장례지낸 후 墓碑를 건립하고 후에 合葬한 사실을 碑陽과 碑陰에 追刻하여 기록한 예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 2基의 例를 제외하고 조사된 나머지 合葬의 묘비 145基는 일부는 合葬이 완료된 직후에,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나 묘비가 건립되었다는 사실이다. 吳泰周의 경우 公主가 卒하여 임금이 애석히 여겨 비석을 하사하여 먼저 세운 경우라고 이해한다면, 金萬採 묘비의 例는 그 경우의 수가 극히 異例의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는 合葬이후에 묘비가 건립된 대다수의 例중에서 비교적 합장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묘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金一振 (1633-1665) 묘비 : 1691년(숙종17) 건립

공의 묘소가 처음에는 高陽郡 산산 밑에 있었는데 부인(1633-1684)의 묘소를 공의 묘소 뒤 서쪽 60步 子坐의 언덕에 정하므로 그 오른쪽을 비웠다가 그 이듬해(1685년) 9월 公을 合葬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五集 p.573)

- 沈誥 (1585-1640) 묘비 : 1705년(숙종31) 건립

공이 돌아가신 지 55년이 지나서 공의 손자인 檀이 길일을 택하여 安城郡으로 이장하여 공의 夫人인 綾城具氏(1585-1663)와 合葬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五集 p.615)

- 羅星斗(1614-1663) 묘비 : 1708년(숙종34) 건립

公은 癸卯年(1663) 병으로 卒하니 향년 50세였다. 처음에는 豐壤에 장사지냈다가 辛亥年(1671) 과천으로 遷葬하였다. (中略) 공이 작고한지 30년이 된 후에 良佐(공의 2子)가 碣文을 나(朴世堂)에게 부탁한지라 삼가 諸公이 지은 行狀과 墓表, 墓誌를 상고하여 序次한다. (中略) 夫人은 癸酉年(1693) 12월 18일 병으로 卒하니 수는 80세이고 明年 2月 年運이 不吉하여 權窆하였다가 乙亥年(1695) 공의 묘 왼쪽에 附葬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613)

- 韓聖佑(1639-1710) 묘비 : 1722년(경종2) 건립

公은 11月 13일에 卒하여 다음해 正月 25일에 廣州의 月谷里에 장사지냈다가 1715년에 廣州 富谷村에 이장하고 夫人 洪氏(생몰년미상)를 附左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二集 p.731)

- 李昌運(1713-1791) 묘비 : 1798년(정조22)

配位 南氏는 壬寅(1782)에 추하여 처음에는 先塋의 곁에 장사지냈다가 후에 이장하여

公墓의 왼편에 合葬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二集 p.799)

바로 위의 다섯 가지 예와 앞서 例로 들었던 吳泰周 · 金萬採의 묘비를 함께 살펴보면 남편이 죽자 바로 부인의 묘에 합장한 예(吳泰周)와 반대로 부인이 죽자 바로 남편의 묘에 합장한 예(金萬採), 일단은 각각 單獨葬으로 장사지냈다가 남편을 부인의 묘소에 옮겨 합장한 예(金 · 振)와 부인을 남편의 묘소에 옮겨 합장한 예(羅奎斗, 李昌運), 그리고 합장을 위해 부부를 모두 한 곳에 이장한 경우(韓聖佑, 沈誥) 등 다양한 합장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합장의 방법에는 일정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神道碑文에서도 合葬의 方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는 다른 합장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宋寅(1516-1584) 신도비 : 1644년(인조22) 건립

옹주는 공과 더불어 同年 生인데 공보다 3년 먼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虛室을 두어

그 오른쪽에 장례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同封(合葬)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三集 p.173)

이것은 미리 虛室을 마련하여 合葬에 대비한 경우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합장이던 간에 묘비의 건립은 대체로 합장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이장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만큼 묘역에 설치된 다른 석물의 연대 설정 및 출토 유물의 연대 설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合葬의 方位問題

1) 左 · 右의 개념

방위와 위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陰陽論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다. 『禮記』 「檀弓」(上) 편의 注에 의하면 吉事에서는 左를 높이는데 左가 陽이기 때문이고, 喪事에서는 右를 높이는데 右가 陰이기 때문이다.⁴⁾ 이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경우도 吉事に 있어서는 남자

4) 『禮記』 「檀弓」上, 「二三子皆尙左(注) 吉事尙左陽也, 凶事尙右陰也」

는 양이므로 左, 여자는 음이므로 右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左右의 위치가 어느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보는 방향의 기준에 따라 左右는 쉽게 바뀌기 때문이다.

『禮記』 「大射禮」에는 ‘山左房(注)左方, 東方也’이라 하여 좌측을 동쪽으로 규정하고 있다. 左가 동과 관련되는 근본 원인은 『禮記』 「曲禮」에 보이는 ‘天子南面’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천자 또는 군자는 남면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연히 천자나 군자의 좌측은 동쪽이 된다. 더욱이 동쪽은 해가 뜨는 양의 방위이므로 결과적으로 천자나 군자의 좌측은 양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⁵⁾

결국, 南面하여 즉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하여 좌측과 동쪽이 陽이 되고 남자의 위치가 되며 우측과 서쪽이 陰이 되고 여자의 위치가 되는 것이다.

한편, 方位와 位置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上下와 輕重의 관념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생사에 따라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陰陽論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地上은 陽이며, 地下는 陰으로 구분하여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에 살고 있을 때는 동쪽과 왼쪽을 뒷자리와 무거운 방위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하에 묻힐 때는 오히려 서쪽과 오른쪽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이곳에서 다루고자하는 合葬의 방위 문제도 역시 어느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덤에 있어서의 방위는 무덤이 자리잡고 있는 산줄기와 시신의 머리를 두는 곳을 북쪽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관점에서 나온다.⁷⁾ 이에 따라 풍수에서 말하는 ‘左靑龍 右白虎’도 자연스럽게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墓碑文에 나타난 모든 左右, 前後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모두 亡者 즉 시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관점에서 나오고 있으며, 合葬의 경우에 나타난 묘비문의 기준은 亡者 중에서도 남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을 陰宅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집의 주인은 역시 亡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또한 살아 생전의 남편의 家長으로서의 역할이 陰宅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관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吳泰周 묘비문에 나타난 左行 및 左方の 개념은 산 자가 묘비문을 바라

5) 이은주, 1997, 「전통문화 속에서의 좌·우 개념」 『한국민속학보』 제8호, p.26.

6) 장철수, 1991, “合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 p.419.

7) 장철수, 앞의 글.

보았을 때의 개념이 아니라 亡者 즉 무덤에 있는 시신을 기준으로 한 방위 개념인 것이다. 이후 표현되는 모든 左右의 방위 개념은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한 亡者를 중심으로 한 左右 개념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合葬에 나타난 방위 문제를 서술하겠다. 전술한 것처럼 조사된 211基의 묘비 가운데 合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47基 이다. 그 중 단지 合葬의 사실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47基, 부인을 남편의 왼쪽에 合葬한 祔左가 59基, 부인을 남편의 오른쪽에 合葬한 祔右가 13基, 두 부인을 합장한 三位合葬이 22基, 세 부인을 합장한 四位合葬이 3基, 祔後의 합장이 2基, 祔前의 합장이 1基가 조사되었다.(表1 참조)

2) 祔左·祔右의 合葬

전술한 것처럼 음양론에 의거 사람이 지하에 묻힐 때는 생시와는 반대로 오히려 서쪽과 오른쪽을 더 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合葬의 경우 남편이 오른쪽에 묻히고 夫人을 남편의 왼쪽에 祔左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위의 통계에 의해서도 祔左의 경우는 59基로 祔右의 13基 보다는 월등히 많은 편이나, 祔右의 경우 13基도 결코 적은 편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리로 祔右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祔右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해석을 시도한 논문은 없었다.

祔左를 한 59基의 묘비문에는 부좌를 한 이유를 밝힌 기록이나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기록은 없다. 반면 祔右를 하게 된 이유를 밝힌 기록은 2基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安瀋慶(1616-1673) 묘비 : 1692년(숙종18) 건립

先娶의 龍仁李氏는 公보다 5년을 앞서 돌아가 公의 祖墓의 왼편 五步쯤에 장례하였으며, 後娶 尙州朴氏는 辛未(1691)에 卒하여 公과 穴을 같이 하였으나 左便은 穴이 부족하여 右便에 祔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三集 p.589)

- 李德澗(1566-1645) 묘비 : 1657년 (효종8) 건립

(公은) 그해(1645년) 7月 29일에 卒하니 향년 80세였다. 9月 高陽의 砧山에 장사지냈다. 前夫人 申氏는 公의 묘 우측에 있는데, 37세에 돌아가 42년이나 먼저 장례를 치렀으므로 우측에 있는 것이다.⁸⁾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565)

8) ‘其七月二十九日卒享年八十 九月葬于高陽之砧山 前夫人申氏之葬在右 夫人三十七沒慨 四十二年先葬故在右’

위의 두 기록은 附右를 하게 된 이유를 확실하게 밝힌 기록이다. 安瀆慶의 경우는 왼쪽에 穴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附右한 것으로서 그것이 風水의 方法論에 근거한 穴의 부족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형상 시신을 함장할 공간이 없어서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반면 李德潤의 경우는 42년이나 먼저 장례를 치룬 前夫人을 合葬하는 禮를 갖추면서도 그것이 附右하게 된 이유임을 밝혀 놓고 있다.

다음은 附右의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李慶流 (1564-1592) 묘비 : 1728년(영조4) 건립

公은 임란때 적진에서 전사하여, 공의 관복과 이불로써 廣州의 先塋에 장례를 치루었다. 부인은 橫城李氏로 88세 되던 庚寅年(1650)에 돌아가니 공의 묘소 오른쪽에 장사지냈다. (京畿金石大觀 第六集 p.415)

- 朴昕 (1402-1441) 묘비 : 1484년(성종15) 건립

公은 天安全氏를 맞아들여 4남 4녀를 낳았으나 나이40에 일찍 세상을 떠나 高陽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甲辰年(1484) 병으로 卒하니 향년 83세로 공의 오른쪽에 함께 장사지냈다. (京畿金石大觀 第五集 p.483)

- 沈友俊 (1547-1604) 묘비 : 1625년(인조3) 건립

公의 先配 竹山朴氏는 甲戌年(1574)에 작고하니 나이가 겨우 30세였다. 果川에 장사지냈다가 공을 장사할 때 이르러 공의 무덤 오른쪽에 이장하였다. 後配 宋氏는 癸亥年(1623)에 작고하니 향년 61세였다. 이듬해 12月 22日 비로소 공의 무덤 남쪽에 묘소를 정했으니 그것은 그간의 山運이 고르지 못하여 급한 대로 장사지냈기 때문이다.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549)

- 方禹疇 (1770-1815) 묘비 : 1855년(철종6) 건립

公은 乙亥年(1815) 卒하니 향년 46세이다. 高陽 先塋에 장사지냈다. 配位 天安李氏는 癸卯年(1843)에 卒하니 향년 72세이며 공의 묘에 合葬하였다. (京畿金石大觀 第六集 p.495)

이상의 네 기록을 살펴보면 李慶流의 경우 夫人이 58年후에 卒하였고, 朴昕의 경우 夫人이 43年후에 卒하였고, 沈友俊의 경우는 夫人이 30年전에 卒하였고 方禹疇의 경우는 夫人이 28年후에 卒하였다.

이처럼 남편과 부인의 卒年 차이가 많게는 58年 적게는 28年의 차이가 난다. 이것이 곧

稍右하게된 이유임을 밝혀둔 기록은 없지만 전술한 李德潤의 경우처럼 이것이 일단 稍右의 이유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 밖의 나머지 7基의 稍右한 것을 살펴보면

李 祔(1627-1682) 묘비 : 1703년 (숙종29) 건립 → 夫人이 17년후에卒
 金尙星(1703-1755) 묘비 : 1778년 (정조 2) 건립 → 夫人이 17년후에卒
 鄭民始(1745-1800) 묘비 : 1826년 (순조26) 건립 → 夫人이 17년전에卒
 金茂澤(1715-1778) 묘비 : 1818년 (순조17) 건립 → 夫人이 12년후에卒
 沈宜普(1782-1844) 묘비 : 1874년 (고종11) 건립 → 夫人이 12년전에卒
 金東獻(1791-1869) 묘비 : 1872년 (고종 9) 건립 → 夫人이 11년전에卒
 韓翼謨(1703-1786) 묘비 : 1797년 (정조21) 건립 → 夫人이 9년전에卒

이상의 7개의 기록은 夫人과 남편과의 卒年차가 크게는 17년에서 작게는 9년 까지로 이것이 稍右의 이유로 추정하기에는 稍左의 경우 이 정도의 차이는 흔히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稍左의 이유가 다른 무엇에 또 있는지 연구 과제이다.

3) 三位合葬 · 四位合葬

두 부인을 같이 合葬한 것을 三位合葬이라 하고 세 부인을 함께 合葬한 것을 四位合葬이라고 한다. 한 부인만을 合葬한 경우는 兩位合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지 合葬이라고만 부른다.

이러한 三位合葬 · 四位合葬에서 合葬에 나타난 左右의 方位 問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三位合葬의 예를 살펴보면 조사된 22基 중 전 · 후부인을 각각 左 · 右에 合葬한 경우가 10基, 모두 左측에 合葬한 경우가 2基, 品子形으로 合葬한 것이 1基, 나머지 9基는 단지 三位合葬의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먼저 전 · 후부인을 각각 左 · 右에 合葬한 경우 중 그 방위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李杭 (1612-1656) 묘비 : 1711년(숙종37) 건립

配는 豐川任氏와 平山申氏로 두 분 모두 함께 稍葬하였다. 任氏의 소생은 2女이고,

申氏의 소생은 1男 2女이다. *碑陽에 任氏는 附右, 申氏는 附左임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四集 p.571)

- 鄭昌兪 (1713-1758) 묘비 : 1790년(정조14) 건립

先妣 (註: 아들이撰한 글임) 完山李氏는 申卯年(1711)에 낳아 戊辰年(1748)에 卒하였으니 壽는 38세이다. 繼妣 南陽洪氏는 戊申年(1728)에 낳아 부군의 장례를 치르고 卒하니 壽는 31세였다. 先君은 楊州 先塋에 장사 지냈는데 먼저 쓴 先妣와 同窆하고 繼妣는 同原異墳(註: 쌍분을 조성) 하였다. (中略) 선비는 2男 3女를 두었고 계비는 1女를 두었는데 요사하였다. *碑陽에 李氏는 附左, 洪氏는 附右임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775)

- 李吉輔 (1699-1771) 묘비 : 1791년(정조15) 건립

原配 豐壤趙氏가 왼쪽에 後配 光山金氏가 오른쪽에 附葬되어 있는데 趙夫人은 1男1女를 낳았고 金夫人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碑陽에 附左·附右 기록 없음.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785)

- 李福源 (1719-1792) 묘비 : 1800년(정조24) 건립

前夫人 坡平尹氏는 丁酉年(1717)에 출생하여 戊午年(1738)에 卒함에 처음에 海望山에 장사하였다가 뒤에 부군 묘 오른쪽에 합장하였고, 後配 順興安氏는 乙巳年(1725)에 출생하여 丁丑年(1757)에 卒하니 처음에는 文基里에 장사하였다가 옮겨서 부군 묘의 왼쪽에 합장하였다. 尹夫人에게는 2女가 있었는데 모두 일찍 죽었고 安夫人에게는 2男이 있었다. *碑陽에 尹씨는 附右, 安氏는 附左임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五集 p.685)

이상의 네 기록은 두 부인을 합장하는 三位合葬에 있어서 그 方位 문제는 전·후부인의 서열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後嗣를 이을 수 있는 자식 문제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들을 낳은 부인을 附左하게 되고 아들을 낳지 않은 부인을 附右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兩位合葬의 경우 前夫人이 아닌 後夫人을 합장하게 되는 이유도 역시 後嗣의 문제에 있음도 확인되었던 바이다. 다만 여기서 집고 넘어갈 문제는 三位合葬에서 아들을 낳은 부인을 附左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 부인을 附右함으로써 亡者인 남편에게서 좌측이 우측보다 더 중요한 자리였음을 일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前·後夫人을 각각 左右에 合葬한 경우로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鄭相 (1618-1681) 묘비 : 1726년(영조2) 건립

元嬪은 原州金氏로 2男 1女를 두었고, 繼嬪은 平壤趙氏로서 3男 3女를 길렀으며 公보다 26년 후에 돌아가셨다. *碑陽에 金氏는 附左, 趙氏는 附右임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二集 p.739)

- 鄭一祥 (1721-1792) 묘비 : 1792년(정조16) 건립

初娶는 延安李氏이고 再娶는 靑松沈氏인데 高陽君 先塋에 따로 장사지냈다. 三娶는 廣州李氏로서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이름이 存大인데 進士가 되었으나 일찍 죽었다. 後嗣가 없어 再從孫인 觀綏로서 後嗣를 삼았다. (中略) 壬子年(1792)에 公이 卒하니 高陽의 선영에 장사 지내고 元妣 延安李氏의 묘를 옮겨 公의 묘소 왼쪽에 合葬하였다. * 碑陽에 延安李氏는 附左, 廣州李氏는 附右임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六集 p.467)

- 鄭一祥의 再娶 靑松沈氏 (1731-1752) 묘비 : 1790년(정조14) 건립

夫人의 姓은 沈氏이다. 夫人은 17세때 나 (註: 鄭一祥이 撰)에게 시집와서 5년이 지나 죽으니 이때가 壬申年(1752)이다. 元配 李氏 (註: 위 初娶인 延安李氏)는 楊州에 묘소가 있는데 땅이 좁고 형세가 굽어 좋지 않다. (京畿金石大觀 第六集 p.463)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鄭相의 前·後夫人이 모두 2男 1女, 3男 3女로 後嗣를 이을 자식을 낳았으나 적정자를 낳은 前夫人을 附左하고 後夫人을 附右한 경우이다. 鄭一祥의 경우는 前·後夫人이 모두 後嗣가 없었고 三娶에게서 1男이 있었기 때문에 初娶를 附左하고, 再娶는 단독장으로 장례하였으며, 三娶를 附右하여 合葬한 경우이다. 또한 再娶인 靑松沈氏의 묘비문에 의하면 靑松沈氏는 22세의 나이로 卒하여 남편인 鄭一祥이 묘비를 건립할 때(1790)에도 이미 남편보다 38年前에 卒하였으며, 묘비를 건립함으로써 이미 남편이 再娶는 단독장으로 하고 初娶는 合葬할 것을 확정하여 놓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鄭相, 鄭一祥의 경우는 後嗣의 문제가 조건이 비슷할 때에는 前夫人을 附左하고 後夫人 및 三娶를 附右하며 앞서 밝힌 바 있는 남편과의 상당한 卒年차이 등이 合葬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亡者인 남편에게서 좌측이 우측보다 더 중요한 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前後夫人을 각각 左·右에 합장한 나머지 네 개의 경우는 첫째, 金世淵(1745-1813)(表1 No.199)의 경우는 前後夫人이 모두 1女씩을 두었는데 前夫人을 附右, 後夫人을 附左한 경우이다. 둘째, 金炳翼(1818-1875)(表1 No.205)의 경우는 前夫人이 자식이 없고 後夫人이 1男을 낳았는데 前夫人을 附左하고 後夫人을 附右한 경우이다. 이상의 두 경우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과는 반대의 경우이다. 비록 경우의 수는 적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연구 과제이다.

셋째, 吳鼎周(1648-1720)〈表1 No.134〉의 경우로 前夫人을 附左, 後夫人을 附右하였는데 1男이 누구의 소생인지 묘비문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며, 넷째, 吳達濟(1609-1637)〈表1 No.185〉의 경우는 前後夫人의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礪良君(?-1653)〈表1 No.26〉과 方泰興(1705-1778)〈表1 No.164〉의 경우는 前後夫人을 모두 附左하여 合葬한 것으로 이것은 전술한 지하에 묻힐 때 오른쪽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여 남편을 우측에 묻어 合葬한 경우이다.

이 밖에 지금까지 예를 든 방법과는 다르게 한 형태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韓明勗 (1567-1652) : 1683년(숙종9) 건립

前後의 夫人이 한 언덕(同一原)을 같이 하였으나 後配는 언덕 위쪽에 附葬(附于原之上)하였다. 前配 朴氏는 향년 52세에卒하고, 後配 鄭氏는 향년 81세이다. 後配에게서 1女 1男을 두었다. *碑陽에 高靈朴氏之墓, 東來鄭氏之墓라고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五集 p.651)

이 韓明勗의 合葬墓域 조성방법은 前夫人을 쌍분을 조성하여 合葬하고, 쌍분의 중간 뒤로 또하나의 봉분을 만들어 後夫人을 부장하여 전체적으로 세 개의 봉분을 品字形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형태도 이 묘역에서는 墓碑, 床石 등 石物과 階節, 拜階節을 모두 같이 함으로써 역시 三位合葬으로 본다.

다음은 조사된 3基의 四位合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묘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金信忠 (1625-1704) 묘비 : 1719년(숙종45) 건립

공을 高陽에 장사지냈다. 初配는 坡平尹氏로서 後嗣가 없으며 공의 묘 오른쪽에 附葬하였다. 再配는 仁同張氏(1656-1684)로서 향년 29세이며 공의 墓 왼쪽에 부장하였는데 3男 2女를 낳았다. 三配는 順興安氏(1631-1710)로서 향년 80세이며 왼쪽에 부장하였는데 세부인 모두 공과 같은 무덤에 附葬하였다. *碑陽에 "... 金公四位之墓"라고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六集 p.411)

• 金致仁 (1716-1790) 묘비 : 1790년(영조14) 건립

元配 完山李氏는 공의 묘소 오른쪽에 合葬하였고 繼配 達城余氏는 공의 왼쪽에 合葬하였고 또 三配는 廣州李氏이다. 공은 1男 3女를 두었으나 모두 기리지 못하였다. *碑陽에 元配는 附右, 繼配는 附左, 三配는 附前임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二集 p.819)

- 尹行直 (1760-1838) 묘비 : 1857년(철종8) 건립

公은 戊戌年(1838) 9月6日 考終하니 향년 79세 였다. 그해 겨울 安山 修理山 山頂에 장사지내니 세 부인의 묘는 앞서 이장하여 가운데의 穴을 남겼다가 산가 遺意에 따라서 合葬하였다. 原配 潘南朴氏 (1761- 1835)는 자녀가 없고, 繼配 星州李氏(1758-1798)는 1男 1女를 두었다. 三配 南陽洪氏(1777-1813)는 1女를 두었다. *碑陽에 原配 附右, 繼配 附左, 三配 附右임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七集 p.881)

이상의 四位合葬기록들은 金信忠 및 특히 尹行直의 묘비문에서 附左하게된 이유가 後嗣의 문제에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亡者인 남편에게 있어서 좌측이 우측보다 중요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金致仁의 묘비문에서는 자식이 누구의 소생인지를 밝혀두고 있지 않아 그 의미를 밝힐 수 없다. 다만 이 묘역의 合葬方法은 單墳에 元配・繼配를 合葬하고 三配를 바로 앞의 별도의 봉분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碑陽에 “附前”이라 표현하여 合附였음을 밝히고 있고 묘비를 같이 함으로써 四位合葬이라 볼 수 있다.

4) 附後・附前 合葬

조사된 210基의 묘비가운데 附後의 合葬은 2基, 附前의 合葬은 1基가 있다.

먼저 附後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韓榮 (1587-1652) 묘비 : 1695년(숙종21) 건립

夫人 南平文氏는 公이 돌아가신 지 23년 뒤인 甲寅(1674)에 公의 부덤 곁에 장사지냈다가 뒤에 한 묘로 合葬하였다. 두 아들이 있다. *碑陽에 부인이 附後임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六集 p.351)

- 皇甫仁 (?-1453) 묘비 : 1765년(영조41) 중건

夫人은 陽城李氏로 아들 셋을 두었다. 公은 坡州에 장례를 지냈는데 부인을 먼저 이곳에 장례지내어 그 위에 있다. *碑陽에 夫人이 附後임을 기록 (京畿金石大觀 第二集 p.779)

위 두 기록에 附後의 이유를 밝힌 기록은 없다. 봉분을 위・아래에 쓰고 묘비를 1基로 써서 附葬임을 밝힌 것 또한 合葬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韓榮의 墓域은 單墳에 附後를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바 없어 그 내부의 구조 및

기록의 사실여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祔前의 合葬은 洪智(14세기末~15세기前半)(表2 No.I48) 경우인데 이 묘비는 1770년 (영조46)에 중건된 것이다. 묘비의 碑陽의 左方に “安人開城王氏祔”라하여 祔葬임을 표시하고 다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2行으로 “左公墓前七步” 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碑陰에는 公의 옛날 墓表(舊表)와 夫人의 舊表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실제로 이 봉분의 묘역은 合葬이라기 보다 각각의 單獨葬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다만 후대의 묘비에 祔葬임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祔前의 合葬으로 분류할 뿐이다.

5. 墓碑의 碑陽에 나타난 方位 問題

府	綏	朝
都	祿	鮮
摠	大	國
管	夫	
吳	海	王
公	昌	女
泰	尉	明
周	兼	安
道	五	公
長	衛	主
之	都	之
墓	摠	墓

전술한 것처럼 墓碑文은 대체로 碑陽에 “某官某公之墓” 라고 간단하게 관직과 姓 또는 姓名을 기록하고, 夫人의 本官姓氏 및 合祔관계도 기록하며, 碑陰에 보다 자세한 기록을 새겨둔다. 여기에서는 이때 合葬의 경우 碑陽에 나타난 남편과 부인에 대한 기록의 위치와 실제 祔葬의 方位와의 연관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前述한 吳泰周 묘비의 碑陽에 나타난 기록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한다.

왼쪽의 것은 吳泰周 묘비의 碑陽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것에 대한 碑陰의 기록을 다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공주가 돌아가시자 비석을 하사하여 表를 세웠으나 단지 전면의 左行만을 새겼으니 左方은 즉 공이 손수 쓰시고 나머지는 비워두어 후일에 대비하였다.”⁹⁾

위와 같은 左行 및 左方の 위치표시는 조사된 묘비문에서 유일한 기록으로 이 방위 개념은 산 자가 묘비를 바라보았을 때의 개념이 아니라 亡者 즉 무덤에 있는 시신을 기준으로 한 방위 개념이며 그 의미는 陰宅의 主人인 亡者를 기준으로 하는 당연한 방위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9) ‘始公主卒 賜石樹表只刻前面左行及左方即公手書 而處其餘以待日後’

恭 人 平 壤 趙 氏 祔 右	朝 鮮 通 德 郎 鄭 公 相 之 墓	恭 人 原 州 金 氏 祔 左
--------------------------------------	--	--------------------------------------

한편, 전술한 三位合葬의 경우 중 鄭相·鄭亨復·鄭一祥 묘비의 碑陽의 기록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다음의 것은 鄭相의 예인데 전체가 3行으로 中央에 公에 대한 기록을 하고 左行에 祔左한 夫人, 그리고 右行에 祔右한 夫人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碑陽에 나타난 세 사람의 위치는 실제로 무덤에 묻혀있는 위치와 일치한다. 따라서 위에 表現된 左右의 개념은 모두 亡者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산 자가 묘비를 바라보았을 때 쉽게 亡者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3基의 묘비처럼 碑陽에서의 위치가 실제 무덤에서의 위치와 같게 표현되어 산 자에게 묘비를 통하여 亡者의 위치를 쉽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았었다. 예를 들어 앞의 吳泰周 墓碑의 경우 合葬의 사실만 파악될 뿐 祔右·祔左의 방위 문제는 알 수 없는데 碑陽에 나타난 明安公主의 위치가 左方인 것이 祔左임을 묘비를 읽는 산 자에게 암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假說을 확인하기 위하여 祔左·祔右를 알 수 있는 兩位合葬의 예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묘비의 碑陽에 나타난 부인에 대한 祔葬 表現 및 位置, 碑陽의 기록의 書順 즉, 左方에서 右方, 또는 右方에서 左方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는 문제 및 行數 등을 조사하였다.

左·右 合葬의 총 72基 중에서 碑陽에 부부의 위치를 나타난 비문은 59基로 그 방위 문제는 <表2>와 같다. <表2>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묘비의 碑陽의 기술은 위 가설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碑陽에 左方에서 右方으로 또는 右方에서 左方으로 서술하는 書順이 더 중요하게 기술되어 있는 측면이 많다. 참고로 左方에서 右方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51基인 반면 右方에서 左方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단지 8基이다.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漢文의 특성상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둘째, <表2>에서 가능한 모든 組合을 하여 보았지만 규칙성을 가진 것은 단 하나의 組合만 존재한다. 이것은 碑陽의 書順이 左方에서 右方으로 기술되어 있는 51基 가운데 坤이 夫人의 위치를 左方の 첫행으로 오게 하여 남편의 기록보다 먼저 기술한 9基(<表2>의 No. 2, 14, 18, 20, 23, 24, 30, 31, 53)의 경우로 모두 祔左의 경우이다. 이것은 碑陽에서의 부부의 위치가 실제 무덤에서의 위치와 같게 되어 산 자에게 묘비를 통하여 亡者의 위치를 쉽게 가르쳐 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위 가설을 확인하여 주는 결과이다.

6. 合葬에 대한 考察

이상의 朝鮮時代 墓碑文을 통해서 본 合葬 問題의 分析을 통해 朝鮮時代に 있어 부부의 合葬은 마땅히 하여야 하는 性理學的 禮로서 받아들여졌으며, 陰陽論에 의거 亡者에게 중요한 자리가 좌측이 되며 이에 따라 가능한 元配를 附左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의 左·右의 개념은 亡者인 남편을 기준으로 한 方位 概念이었다.

그러나 여러 夫人이 있는 가운데 兩位合葬의 경우 元配·後配에 상관없이 後嗣가 있는 夫人을 合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附右의 경우는 부부간의 卒年差가 많이 나는 경우이다. 그리고 三位·四位 合葬의 경우에 있어서도 亡者인 남편에게 있어 좌측이 더 중요한 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後嗣가 있는 夫人을 附左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墓碑의 碑陽에 나타난 方位도 亡者를 중심으로 한 기준이며 일부 묘비는 碑陽에서의 위치가 실제 무덤에서의 위치와 같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부부의 合葬을 당연히 해야 하는 禮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單獨葬을 하는 墓制가 원칙이었다. 이것은 風水地理說의 영향으로 풍수의 기본은 生氣論과 感應論이다. 이것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면 生氣論은 우주의 조화력을 가진 生氣가 인생만물의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데, 생기가 충실한 땅에 거처를 정하면 좋은 생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感應論은 부모의 本骸(뼈)가 땅 속의 생기를 받으면父子 사이에 감응이 생겨 생기의 효과가 자손에게 주어져 발복을 일으킨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風水의 사상은 부모의 시신을 생기가 있는 좋은 땅에 모심으로써 本骸의 감응에 따라 자손이 번영을 이루고, 자손의 번영에 따라 부모·선조의 제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효도의 극치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孝를 중요시하는 儒敎의 思想과도 일치하여 조선시대 墓制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朝鮮時代에서는 性理學의 영향으로 禮書에 나와 있는 부부의 합장을 예로서 받아들여지면서, 合葬의 方法論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기에 음양론에 근거한 중요한 자리인 우측에 남편이 묻히고 元配를 附左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 부인이 있

10) 村山智順, 1990, 『朝鮮의 風水』, 최길성譯, 민음사, pp.38~41.

는 경우 後嗣가 있는 부인을 합장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부인을 함께 合葬하는 경우에는 亡者인 남편에게 중요한 자리인 좌측에 대부분 後嗣가 있는 夫人을 附左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風水地理說의 영향으로 후손의 감응을 後嗣가 있는 부인을 합장하게 되고, 또한 중요한 위치에 합장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合葬에 있어서도 여러 문화적 要素가 치밀하게 融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1〉 墓 碑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1	李 臺 (1393-1443)	中樞院府事/ 從二品	1443 (세종25)경	花冠石 ・ 碑臺			京6 p.537
2	尹 璠 (1384-1448)	贈領議政/ 正一品	1456 (세조2)	抹角形碑身 ・ 碑臺			京2 p.599
3	南陽洪公 (?)		1456 (세조2)	花冠石 ・ 碑臺			京6 p.299
4	趙鐵山 (?)		1467 (세조13)	花冠石 ・ 碑臺			京6 p.303
5	李士寬 (1382-1440)	漢城判尹/ 正二品	1473 (성종4)	花冠石 ・ 碑臺			京3 p.525
6	宋福山 (1390-1467)		1474-1483 (성종5-14)	花冠石 ・ 碑臺	附左		京3 p.531
7	李仁孫 (1395-1463)	右議政/ 正一品	1480 (성종11)	花冠石 ・ 碑臺	合葬	墓表陰(記)	京5 p.477
8	李 垺 (1429-1481)	崇政大夫/ 從一品	1482 (성종13)	花冠石 ・ 碑臺		墓表	京2 p.603
9	朴 昕 (1402-1441)	贈兵曹參判/ 從二品	1484 (성종15)	抹角形碑身 ・ 碑臺	附右	墓誌	京5 p.483
10	烏川鄭氏 (1418-1455)	贈貞夫人/ 正二品	1486 (성종17)	抹角形碑身 ・ 碑臺	單獨葬		京6 p.307
11	李 堦 (1419-1485)	崇政大夫/ 從一品	1486 (성종17)	抹角形碑身 ・ 碑臺			京6 p.313
12	安叔琪 (1426-1489)	內資寺副正/ 從三品	1489 (성종20)경	花冠石 ・ 碑臺			京6 p.531
13	韓 憫 (?-1496)		1496 (연산군2)	花冠石 ・ 碑臺	合葬		京3 p.807
14	鄭文炳 (1427-1501)	領中樞府事/ 正一品	1501 (연산군7)	花冠石 ・ 碑臺	合葬		京7 p.501
15	黃 愼 (15세기)	黃 愼 (15세기)	1507 (중종2)	花冠石 ・ 碑臺	合葬		京4 p.525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16	韓致義 (1440-1473)	兵曹判書/ 正二品	1508 (중종3)	螭首 ・方趺	單獨葬	墓碣	京6 p.327
17	全義李氏 (1442-1506)	貞夫人/ 正二品	1508 (중종3)	螭首 ・方趺	單獨葬	墓碣	京6 p.321
18	宋 軼 (1454-1520)	領議正/ 正一品	1520 (중종15)	花冠石 ・碑臺	合葬		京3 p.803
19	朴義榮 (1456-1519)	兵曹參議/ 正三品	1520 (중종15)	花冠石 ・碑臺			京4 p.531
20	南孝溫 (1454-1492)		1525 (중종20)	花冠石 ・碑臺			京2 p.609
21	鄭光輔 (1457-1524)	通政大夫/ 正三品	1525 (중종20)	螭首 ・龜趺	趺座	墓碣銘	京4 p.537
22	李允濯 (1462-1501)	權知承文院副 正字/從九品	1536 (중종31)	抹角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陰誌	서1 p.521
23	李彦洪 (1479-1546)	通訓大夫/ 正三品	1548 (명종3)	螭首 ・方趺		墓碣銘并序	京7 p.513
24	趙 翊 (1474-1547)	軍資監正/ 正三品	1549 (명종4)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銘并序	京5 p.495
25	宋之翰 (1493-1563)	贈戶曹判書/ 正二品	1564 (명종19)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銘并序	京2 p.613
26	礪良君 (?-1563)	贈戶曹判書/ 正二品	1564 (명종19)	花冠石 ・碑臺	三位 合葬		京3 p.799
27	邊安烈 (?-1390)	高麗領三司事/ 正一品	1571 (선조4)	冠石 ・碑臺	臺座	墓表	京3 p.537
28	尹 儼 (1536-1581)	戶曹佐郎/ 正六品	1582 (선조15)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銘	京7 p.519
29	鄭 裕 (1503-1566)	大司憲/ 從二品	1585 (선조18)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銘	京5 p.503
30	李億載 (1503-1584)	正義大夫/ 從二品	1586 (선조19)	螭首 ・方趺	趺座	墓碣銘并書	京3 p.545
31	鄭姬隣 (1532-1583)	通訓大夫/ 正三品	1587 (선조20)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銘	京7 p.527
32	沈守慶 (1516-1599)	右議政/ 正一品	1601 (선조34)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	서2 p.189
33	沈 貞 (1471-1531)	左議政/ 正一品	1601 (선조34)	冠石 ・碑臺	附左	墓碣文	서2 p.197
34	壺山君 (1536-1591)	贈嘉善大夫/ 從二品	1605 (선조38)	花冠石 ・碑臺		墓表陰記	京3 p.553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35	閔 純 (1519-1591)	通禮院右通禮/ 正三品	1611 (광해군3)	月頭形碑身 ・ 碑臺		墓碣銘并序	京1 p.749
36	李 軸 (1538-1614)	領議正/ 正一品	1617 (광해군9)	月頭形碑身 ・ 碑臺		墓碣銘	京7 p.533
37	任重臣 (1517-1580)	軍資監僉正/ 從四品	1617 (광해군9)	月頭形碑身 ・ 碑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7 p.541
38	沈友俊 (1547-1604)	成均館進士	1625 (인조3)	螭首・方趺	附右	墓碣銘并序	京7 p.549
39	韓致謙 (1574-1608)	中訓大夫/ 從三品	1626 (인조24)	月頭形碑身 ・ 碑臺	單獨葬		京6 p.343
40	李順長 (1479-1569)	贈領議正/ 正一品	1628 (인조6)	月頭形碑身 ・ 碑臺	單獨葬		京5 p.513
41	韓智原 (1514-1561)	贈吏曹判書/ 正二品	1629 (인조7)	月頭形碑身 ・ 碑臺	合葬		京4 p.545
42	韓 述 (1541-1616)	贈左贊成/ 從一品	1629 (인조7)	月頭形碑身 ・ 碑臺	合葬		京5 p.519
43	楊上彦 (1517-1584)	通政大夫/ 正三品	1630 (인조8)	冠石 ・ 碑臺			京4 p.549
44	李 謹 (?)	贈吏曹判書/ 從二品	1631 (인조9)	月頭形碑身 ・ 碑臺	單獨葬		京6 p.347
45	李 郁 (1558-1619)	贈戶曹判書/ 正二品	1633 (인조11)	八作屋蓋石 ・ 基臺	單獨葬	墓碣銘并序	서2 p.205
46	金 行 (1532~1588)	贈都承旨/ 正三品	1636 (인조14)	螭首 ・ 龜趺		墓碣銘并序	京1 p.757
47	金 綱 (1489-1555)	贈右贊成/ 從一品	1638 (인조16)	八作屋蓋石 ・ 基臺	臺座 合葬		京5 p.525
48	光海君 (1575-1641)		1641 (인조19)	冠石 ・ 碑臺	附左		京5 p.725
49	韓 絳 (1571-1629)	贈三曹參判/ 從二品	1644 (인조22)	月頭形碑身 ・ 碑臺	單獨葬		京2 p.631
50	睦進恭 (조선초)	戶曹參判/ 從二品	1644 (인조22)	月頭形碑身 ・ 碑臺	單獨葬		서1 p.529
51	吳允謙 (1559-1634)	領議正/ 正一品	1647 (인조25)	月頭形碑身 ・ 碑臺	合葬	墓碣銘并序	京3 p.557
52	金 鎮 (1522-1591)	贈左議政/ 從一品	1647 (인조25)	月頭形碑身 ・ 碑臺	合葬	墓碣銘	京5 p.533
53	成 渾 (1535-1598)	贈左議政/ 正一品	1649 (인조27)	八作屋蓋石 ・ 基臺		墓表陰記	京2 p.623
54	李清臣 (1529-1590)	禦侮將軍/ 正三品	1649 (인조27)	月頭形碑身 ・ 碑臺	合葬		京6 p.365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55	李景稷 (1577-1640)	贈領議正/ 正一品	1649 (인조27)	月頭形碑身 ・碑臺	三位 合葬		서2 p.217
56	李時稷 (1572-1637)	贈都承旨/ 正三品	1653 (효종4)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2 p.639
57	安坦大 (?)	贈右議政/ 正一品	1656 (효종7)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表陰記	京3 p.583
58	李德洞 (1566-1645)	贈領議正/ 正一品	1657 (효종8)	月頭形碑身 ・碑臺	附右	墓表	京7 p.565
59	洪命元 (1573-1623)	贈左贊成/ 從一品	1661 (현종2)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2 p.651
60	李泊之 (?)	司憲府執義/ 正三品	1661 (현종2)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7 p.573
61	宋斯敏 (?)	平山都護府使/ 從三品	1664 (현종5)	月頭形碑身 ・碑臺	單獨葬		京5 p.541
62	趙 堪 (1530-1586)	朝散大夫/ 從四品	1665 (현종6)	月頭形碑身 ・碑臺		墓碣銘并序	京2 p.663
63	鄭道亨 (1584-1645)	通訓大夫/ 正三品	1666 (현종7)	螭首 ・方趺	附左	墓碣銘并書	京5 p.547
64	柳時行 (1566-1607)	弘文館 校理/ 正五品	1666 (현종7)	冠石 ・碑臺			京7 p.579
65	權偉中 (1598-1629)	贈司憲府持平/ 正五品	1667 (현종8)이후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墓碣銘并書	서2 p.223
66	李基尚 (1558-1622)	贈吏曹參判/ 從二品	1668 (현종9)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5 p.553
67	申師任堂 (1504-1551)	貞敬夫人/ 正一品	1670 (현종2)		合葬	墓表	京2 p.671
68	申景慎 (1575-1643)	領議正/ 正一品	1675 (숙종1)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表	서1 p.535
69	靜嬪 閔氏 (1567-?)	嬪/ 正一品	1679 (숙종5)	月頭形碑身 ・碑臺	單獨葬	墓碣銘并書	京2 p.683
70	李 珙 (1588-1628)	仁城君/ 正一品	1681 (숙종7)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2 p.689
71	韓明崙 (1567-1652)	知敦寧府事/ 正二品	1683 (숙종9)	月頭形碑身 ・碑臺	三位 合葬	墓碣銘	京5 p.651
72	韓孝純 (1543-1621)		1683 (숙종9)	月頭形碑身 ・碑臺	三位 合葬		京6 p.371
73	申 砬 (1546-1592)	贈領議正/ 正一品	1688 (숙종14)	螭龍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書	京2 p.693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74	吳泰周 (1668-1716)	綏祿大夫/ 正一品	1688 (今宗14)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墓碣銘	京2 p.715
75	吳肅羽 (1592-1634)	贈吏曹判書/ 正二品	1690 (今宗16)	螭首 ・方趺	附左		京7 p.583
76	金一振 (1633-1665)	成均館生員	1691 (今宗17)	平屋蓋石 ・基臺	桌座 附左	墓碣銘并書	京5 p.573
77	安濟慶 (1616-1673)		1692 (今宗18)	月頭形碑身 ・碑臺	附右		京3 p.589
78	金千齡 (1469-1503)	藝文館應教/ 正四品	1695 (今宗21)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4 p.559
79	權 擘 (1520-1593)	贈禮曹參判/ 從二品	1695 (今宗21)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銘并書	京5 p.581
80	韓 榮 (1587-1652)	嘉善大夫/ 從二品	1695 (今宗21)	八作屋蓋石 ・基臺	附後	墓表	京6 p.351
81	李敬仁 (1575-1642)	通政大夫/ 正三品	1696 (今宗22)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銘并書	京6 p.375
82	李 述 (1613-1665)	贈大司憲/ 從二品	1696 (今宗22)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墓碣銘	서1 p.543
83	李壽俊 (1569-1642)	贈左參贊/ 從一品	1697 (今宗23)	螭首 ・方趺			京2 p.677
84	吳定邦 (1552-1625)	慶尙右道 兵馬節度使/ 從二品	1698 (今宗24)	螭首 ・方趺	跌座 合葬	墓碣銘	京2 p.769
85	李炯信 (?-1682)	贈興祿大夫/ 正一品	1698 (今宗24)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墓碣銘并序	京6 p.357
86	李敏章 (1620-1694)	贈吏曹參判/ 從二品	1699 (今宗25)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5 p.591
87	洪處亮 (1607-1683)	崇政大夫/ 從一品	1700 (今宗26)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	京3 p.595
88	任允錫 (1606-1685)	通政大夫/ 正三品	1701 (今宗27)	八作屋蓋石 ・基臺		墓碣銘并書	京5 p.599
89	李 塾 (1621-1680)	禦侮將軍/ 正三品	1701 (今宗27)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6 p.381
90	李元哲 (1615-1670)	贈奉列大夫/ 正四品	1701 (今宗27)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墓碣銘并書	京6 p.387
91	清州郡夫人韓氏 (1601-1630)	君夫人/ 正一品	1701 (今宗27)	月頭形碑身 ・碑臺	單獨葬		京6 p.395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92	任 澄 (1629-1664)	通德郎/ 正五品	1701 (享祚27)	月頭形碑身・碑 臺	三位 合葬		京7 p.591
93	李 祐 (1627-1682)	贈吏曹判書/ 正二品	1703 (享祚29)	八作屋蓋石・基 臺	附右	墓碣銘并書	京2 p.705
94	吳斗興 (1622-1665)	贈兵曹參判/ 從二品	1704 (享祚30)	螭龍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5 p.609
95	沈 誦 (1585-1640)	贈吏曹參議/ 正三品	1705 (享祚31)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5 p.615
96	驪興閔氏 (1625-1646)	贈貞敬夫人/ 正一品	1706 (享祚32)	螭首 ・方趺	單獨葬	墓碣銘并序	京5 p.623
97	金益勳 (1619-1689)	嘉善大夫/ 從二品	1707 (享祚33)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7 p.597
98	李敬興 (1585-1657)	領議正/ 正一品	1708 (享祚34)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4 p.565
99	羅星斗 (1614-1663)	海州牧使/ 正三品	1708 (享祚34)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7 p.613
100	金壽增 (1624-1701)	工曹參判/ 從二品	1710 (享祚36)	平屋蓋石 ・基臺	附左		京7 p.605
101	李 杭 (1612-1656)	通訓大夫/ 正三品	1711 (享祚37)	八作屋蓋石 ・基臺	三位 合葬	墓碣銘并序	京4 p.571
102	崔振雲 (1564-1623)	忠清都事/ 從五品	1711 (享祚37)	花冠石 ・碑臺	合葬		京7 p.628
103	柳尚運 (1636-1707)	領議正/ 正一品	1712 (享祚38)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墓碣銘并序	京3 p.609
104	趙聖期 (1638-1689)	布衣(관직 無)	1714 (享祚40)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3 p.627
105	崔 岏 (1539-1612)	刑曹參判/ 從二品	1715 (享祚41)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	京6 p.399
106	李 珥 (1536-1584)	贈領議正/ 正一品	1716 (享祚42)	月頭形碑身 ・碑臺	臺座 單獨葬		京3 p.637
107	金洪福 (1649-1698)	大司諫/ 正三品	1716 (享祚42)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5 p.629
108	金萬採 (1644-1715)	兵曹參判/ 從二品	1716 (享祚42)	月頭形碑身 ・基臺	臺座 附左		京7 p.631
109	李 堯 (1579-1627)	贈兵曹判書/ 正二品	1717 (享祚43)	月頭形碑身 ・碑臺			京3 p.811
110	閔 燾 (1607-1684)	海州牧使/ 正三品	1717 (享祚43)	平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7 p.637
111	金信忠 (1625-1704)	通訓大夫/ 正三品	1719 (享祚45)	月頭形碑身 ・碑臺	四位 合葬		京6 p.411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112	李夢尹 (15세기말-16세기)	司饗院正/ 正三品	1720 (숙종46)	月頭形碑身 ・碑臺	三位 合葬		京7 p.649
113	洪命一 (1603-1651)	贈領議正/ 正一品	1721 (경종1)	八作屋蓋石 ・基臺	三位 合葬		京2 p.723
114	趙 鎰 (1578-1647)	贈吏曹參判/ 從二品	1721 (경종1)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3 p.647
115	韓聖佑 (1633-1710)	吏曹參判/ 從二品	1722 (경종2)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2 p.731
116	鄭 相 (1618-1681)	관직없음	1726 (영조2)	月頭形碑身 ・碑臺	三位 合葬		京2 p.739
117	柳 禔 (1641-1693)		1726 (영조2)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京2 p.745
118	李夏輔 (1652-1716)	通訓大夫/ 正三品	1727 (영조3)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4 p.589
119	金若時 (1335-?)	高麗 直提學	1727 (영조3)	月頭形碑身 ・碑臺			京7 p.655
120	李慶流 (1564-1592)	贈都承旨/ 正三品	1728 (영조4)	八作屋蓋石 ・基臺	附右	墓碣銘并序	京6 p.415
121	金昌國 (1644-1717)	成川府使	1728 (영조4)	平屋蓋石 ・基臺	合葬		京7 p.661
122	柳白湄 (15세기)	通訓大夫/ 正三品	1729 (영조5)	八作屋蓋石 ・基臺		墓碣銘	京5 p.639
123	朴 胄 (1623-1690)	관직없음	1735 (영조11)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京5 p.645
124	金 演 (1655-1725)	禮曹判書/ 正二品	1735 (영조11)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7 p.667
125	李 沆 (1640-1686)	贈顯祿大夫/ 正一品	1738 (영조14)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表并銘	京3 p.673
126	尙宮 安東金氏 (1681-1739)		1740 (영조16)	月頭形碑身 ・碑臺	單獨葬		京6 p.405
127	趙 昱 (1498-1557)	贈吏曹參議/ 正三品	1745 (영조21)	八作屋蓋石 ・基臺		墓碣銘并序	京5 p.659
128	李至男 (1529-1577)	承訓良/ 正三品	1746 (영조22)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碣銘	京4 p.595
129	徐晉履 (1622-1661)	贈吏曹參判/ 從二品	1748 (영조24)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1 p.765
130	李 焜 (?-1724)	臨昌君 경종의 증손	1748 (영조24)	八作屋蓋石 ・基臺	臺座 附左		京3 p.661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131	李 茂 (1355-1409)	右議政/ 正一品	1749 (영조25)	月頭形碑身 ・碑臺		墓碑銘	京4 p.603
132	李 珙 (1588-1628)	仁城君/ 正一品	1751 (영조27)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2 p.757
133	趙 楷 (1639-1699)	贈吏曹參判/ 從二品	1752 (영조28)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墓碣銘并序	京3 p.681
134	吳鼎周 (1648-1720)	敦寧府都正/ 正三品	1752 (영조28)	螭首 ・方趺	三位 合葬	墓碣銘并序	京7 p.687
135	仁華李氏 (여말선초)	贈貞夫人/ 正二品	1754 (영조30)	月頭形碑身 ・碑臺	單獨葬		京5 p.671
136	金若魯 (1694-1753)	左議政/ 正一品	1755 (영조31)	螭龍屋蓋石 ・基臺	附左		京7 p.703
137	俞命建 (1664-1724)	贈吏曹判書/ 正二品	1758 (영조34)	螭龍尾蓋石 ・基臺	臺座 三位 合葬	墓碣銘并序	京5 p.675
138	吳 琬 (1703-1721)	관직없음	1759 (영조35)	月頭形碑身 ・碑臺	單獨葬		京4 p.609
139	方震燮 (1655-1729)	贈判中樞府事/ 從一品	1760 (영조36)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6 p.423
140	閔 埜 (?-1637)	贈戶曹參判/ 從二品	1763 (영조39)	抹角形碑身 ・碑臺		墓碣銘并序	京7 p.711
141	李禮堅 (1436-1510)	贈左贊成/ 從一品	1763 (영조39)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墓碣銘并序	京7 p.719
142	皇甫仁 (?-1453)	領議正/ 正一品	1765 (영조41)	八作屋蓋石 ・基臺	附後		京2 p.779
143	李鼎輔 (1693-1766)	判中樞府事/ 從一品	1766 (영조42)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京3 p.735
144	李顯應 (1683-1732)	中訓大夫/ 從二品	1767 (영조43)	八作屋蓋石 ・基臺		墓碣銘并序	서1 p.553
145	柳馨遠 (1622-1673)	贈執義/ 從三品	1768 (영조44)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京3 p.691
146	鄭亨復 (1686-1769)	輔國崇祿大夫/ 正一品	1769 (영조45)	平屋蓋石 ・基臺	三位 合葬		京6 p.429
147	韓德亮 (1630-1717)	贈吏曹參議/ 從三品	1769 (영조45)	月頭形碑身 ・碑臺	單獨葬		京6 p.435
148	洪 智 (14세기말-15세기)	宣務郎/ 從六品	1770 (영조46)	月頭形碑身 ・碑臺	附前		京2 p.785
149	尹 櫟 (1624-1682)	司圖署別僉/ 正八品	1772 (영조48)	月頭形碑身 ・碑臺	三位 合葬		京6 p.443
150	完山李氏 (?)	贈貞夫人/ 正二品	1773 (영조49)	八作屋蓋石 ・基臺	單獨葬		京7 p.729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151	權 遜 (1535-1592)	贈史曹參判/ 從二品	1774 (영조50)	八作屋蓋石 ・基臺		墓碣銘并序	京7 p.733
152	金尙星 (1703-1755)	崇祿大夫/ 從一品	1778 (정조2)	八作屋蓋石 ・基臺	附右	墓碣銘	京7 p.741
153	鄭 磻 (1506-1549)	浦川縣監	1779 (정조3)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2 p.791
154	金陽澤 (1712-1777)	領議正/ 正一品	1780 (정조4)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7 p.753
155	趙重晦 (1711-1782)	崇政大夫/ 從一品	1786 (정조10)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7 p.765
156	俞直基 (1694-1768)	贈領議正/ 正一品	1787 (정조11)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表陰記	京4 p.615
157	鄭亨復 (1686-1769)	輔國崇祿大夫/ 正一品	1789 (정조13)	사모屋蓋石 ・基臺	No.146 참조	墓碣	京6 p.449
158	金致仁 (1716-1790)	領議正/ 正一品	1790 (정조14)	八作屋蓋石 ・基臺	四位 合葬		京2 p.819
159	青松沈氏 (1731-1752)	贈貞敬夫人/ 正一品	1790 (정조14)	月頭形碑身 ・碑臺	單獨葬		京6 p.463
160	鄭昌俞 (1713-1758)	贈史曹參判/ 從二品	1790 (정조14)	八作屋蓋石 ・基臺	三位 合葬		京7 p.775
161	李吉輔 (1699-1771)	贈領議正/ 正一品	1791 (정조15)	八作屋蓋石 ・基臺	三位 合葬	墓碣銘并序	京7 p.785
162	鄭一祥 (1721-1792)	崇祿大夫/ 從一品	1792 (정조16)	平屋蓋石 ・基臺	二位 合葬		京6 p.467
163	金忠伯 (?)	贈戶曹參議/ 正三品	1793 (정조17)	八作屋蓋石 ・基臺		墓碣銘并序	京3 p.701
164	方泰興 (1705-1778)	崇祿大夫/ 從一品	1794 (정조18)	月頭形碑身 ・碑臺	三位 合葬	墓碣銘并序	京6 p.555
165	韓翼謨 (1703-1786)	領議正/ 正一品	1797 (정조21)	사모屋蓋石 ・基臺	附右		京5 p.695
166	李昌運 (1713-1791)	知中樞府事/ 正二品	1798 (정조22)	八作屋蓋石 ・基臺	臺座 附左	墓碣銘并序	京2 p.799
167	朴 閔 (1479-1504)	贈都承旨/ 正三品	1798 (정조22)	月頭形碑身 ・碑臺			京3 p.707
168	俞彦鎬 (1730-1796)	左議政/ 正一品	1798 (정조22)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3 p.715
169	俞彦鏞 (1714-1783)	吏曹參議/ 正三品	1798 (정조22)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4 p.623
170	李福源 (1719-1792)	左議政/ 正一品	1800 (정조24)	八作屋蓋石 ・基臺	三位 合葬		京5 p.685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171	李亮臣 (1689-1739)	大司諫/ 正三品	1802 (金丕2)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京6 p.475
172	金相翊 (1772-?)	贈領議政/ 正一品	1804 (金丕4)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7 p.795
173	李有謙 (1586-1663)	贈領議政/ 正一品	1805 (金丕5)	月頭形碑身 ・碑臺	附左		京7 p.807
174	金聖澤 (1691-1741)	贈吏曹參判/ 從二品	1807 (金丕7)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7 p.815
175	趙仁賓 (1532-1594)	贈司僕寺正/ 正三品	1808 (金丕8)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4 p.629
176	原州元氏 (1740-1783)	贈貞敬夫人/ 正一品	1810 (金丕10)	八作屋蓋石 ・基臺	單獨葬	墓碣銘并序	京7 p.823
177	韓 甸 (1609-1688)		1813 (金丕13)	冠石 ・碑臺	合葬		京7 p.835
178	金萬謹 (1667-1705)	贈弘文館應教/ 正四品	1817 (金丕17)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7 p.841
179	金鎮崙 (1695-1750)	贈吏曹參議/ 正三品	1817 (金丕17)	八作屋蓋石 ・基臺	三位 合葬		京7 p.857
180	金茂澤 (1715-1778)	吏曹參判/ 從二品	1818 (金丕18)	八作屋蓋石 ・基臺	附右		京7 p.865
181	金吉通 (1408-1473)	戶曹判書/ 正二品	1822 (金丕22)	八作屋蓋石 ・基臺		墓表	京2 p.813
182	李晚秀 (1752-1820)	崇祿大夫/ 從一品	1822 (金丕22)	八作屋蓋石 ・基臺	合葬	墓碣銘	京4 p.637
183	李天基 (1607-1670)	贈吏曹參判/ 從二品	1823 (金丕23)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5 p.703
184	鄭民始 (1745-1800)	行參贊/ 正二品	1826 (金丕26)	八作屋蓋石 ・基臺	附右		京3 p.723
185	吳達濟 (1609-1637)	贈領議政/ 正一品	1828 (金丕28)	八作屋蓋石 ・基臺	三位 合葬	帶囊藏 碑銘并序	京1 p.781
186	洪翼漢 (1586-1637)	贈領議政/ 正一品	1831 (金丕31)	八作屋蓋石 ・基臺		墓表	京1 p.791
187	趙亨生 (1546-1628)	贈司僕寺正/ 正三品	1832 (金丕32)	八作屋蓋石 ・基臺		墓碣銘并序	京4 p.659
188	鄭燦欽 (1740-1823)	同知中樞府事/ 從二品	1843 (金丕9)	冠石 ・碑臺	合葬	墓表陰記	京3 p.743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189	李 薰 (1447-1462)	正義君	1845 (현종11)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京6 p.483
190	劉 敞 (1352-1420)	贈領議政/ 正一品	1846 (현종12)	八作屋蓋石 ・基臺	臺座	合葬	墓碑文	서2 p.239
191	順興安氏 (1713-1762)	贈貞敬夫人/ 從一品	1849 (현종15)	八作屋蓋石 ・基臺		單獨葬		京6 p.489
192	鄭鴻慶 (1768-1852)	兵曹參判/ 從二品	1852 (철종3)	冠石 ・碑臺		合葬		京6 p.755
193	方禹疇 (1770-1815)	同知中樞府事/ 從二品	1855 (철종6)	月頭形碑身 ・碑臺		附右		京6 p.495
194	李 聚 (1572-1646)	贈領議政/ 正一品	1855 (철종6)	螭首 ・方趺		附左		京3 p.501
195	尹行直 (1760-1838)	嘉義大夫/ 從二品	1857 (철종8)	八作屋蓋石 ・基臺		四位 合葬		京7 p.881
196	吳斗奎 (1640-1690)	贈司僕寺正/ 正二品	1858 (철종9)	螭首 ・方趺		附左	墓表陰記	京4 p.669
197	金命淵 (1753-1830)	贈吏曹判書/ 正二品	1858 (철종9)	八作屋蓋石 ・基臺	臺座	附左		京6 p.507
198	任中善 (15세기)	贈吏曹判書/ 正二品	1860 (철종2)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京4 p.675
199	金世淵 (1745-1813)	贈吏曹判書/ 正二品	1862 (철종13)	八作屋蓋石 ・基臺		三位 合葬		京7 p.559
200	南秉哲 (1817-1863)	崇祿大夫/ 從一品	1864 (고종1)	八作屋蓋石 ・基臺				京1 p.797
201	金應根 (1793-1863)	上曹判書/ 正二品	1866 (고종3)	八作屋蓋石 ・基臺	臺座	附左		京3 p.765
202	金左根 (1797-1869)	領議政/ 正一品	1869 (고종6)	八作屋蓋石 ・基臺	臺座	附左		京3 p.775
203	金東獻 (1791-1869)	贈左贊成/ 從一品	1872 (고종9)	八作屋蓋石 ・基臺		附右		京6 p.513
204	沈宜普 (1782-1844)	贈吏曹判書/ 正二品	1874 (고종11)	八作屋蓋石 ・基臺		附右		京6 p.519
205	金炳冀 (1818-1875)	吏曹判書/ 正二品	1878 (고종15)	八作屋蓋石 ・基臺	臺座	三位 合葬		京2 p.827
206	安 塘 (1460-1521)	左議政/ 正一品	1882 (고종19)	八作屋蓋石 ・基臺		單獨葬		京4 p.681
207	安洪亮 (1590-1616)	贈都承旨/ 正三品	1883 (고종20)	八作屋蓋石 ・基臺		附左	墓碣銘并序	京1 p.804
208	咸念祖 (1398-1450)	贈左贊成/ 從一品	1888 (고종25)	月頭形碑身 ・碑臺		合葬	墓表	京3 p.783

No	姓 名 (生年~卒年)	官職/品階	建立年代	樣 式	合葬	墓碑名	出處
209	韓章錫 (1832-1894)	吏曹判書/ 正二品	1896 (고종33)	月頭形碑身 ・ 碑臺	附左		京4 p.691
210	鄭聘壽 (1550-1604)	贈兵曹判書/ 正二品	1899 (광무3)	八作屋蓋石 ・ 基臺		墓表	京5 p.709
211	沈龜齡 (1349-1413)		1905 (광무9)	八作屋蓋石 ・ 基臺	單獨葬		京4 p.699

※ 1. 〈表1〉墓碑의 官職/品階 항은 現職 및 贈職 가운데 높은 品階의 官職을 정리한 것이며 증직의 경우 “贈”으로 관직 앞에 표시하였다. 또한 行守法에 의한 것도 높은 것을 좇아 行의 경우 品階를, 守의 경우 官職을 표시하였다.

2. 出處 항은 예를 들어 “京5 p.71”은 『京畿金石大觀』第5集 p.71을 뜻하며, “서1 p.257”은 『서울金石文大觀』第1輯 p.257을 뜻한다.

〈表2〉墓碑文에 나타난 左右 分類

No	姓名	墓碑建立年代	附葬關係	碑陽에 나타난 記錄			
				夫人의 表現	夫人의 位置	書順	行數
1	朴 昕	1484	附右	~之墓	右方	左→右	2
2	沈 貞	1601	附左	~附左	左方	〃	3
3	任重臣	1617	〃	~之墓	〃	右→左	2
4	沈友俊	1625	附右	〃	〃	〃	2
5	李時稷	1653	附左	~附左	右方	左→右	4
6	李德潤	1657	附右	~附右	〃	〃	5
7	洪命元	1661	附左	~附	左方	右→左	5
8	李泊之	1661	〃	~附左	〃	〃	2
9	鄭道亨	1666	〃	〃	〃	〃	2
10	李基高	1668	〃	〃	右方	左→右	4
11	申景禎	1675	〃	〃	〃	〃	3
12	李 拱	1681	〃	〃	左方	右→左	2
13	申 位	1688	〃	〃	右方	左→右	3
14	吳肅羽	1690	〃	〃	左方	〃	3
15	金一振	1691	〃	〃	右方	〃	2
16	金千齡	1695	〃	〃	左方	右→左	3

No	姓名	墓碑建立年代	祔葬關係	碑陽에 나타난 記錄			
				夫人의 表現	夫人의 位置	書順	行數
17	李敏章	1699	"	"	右方	左→右	3
18	洪處亮	1700	"	"	左方	"	4
19	李 塾	1701	"	"	右方	"	3
20	吳斗興	1704	"	"	左方	"	4
21	沈 誦	1705	"	"	右方	"	3
22	金益勳	1707	"	"	"	"	3
23	李敬興	1708	"	~祔	左方	"	3
24	金壽增	1710	"	~祔	"	"	3
25	趙聖期	1714	"	~祔左	右方	"	3
26	金洪福	1716	"	"	左方	右→左	3
27	金萬琛	1716	"	"	右方	左→右	3
28	趙 鎰	1721	"	~祔	"	"	3
29	韓聖佑	1722	"	~祔左	"	"	3
30	李夏輔	1727	"	"	左方	"	3
31	金 演	1735	祔左	~祔左	左方	左→右	3
32	徐晉履	1748	"	"	右方	"	3
33	李 垚	"	"	"	"	"	4
34	金若魯	1755	"	"	"	"	3
35	方震夔	1760	"	"	"	"	3
36	鄭 璣	1770	"	"	"	"	3
37	金陽澤	1780	"	"	"	"	3
38	趙重晦	1786	"	"	"	"	3
39	俞直基	1787	"	"	"	"	3
40	韓翼謨	1797	祔右	~祔右	"	"	4
41	李昌逵	1798	祔左	~祔左	"	"	4
42	俞彥鎬	"	"	"	"	"	3
43	俞彥鏞	"	"	"	"	"	3
44	金相翊	1804	"	"	"	"	5
45	李有謙	1805	"	"	"	"	3
46	金聖澤	1807	"	"	"	"	3
47	金萬謹	1817	"	"	"	"	4
48	金茂擇	1818	祔右	~祔右	"	"	4

No	姓名	墓碑建立年代	附葬關係	碑陽에 나타난 記錄			
				夫人의 表現	夫人의 位置	書順	行數
49	李天基	1823	附左	~附左	"	"	4
50	鄭民始	1826	附右	~附右	"	"	3
51	方禹疇	1855	"	"	"	"	3
52	李 榮	"	附左	~附左	"	"	5
53	吳斗奎	1858	"	"	左方	"	4
54	金命淵	"	"	"	右方	"	2
55	任中善	1860	"	"	"	"	3
56	金左根	1869	"	"	"	"	3
57	金東獻	1872	附右	~附右	"	"	2
58	沈宜普	1874	"	"	"	"	3
59	韓章錫	1896	附左	~附左	"	"	2

日迎 出土 高靈 申氏 遺物 小考

高 富 子

日迎 出土 高靈 申氏 遺物 小考

고 부 재(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장)

1. 머 리 말

본 유물은 1998년 4월 13일부터 경기도 일영(楊州郡 長興面 三上岷) 소재 高靈 申氏 墓域 整地 작업 중에 출토된 것이며, 조선 前期 남녀 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墓域에는 高靈 申氏 10世孫 安峽公(諱 公涉, 縣監) 이하 4대의 묘가 있다.

유물의 주인공은 3인으로 參奉公 彦湜(1519~1582년, 이하 “참봉공”이라 한다)과 그의 며느리 贈 淑夫人 陽川 許氏(1566~1626년 이하 “허씨”라 한다), 郡守公 汝灌(1530년대 초~1580년대, 이하 “군수공”이라 한다)이다.

참봉공은 靖陵(朝鮮朝 11代 世宗의 무덤)참봉에 除授되었으나 현직에 임하지는 않았으며 64세에 卒하였다. 유물은 棺안에 補空되었던 것들로 책 『周易參同契』 2권과 團領 등 10점이다.

군수공은 慶源判官과 賣城郡守를 역임하였으며 55세에 卒하였다. 유물은 보공물과 壽衣이며, 綿으로 만든 團領외에 廣多繪 등 37점이다.

陽川 許氏は 61세에 卒하였으며 유물은 보공물과 壽衣 중의 일부로 장옷 외에 28점이다.

2. 墓主의 人的사항

이들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본 자료는 高靈 申氏 大宗約會 부회장 申連浩(16세손 : 前 高靈 申氏 안협공과 회장)씨가 제공한 것이다.

1) 參奉公

字는 持正으로 1519年(中宗 14年 己卯)에 出生하여 1582年(宣祖 15年 壬午) 11月 28日에 卒하시니 壽가 64歲이시다.

高靈 申氏 12世이며 朝鮮初期의 名臣 申叔舟公(호 범옹 泛翁)의 季弟인 申末舟公의 玄孫이다. 申末舟公은 端宗朝에 文科에 及第하여 任官하던 中에 端宗이 遜位되자 벼슬을 버리고 淳昌으로 落鄕했으나 仲兄인 申叔舟公의 勸誘를 뿌리칠 수 없어 마지 못해 다시 벼슬길에 올라 大司諫, 全州府尹 등을 歷任했으나 仲兄과는 달리 벼슬에 뜻이 없어 申叔舟公의 逝去후 淳昌에 隱居하여 詩書를 즐겼다.

申末舟公의 셋째 孫子(彦湜公의 祖父)인 公涉은 일찍이 安峽縣監을 지낸바 있으나 역시 壯年에 벼슬을 그만두고 隱居하였고 나이 41歲에 卒하시자 陽州郡 長興面 三上里 113의1에 設墓하였으며 이하 4代에 걸쳐 그 子孫이 이곳에 設墓했다. 父親인 申淑公은 일찍이 彰信校尉 忠佐衛副司果의 職責에 있었으나 벼슬을 싫어해서 判書로 在職中이던 伯父인 伊溪 申公濟公(公涉公의 長兄)의 勸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벼슬을 등진 분이시다.

彦湜公은 28歲인 1546年(明宗 1年 丙午)에 司馬試에 及第하여 進士가 되었으나 벼슬사리는 桎梏(자유를 몹시 속박함)이라 하여 한가로이 집에서 自守하기를 바랐고 처음부터 벼슬은 멀리하고 손님接待을 즐겼다. 讀書을 좋아하고 性格이 淳朴, 重厚하였다고 傳한다. 한편 公은 孝心이 至極하여 1574年에 위에서 嘉賞하다하여 靖陵參奉을 除授하였으나 實際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移葬 과정 중에 墓에서 “周易參同契”라는 冊 두 卷이 나왔다. 이 책은 周易을 풀이한

것으로 王室에서 公의 翼 代에 下賜한 것을 公이 保管하다가 副葬品으로 삼은 것 같다.
뒤에 通訓大夫 司憲府 執義벼슬이 追贈되었다.

2) 郡守公

字는 灌夫이고 申末舟公의 玄孫이며 申公涉公의 第3子 申灝公의 둘째 아들로서 위의 申彦湜公의 從弟이다. 1530年代 初에 出生하여 1580年代 末에 卒했다. 壽는 55歲이다(正確한 生卒年은 未詳).

武科에 及第하여 慶源判官과 寶城郡守를 歷任했다.

3) 陽川 許氏

위의 申彦湜公의 系子 申滄公(字 治卿)의 配位이다. (申彦湜公은 无后하여 從弟 申宗淮公의 第2子 滄公으로 뒤를 잇게 하였다) 1566年(明宗 21年 丙寅 4月 初6日)生이며 1626年(仁祖 4年 丙寅 6月 24日)卒이니 壽가 61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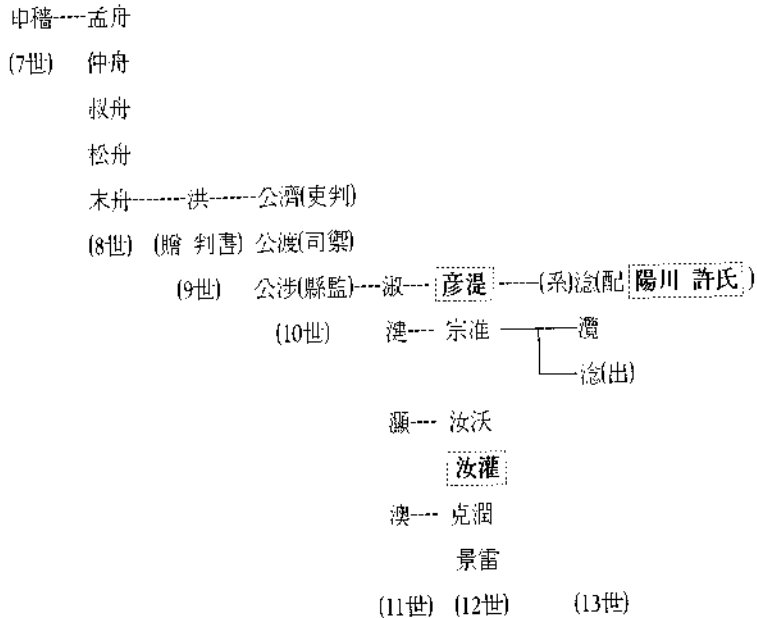
夫君도 同甲인 1566年生이며 일찍이 文章과 글씨에 뛰어났으므로 門中을 비롯하여 周圍의 囑望을 받았으나 1592년에 壬辰倭亂을 만나 이후 7年間을 老母를 모시고 避難하는데 歲月을 다 보내고 1598년에 戰亂이 가라앉자 科擧공부에 熱中하였으나 뜻을 이루어 보기도 前에 1601年(宣祖 34年 辛丑 4월)에 36歲를 一期로 卒하자 夫人이 老媳母를 至誠으로 섬겼다. 뒤에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兼 經筵參贊官이 追贈되었다.

親庭의 父는 司果벼슬을 한 許績公이며 祖父는 校尉, 曾祖父는 別坐를 歷任했고 右議政을 지낸 忠貞公 許琮이 夫人의 5代祖이다.

夫人은 性品이 溫柔하고 家法을 굳게 지켰으며 夫君이 卒한 뒤에도 15年間을 시어머니 모시는데 差錯이 없었으며 반드시 未明에 衣服을 端正히 하고 媳母의 잠자리를 살폈으므로 老母가 늙음에 際하여 더욱 便安해 했었다고 家乘에 傳한다.

一男一女를 두었는데 아들은 司馬試에 合格하여 軍威縣監, 龍仁縣令, 工曹正郎 등을 歷任했으며 딸은 牧使의 아들이며 正郎벼슬을 한 尹益元에게 시집갔다. 또한 孫子 넷을 두었는데 그 中에는 文科及第하고 禮曹參判을 歷任한 竹堂 申濡公과 역시 文科에 及第하고 校理를 지낸 初菴 申湜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詩·書·畫에 능하여 當時 昆弟雙璧(兄弟가 모두 보배라는 뜻)이라 일컫혔었다.

(관련자 가계도)



3. 유물 출토 상황과 인수 경위

본 유물은 檀國大學校附設 傳統服飾研究所에서 보수 처리한 것이다. 안협공파 宗中の 협조로 출토 현장에서 3차에 걸쳐 수습하였다. 정리된 자료 중에서 책을 제외한 衣類 전부를 교육자료와 영구보존의 필요성에 의해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개관 18주년 기념행사를 기해서 본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1998년 4월22일 高靈 申氏 安峽公派의 門中 申春植(15세 孫) 회장으로부터 출토된 유물 처리에 대한 문의를 전화로 받았다. 문의를 주안점은 출토된 책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유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일 회장님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墓域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묘역은 경기도 양주군 일영의 “송추유원지” 부근이며 나지막한 山 비탈에 자리잡고 있었다. 앞쪽이 넓게 트여서 전망이 좋고 편안하면서 아늑한 분위기였다.

수습과 引受된 경위 및 유물은 대강 다음과 같다.

1) 참봉공 유물

(1) 인수경위

제1차 유물 인수는 참봉공의 것으로 1998년 4월 22일 출토 현장에서 있었다.

公의 묘는 移葬하기 전에는 묘역의 제일 위에 자리잡고, 아래로 부모의 묘가 있었다. 이는 “월장”으로 자식과 부모의 위치가 바뀐 셈이다. 본 유물은 참봉공을 부모의 아래로 옮기는 중에 수습된 것으로 관속에 넣었던 補空物이며 이는 수의가 아니라 평소에 입었던 것이다. 移葬作業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공의 시신은 수분만 빠지고 수염과 피부는 잠든 사람처럼 그냥 보존된 상태였다. 관은 內棺과 外槨을 갖춘 二重棺이었으며 아랫부분이 조금 숙여지고 물에 잠겨 있었다. 유물 가운데서 머리 쪽에 있는 것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다. 겹을 비단으로 싸서 만든 책과, 부인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 특히 책이 나옴으로 해서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책과 함께 성한 의복 몇 가지를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시 묻어버렸다”고 전한다. 유물은 묘역 한쪽에 비닐에 덮어 보관하고 있었다. 냄새가 매우 심하였다.

(2) 유 물

유물은 團領 1점과 함께 袍類 6점, 저고리, 地褥, 席, 책 등 10점이다. 편지는 수습정리 과정에서 분실되었다.

각 유물은 다음과 같다.

1. 團領 … 綿(무명), 홀, 白色
2. 衾帖裏 … 솜, 명주, 성근누비, 褐色
3. 衾첩리 … 솜, 명주, 갈색
4. 衾첩리 … 모시, 백색
5. 腋注褲 … 면(무명), 솜, 잔누비, 백색
6. 直領 … 면(무명), 홀, 백색
7. 솜저고리 … 솜·명주, 성근누비, 紺色, 겨울용
8. 地褥 … 명주, 겹, 상색
9. 席(돛자리) … 莞草, 명주, 상색
10. 책 … 『周易參同契』 2卷(上·中 및 下), 褐色, 紋緞

2) 군수공 유물

(1) 인수경위

군수공의 유물은 세 번째 인수되었다.

5월 7일 종중에서 “유물이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다. 내외 합장으로 男左·女右이며 회곽과 이중관 형태였다. 관의 下部를 뜯어내고 시신을 밖으로 옮겼다. 시신은 골격이 장대한 편이었다. 관 내부는 습한 편이었고 유물은 많이 손상되어 있었으나 냄새는 심한 편은 아니었다.

보공은 모두 의류로 대부분 시신을 감쌌다. 殮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시신에 감싸여진 의복 중에서 특히 시신의 등판 쪽은 모두 엉켜 붙어 있어 수거하기가 힘들었다. 날이 저물고 일기가 좋지 않으므로 일단 시신만 옮기고 의류는 연구소로 옮긴 후 재분리 작업을 하였다.

(2) 유 물

團領을 비롯한 袍류 20점과 저고리 3점, 開襟袴 3점, 帽類 2점, 廣多會1점, 殮襲具로 天衾, 地攤, 握手, 帳目, 席 등 37점이다

1. 단령 ...三八紬(폭 42cm), 홀, 綠·紺色
2. 帖裏 ... 명주, 겹, 갈색, 소매분리, 옷고름바대-雲紋緞
3. 첩리 ... 명주, 겹, 성근누비, 통소매, 옷고름바대-貢緞(5枚3비)
4. 첩리 ... 명주, 겹, 누비, 상색, 소매분리
5. 첩리 ... 명주, 겹, 갈색, 소매분리
6. 첩리 ... 명주, 겹, 상·청색, 소매분리, 옷고름바대-공단
7. 첩리 ... 명주, 겹, 갈색, 소매분리
8. 첩리 ... 명주, 겹, 상색, 소매분리
9. 첩리 ... 명주, 겹, 갈색, 소매분리
10. 첩리 ... 명주, 겹, 소매분리, 옷고름바대-공단
11. 첩리 ... 명주, 겹, 갈·상색, 통소매
12. 액주읍 ... 명주, 겹, 상색
13. 답호 ... 명주, 홀, 갈색, 고리고름
14. 답호 ... 명주, 겹, 녹색
15. 답호 ... 명주, 겹, 녹색
16. 솜장옷 ... 솜, 명주, 藍色(쪽빛)

17. 솜장옷 ... 솜, 명주, 갈색
18. 直領 ... 명주, 겹, 갈색
19. 직령 ... 겹, 명주, 안만 남음. 거죽은 經絲만 남고 緯絲는 없음
20. 직령 ... 겹, 명주, 안만 남음. 거죽은 경사만 남고 위사는 없음
21. 솜저고리 ... 솜, 명주, 상색
22. 겹저고리 ... 겹, 명주, 소매의 안쪽 수구 부분은 경사만 남음
23. 上衣(方領) ... 겹-七寶花紋緞(5枚 2비), 안-명주
24. 開襠袴 ... 명주, 겹, 누비, 상색
25. 개당고 ... 무명, 겹, 상색
26. 개당고 ... 명주, 겹, 상색
27. 帽(六合) ... 거죽-공단-남색, 안-명주-상색
28. 帽(四方帽) ... 명주, 겹-남색, 안-상색
29. 天衾 ...三八紬(폭60cm, 1cm에 45올), 홀
30. 地氍 ... 명주, 겹, 갈색
31. 솜이불 ... 솜, 紋緞(雲紋), 명주
32. 광다회 ... 명주실, 상색, 총길이 224cm, 술 9.5cm, 너비 2.5cm
술의 上部 매듭 안에 白雲母가 들어 있어 반짝인다.
33. 악수 ... 명주, 겹-남색, 안-상색
34. 幘目 ... 명주, 겹-남색, 안-상색
35. 巾? ... 홀, 명주, 갈색
36. 席(돛자리) ... 莞草, 韓紙
37. 소매 ... 명주, 겹-갈색, 안-상색, 풀솜 10매를 넣음
38. 기타자료 ... 파손된 조각 조금

3) 陽川 許氏 유물

(1) 인수경위

참봉공의 며느리 허씨의 유물은 두 번째에 인수받았다.

男左·女右로 남편과 合葬되었는데, 묘역의 제일 아래쪽 우측으로 들어진 곳에 있었다. 남편은 1566년 생으로 同甲이었으나 36세에 졸하였다.

4월 23일 허씨와 남편의 묘를 破墓하였다. 미리 봉분을 견어내고 灰槨만 노출된 상태였다. 남편의 회곽은 허씨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었으며 부르도저로 쉽게 부수었다. 棺은

二重木棺이었으나 많이 부식되었으며, 유골만 남아있었다.

허씨의 회곽은 매우 단단하고 두꺼웠다. 이럴 때 이장 작업에서는 시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곽 일부만 부수는데 주로 발 쪽으로 한다. 이 경우도 발 쪽을 겨우 부수었는데 관 안에 시신과 의류가 남아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날이 어두워서 다음으로 미루었다.

(2) 유 물

25일 屍身과 유물의 수습을 위해서 회곽의 상판쪽을 전부 깎아 후 外槨의 紅蓋를 들어내었더니 柩衣와 폐백 銘旌이 있었다. 구의는 唐草花紋紗로 약간의 홍색을 띠었으며 內棺 주변을 덮어 싸고 있었다. 폐백은 花紋紗로 2점이며 棺의 上部에 놓여있었다. 명정은 관 위에 있었으나 글씨가 확인되지 않는다. 내관과 외곽 사이의 전후와 좌우에 罌 4개가 있었다. 다음으로 내관의 뚜껑을 열고 일단 시신의 위를 덮고 있는 보공물을 꺼내었다. 관의 내부는 습하고 유물은 질퍽하게 물을 머금고, 색은 대부분이 흑갈색으로 변하고 상하였으나 냄새는 심하지 않은 편이었다. 제일 표면에 天衾이 덮혀 있었고, 殯은 二重으로 하였다. 유물은 衣類로 머리와 중간과 발 부분으로 나누어 있었다. 관 내부의 유물을 대충 수습한 후 시신을 밖으로 모셔내고 보공된 의류와 시신이 입은 壽衣중에서 일부를 수습하였다. 시신은 수분이 빠진 미이라 상태였으며, 시신의 등 쪽에 붙은 의류는 屍衾과 함께 엉켜있기 때문에 수습하기에 곤란하여 수거를 생략하였다. 수의 중에는 장옷(허리띠를 同心結형으로 매고 있음)과 직령형의 袍만 수습하였다. 수습하지 않은 수의는 上衣와 치마, 속옷, 기타 염습구이다. 上衣로는 고급비단으로 만든 옆이 트이고 긴 저고리 하나만 입고 있었다.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下衣는 속에 홀로 된 속곳과 무명으로 누빈 단속곳. 겹에는 雲紋紗 홀치마 안에 종아리 위치에 二重으로 단을 접은 청색을 띤 명주 치마를 입었다. 머리에는 幘目, 손에 악수, 발에는 무명버선과 공단으로 만든 습신을 신었다.

수습된 유물은 장옷을 비롯한 袍類 7점, 적삼을 포함한 저고리류 7점, 襟子, 단속곳, 바지, 六衾帽 외에 銘旌 柩衣 天衾 地褥 이불 殯布 염베 달비 罌 등 모두 28점이 된다.

특히 무늬가 특이한 것이 많다. 3인의 출토물 중에서 무늬가 있는 것은 총 14점이 되는 데 그중 12점이 허씨의 유물이다.

명정에는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1. 장옷 ... 명주, 누비, 겹·남색, 안·상색
2. 장옷 ... 명주, 겹, 갈·상색, 성근 징금
3. 장옷 ... 명주, 겹, 거죽만 남음

4. 장옷 ... 紋緞(花 果樹 鳥), 명주, 허리띠...紋緞(무늬 16가지)
5. 장옷 ... 명주, 겹, 갈색, 굵은 누비
6. 중치막 ... 명주, 겹, 상색
7. 포(직령포형) ... 紋紵(如意格子紋), 홀, 녹색
8. 삼회장저고리 ... 겹(삼회장)-칠보운문단, 명주, 겹, 상색
9. 삼회장저고리 ... 紋紵(四方連續牡丹格子紋), 단, 명주, 솜, 남색, 갈색
10. 겹저고리 ... 면(무명), 겹, 백색, 상침
11. 겹저고리 ... 명주, 겹, 상색
12. 적삼 ... 모시, 홀, 백색
13. 적삼 ... 삼베, 모시(끝동), 홀, 백색
14. 적삼 ... 명주, 겹, 상색
15. 배자 ... 紋緞(小雲紋), 명주, 겹, 상색
16. 단속곳 ... 면(무명), 홀, 백색
17. 바지 ... 명주, 겹, 상색
18. 帽(六合) ... 면(무명), 솜, 갈-남색, 안-백색
19. 袷衣 ... 紋紵(국화 연화 목단 당초문), 홀, 상색(붉은 빛)
20. 天衾 ... 紋緞(七寶果樹紋), 홀, 홍갈색
21. 銘旌 ... 三八紵(폭60cm), 홀, 상색
22. 숨이불 ... 紋緞(花 果樹 鳥 16가지), 명주, 솜
23. 玄纁(幣帛) ... 紋紵(大花牡丹唐草), 홀, 홍색을 띤
24. 현훈(폐백) ... 紋紵(小花연속문), 홀, 상색
24. 殯布 ... 紋紵(連續菱花紋), 홀, 상갈색
26. 염베 ... 삼베, 백색
27. 달비 ... 5꼭지
28. 罌 ... 나무, 명주, 4개(한들)
29. 기타자료 ... 파손된 조각

4. 유물 처리

위와 같이 유물은 3차에 걸쳐 연구소로 옮겨왔다. 미처 정리가 되기도 전에 계속 수습

이 되어 정리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다. 일단 한 件씩 분리 정리하였다.

출토된 유물 정리는 처음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고 끝이 난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인내, 노력과 함께 경험을 토대로 한다.

출토유물 가운데서도 특히 屍身에 입혔던 壽衣는 屍汁에 의한 얼룩이 많다. 한편 보공품이라 해도 시신의 위에 있거나 잘 정리되었을 경우는 비교적 깨끗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역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한다. 본 유물들은 대부분 수의이거나 시신을 싸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오물과 파손이 심한 편이었다.

유물의 정리 과정은 수거 → 분류 → 습식세탁 → 건조 → 형태정리 → 보수 → 마무리 단계로 마쳤다.

정리 작업은 인수된 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물처리 중에 물세탁 과정은 6월8일로 완료되었다. 그후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유물의 材質은 크게 紬와 綿·靱皮섬유 계통으로 나뉘는데 주로 緞과 紗類 및 무명 삼베 모시로 되어 있다. 보수에 쓰인 섬유는 손상이 심한 부분은 유물과 비슷한 재질로 하였다. 따라서 보수에 쓴 섬유는 무늬가 없는 얇은 紗 종류인 노방과, 면이나 인피섬유에는 부드럽고 얇은 면으로 하였다.

습식세탁은 軟固體의 中性洗劑를 더운물에 완전히 녹여 풀고 유물을 물에 약 한시간 정도 담갔다가 빨았다. 화학약품처리하는 하지 않았다. 약품처리하는 아직까지 처리 후 유물 손상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적 방법의 소독은 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소독 방법은 “害蟲防除”에 대한 것으로 燻蒸소독법 중에서도 “包裝훈증법” 정도이다. 이는 木材나 紙類 등에는 효과가 있으나 묘의 출토물에서는 보다 더 시급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즉 屍汁과 악취 및 병원박테리아의 존재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일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늙거나 병들기 때문이다. 만약에 나쁜 병에 걸려 죽은 자의 유물 중에서 만에 하나 유물을 정리하고 보수하던 사람이 병원균에 의한 싼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으니 다행이다.

수많은 인력과 경비를 줄여야하는 현실 여건 속에서 무한한 노력만이 강요되었을 뿐이다.

5. 유물의 종류 및 특징

본 유물은 보수 정리한 결과 형태를 알 수 것만 총 75점이며, 약간의 파편들이 있다.

嚢과 달비 외에 전부 衣類이다.

용도상 크게 服飾(衣)類, 殮葬具類, 副葬品類로 나눌 수 있다.

1) 衣(服飾)류

출토되는 복식류에는 屍身에 입히는 壽衣와, 평소에 입던 것을 넣은 補空品으로 대별된다.

의류에는 袍 저고리 바지, 염습구류에는 쓰개 幘目 악수 席[돛자리] 天衾 地褥 이불 殮布 염베 구의, 부장품류는 嚢 銘旌이 있다.

직물은 명주 무명 베 모시 紋紬 紋緞 솜 交織이 있다. 이 중에서는 명주가 가장 많다. 이 직물들 중에서 무명이나 베는 주로 속옷으로 쓰였다. 이제까지 출토된 다른 유물들의 예 달리 안은 남아 있으나 거죽 부분이 없어 것이 보인다. 이것들은 안이 명주로 된 袍 2점과 허씨의 저고리 소매에서 발견되었다. 이 것들은 조직으로 보아 명주로 된 날줄(經絲)은 남아 있는데 씨줄(緯絲)이 없다.

바느질은 일반적으로 흙질과 박음질로 하였으며, 홀 겹 솜을 넣거나 솜을 넣어 누빈 것이 있다.

(1) 저고리류

총 11점이 있다. 홀적삼 겹저고리 솜저고리로 분류된다. 형태로는 조선전기 다른 유물들에서 나타나는 옆트임형은 보이지 않는다. 옆트임형은 허씨가 입은 수의가 있었다. 깃 모양은 모두 木板형이다. 특이한 사실로 중기부터 나타나는 초기 당코깃형이 한점있다. 삼회장 솜저고리로 회장부분은 갈색명주로 되어있고 길은 綠緞色의 紋緞(牧丹格子紋型)이다. 織金緞은 없다.

특수한 형으로 군수의 보공품에 맞여밈에 方領(前長後短 半袖형) 형태의 上衣이 있다. 겉은 小花紋緞이며 안은 명주로 모두 緋色이다. 앞은 맞여밈이며 매듭단추로 매게 되어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 나라 옷과 다른 느낌을 준다.

(2) 배 자

1점이며 허씨의 유물이다. 보공품이며 파손이 매우 심하고 오물이 많다. 緋色이며 겉은 小雲紋이며 안은 명주이다. 소매는 없으며 깃은 맞깃이다. 겨드랑이 아래 8cm 정도 앞길과 뒷길을 연결시킨 바느질자국이 있다. 앞·뒤 길이가 같고 몸에 맞을 정도의 치수이다.

(3) 바 지 류

유물 가운데서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이 바지류이다. 단속곳과 開襟袴가 있다. 특히 군수

공의 유물 중에는 단속곳과 형태가 좀 다른 것이 2점 있다. 이 옷들은 가장 속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엉켜 있었으므로 수습과 보수 과정이 어려웠다. 사복이 달린 남성용 바지형은 한점도 없다. 이제까지의 예를 보면 下衣 속옷류에는 (단)속곳처럼 부리가 넓은 것과 부리쪽이 좁은 바지형이 섞여 있었다.

① 단속곳

허씨에게서 나온 것 1점이 있다. 무명 4폭에 가랑이 밑이 막히고 밑부분에 띠를 달았다.

② 開襠袴(밀트임형)

3점이 있는데 모두 군수의 수의이다. 가랑이 밑이 트여있으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밑에 작은 삼각형 띠를 단 것과, 여성용 속바지처럼 밑을 허리까지 길게 댄 것, 한쪽은 띠를 달고 한쪽은 밑바대를 허리까지 단 것으로 나뉜다. 밑바대를 단 것은 속살이 보이지 않게 덮도록 된 것으로 이는 여성용 단속곳과 바지를 절충한 형태라 볼 수 있다.

(4) 袍 類

본 유물 가운데서 33점으로 가장 많다. 종류와 수량은 團領 2점, 액주음 2점, 直領 4점, 접리 13점, 답호 3점, 장옷 7점, 중치막 1점이다.

조선 초기의 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 중요한 부분은 것이다. 주로 상류층의 고급 유물 중에는 것의 너비가 넓고(12cm 정도) “이중형” 것을 한 것이 일반적인데 본 유물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한 건도 없다.

① 團 領

2점이 있다. 참봉공 것은 옷감이 綿(무명)이며, 옆선에서 직선으로 뻗은 二重무가 있는데 접힌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군수공 것은 재료가 三八紬이며 수의로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 廣多脣을 매고 있었다. 색은 綠色을 띠고 있으며 소매통(배래선)이 手口 쪽으로 넓어지는 두리소매이다.

② 액주음

2점으로 참봉공과 군수공 것이다. 재료는 번과 명주로 하였다. 참봉 것은 무명 겹으로 된 것이며 속에 솜을 얇게 넣고 누볐다. 옷고름은 겹고름을 길게하여 허리를 한바퀴 돌려 맬 수 있게 하였다.

③ 直 領

4점이 있다. 참봉공 것은 1점으로 綿에 홀로 하였으며 매우 정교하다. 3점은 군수공 것이다. 2점은 紬色이며 겉은 경사만 남고 위사는 없다. 안은 명주이다. 옆에 무는 二重이다.

④ 장 옷

7점이 있다. 2점은 군수공 것이며 모두 솜옷이다. 5점은 허씨의 것으로 겹과 누비로 되어있다. 특히 다른 출토물에 비해 많은 편인데 이는 여성들의 전형적인 表衣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재료는 모두 명주인데 허씨가 수위로 입은 것은 겹은 花鳥紋緞에 안은 명주로 하였다. 허리에 띠를 띠고 앞으로 同心結매듭법으로 묶었다. 허리띠는 16가지 花鳥果樹무늬가 있는 문단이다.

⑤ 帖 裏

13점이 있다. 남성용으로 본 유물 가운데 가장 많다. 여성의 장옷에 비견되는 자료이다. 3점은 참봉공의 것이고 나머지는 군수공 것이다. 재료는 1점을 제외하고 모두 명주이며 홑 것 1점, 솜 2점 외에 모두 겹이다. 색은 주로 상색이며 갈색과 녹색 청색이 있다. 소매는 통소매는 2점이며, 나머지는 모두 분리형이다. 형태는 조선 전기 전형적인 형으로 上下의 길이 비례가 1:1이며 허리에 매우 잘고 고운 주름을 잡았다. 옷고름은 하나를 단것과 두 개가 있는가 하면 고리를 걸어 달게된 것도 있고, 두 개 중에서 아래쪽을 길게하여 허리를 한바퀴 돌려 묶게된 것도 있다. 고름을 다는 곳에는 고름바대가 있는데 貢緞이나 紋緞으로 하였다. 공단 부분은 대부분 金箔을 하였다. 이 금박부분은 출토 직후에는 있었으나 수거정리과정에서 모두 없어졌다.

⑥ 裕 褌

3점으로 군수공 유물이다. 명주로 홑과 겹이 있다. 이 중에서 하나는 고름을 고리로 연결시킨 것이다.

⑦ 중치막

1점이 있는데 허씨의 보공품이다. 중치막은 조선시대 中期부터 나오는 袍의 일종으로 表衣로 입기도 하고, 겹옷의 안에 받쳐 입는 받침옷으로 이용되었다. 중치막은 명주 겹으로 된 것으로 형태가 매우 양호하며 길이가 길다. 따라서 이것은 그의 아들 것일 수가 있다.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縣監·縣令·正郎 등을 역임하였고, 딸도 벼슬한 가문으로 출가하였다.

⑧ 포(직령포형?)

허씨가 겹에 입고 있던 수의이다. 겹에 입었던 것으로 옷감은 매우 곱고 얇은 紋紗이며, 무늬는 如意格子紋이 연속되어있다. 홀이며 綠褐色을 띠고 있다. 파손이 심하고 바느질이 매우 거칠며 옆 두가 하나접힌 형이다. 깃은 단령처럼 좁다. 일반 포보다 다른 형으로 명칭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2) 염습구류

幘目, 握手, 天衾, 地褥, 席, 염포, 이불, 염배, 柩衣가 있다.

(1) 먹목과 악수

모두 군수공의 것으로 각 1점씩 있다.

먹목은 正方形에 네 귀에 가늘고 긴 끈을 달았다. 병주이며 거죽은 남색 안은 상색이다.

악수는 한 쌍으로 도투마리 형이다.

(2) 天 衾

군수공와 허씨에게서 나왔다. 군수공 것은 홀이며 옷감은 매우 고운 三八紬이다. 허씨 것은 七寶果樹紋이 있는 紋緞으로 홍색을 띤다.

(3) 地 褥

참봉공과 군수공 것으로 각기 명주 겹으로 하였다.

(4) 席(돛자리)

2점 있다. 莞草에 가장자리는 명주나 韓紙로 둘렀다. 棺의 가장 아래 칠성판 위에 깔았던 것이다. 크기는 큰 것이 길이 166cm, 너비는 上쪽이 36cm 下쪽은 30cm이다.

(5) 殯 布

허씨에게서 나왔다. 시신의 가장 길에 염했던 것으로 連續菱紋이 있는 紋紬이며 홀 3폭이다.

(6) 이 불

군수공과 허씨 유물 2점이 있다. 모두 殯에 사용하였다. 솜을 얇게 넣고 무늬가 있는 비단에 동정과 깃 길을 갖추었다. 군수공 것은 운문단으로 깃은 홍빛이 들고 운문이 크며 길은 운문이 깃에 비해 조금 작다. 군수공 유물가운데서는 유일한 비단이다. 허씨 유물도 매우 좋은 것으로 깃에는 꽃과 새가 있는 紋緞이며, 길은 16가지 무늬로 花鳥果樹 등 다양하며 정감이 가는 자료이다.

(7) 柩 衣

허씨의 外槨을 덮었던 것이다. 唐草花紋의 얇고 고운 紗로 색상은 紺·褐과 紅빛이 도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8) 염 배

허씨의 것으로 두 번 殯을 하였으나 양이 적다.

3) 副葬品類

(1) 嬰

허씨의 것으로 한들 4개가 있다. 재료는 나무이며 네모꼴이다. 표면에는 명주를 바른 흔적이 남아있다.

(2) 명 정

허씨의 것이다. 고운 삼팔주 한 폭으로 만들었는데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3) 玄纁(幣帛)

허씨의 內棺 표면 上部에 놓여 있었다. 매우 얇고 고운 紋紗로 하나는 大花唐草紋이며, 다른 하나는 小花연속문이다. 이제까지 출토된 유물중에서 上品에 속한다.

4) 옷감 및 색상

(1) 옷 감

민길자 교수(문화재위원, 국민대학교 교수)와 심연옥박사의 고증에 의한 것이다.

본 유물의 직물은 명주, 緞, 縐(무명), 紗, 모시, 삼팔주, 삼배가 있다.

이 중에서 명주가 가장 많으며, 고운 것으로 三八紬가 몇 점 있다. 삼팔주는 주로 남자 옷 중에서 袍類나, 염습구류에 쓰였다. 平織바닥에 능무늬가 있는 紋紬가 2점 있다.

緞類(주로 貢緞)에는 5枚에 2~3비(땀)가 많다. 공단은 첩리의 옷고름 바대에 많이 쓰였다.

대부분의 솜옷에는 안감 쪽으로 얇게 풀솜(누에고치를 편 것)을 대었다.

허씨 유물에서 緞과 紗종류에는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자의 유물에서는 緞이나 무늬가 있는 것은 매우 드물다.

(2) 색 상

유물의 색상은 주변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특히 오랜 시간 습한 땅속 棺속에서 人體라는 유기체와 함께 있다가 노출되면 본래의 색상을 유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래의 색상을 알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다만 심히 변한 것은 용도상 가까운 색을 추정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명정이나 이불깃 치마 여성용 옷 등에서 붉은 빛이 도는 것이 발견되는 데, 이는 통상적으로 쓰는 색상이므로 홍색계통으로 추정한다.

출토 의류 중에는 대부분이 緋色(도토리색), 藍色(쪽빛), 褐色, 綠色, 白色, 홍색이다. 그 중에서도 상색이 가장 많은데, 이런 색은 대부분 명주에 많다. 백색은 먼이나 삼배 모시이다. 갈색은 袍류에 많으며, 부분적으로 옷고름에 많이 이용되었다.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은 쪽빛이다. 남색은 모자나 포류에 많이 쓰이며 불에 났때

色이 많이 빠진다.

(3) 무늬

14점에 무늬가 있다. 3점을 제외하고 모두 허씨의 유물이다. 허씨는 61세까지 살고 또 자녀가 官職에 있었기 때문에 좀더 치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늬가 있는 경우는 이제까지 출토된 유물의 예를 보면 관직이 높은 사람의 유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본 경우도 입증된다. 남성 관직자의 옷에 가장 많이 보이는 雲紋이나 큼직한 무늬는 드물다. 본 유물에서는 운문이 있는 것은 군수공의 이불 뿐이었다.

허씨의 유물에 나타난 무늬는 緞과 紗·紬에 보이는데 여성스러운 아기자기한 맛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물에 나타난 무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허씨 유물

1. 紋紬：四方連續 마름모……殯布
2. 紋紬：길과 소매에 사방연속 목단格子……숨삼회장저고리, 花鳥紋緞……襦
3. 紋緞：七寶大雲……겹삼회장저고리의 깃·수구·결막이·襠
4. 紋緞：小雲……배자
5. 紋緞：花鳥果樹……장옷
길……화문단(매화 장미 석류 목단 새[鳥])
허리띠……4壇4種(16가지, 七寶果樹紋：산호 향로 방승 물고기 포도 佛手 감 석류 등)
6. 紋緞：七寶果樹紋……天衾
장옷의 허리띠와 솜이불의 길과 같은 무늬
7. 紋緞：花鳥果樹……솜이불
길……장옷·천금과 같음
깃……花鳥紋緞
8. 紋紗：花唐草紋……樞衣
9. 紋紗：大花唐草……玄纁(幣帛)
10. 紋紗：小花연속문……玄纁(幣帛)
11. 紋紗：사방연속 如意格子……袍(直領布형)

② 군수유물

紋緞：雲紋……솜이불(大·中)

길...裳紋(中)

(3) 참봉유물

1. 紋綴 : 칠보화문...上衣(맞여밈, 方領, 半袖, 前長後短)
2. 紋綴(花雲飛紋?)...서적 : 周易參同契

6. 맺 음

이상 조선 前期에 살았던 男 2인 女 1인의 출토유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은 계급은 높지는 않지만 兩班계층에 속한다. 조선시대는 계층이 뚜렷이 구별되는 계급사회였다. 지금까지 출토되었던 유물과 기타 자료들을 비교하면 많은 연구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특히 복식연구는 실물을 통한 접근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옷의 재료나 무늬 형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자료를 크게 服飾(衣), 殮葬, 副葬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 복식은 기본적으로 쓰는 것, 입는 것, 신는 것으로 나뉜다. 본 유물에는 모자와 袍 저고리 바지가 있다.

재료는 명주 무명 삼베 모시와 紋紗 紋緞 紋紬가 나왔다. 이외에 솜을 이용한 솜옷과 침구류도 있다. 특히 交織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직물이 3점 있는데 經絲는 없어지고 緯絲만 남아 있다. 이런 자료는 필자가 본 박물관에서 발표(韓國服飾 15호, 1997년 참조)하였던 濟州 高氏 출토 유물에서 밝힌 바 있지만, 경사부분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그 이유가 규명되고 있지 않다.

옷의 제작상황은 홑옷 겹옷 솜옷 누비옷으로 나뉘고, 바느질법은 흠질과 박음질 팔아감 침 삼침땀뜨기 등이 보인다.

옷의 형태에서 조선 前期 외에 中期에 보이는 옷이 2점 섞여있다. 중치막과 초기 당코깃 형태의 저고리이다. 그런데 하면 袍의 깃에서 조선전기 특징인 “二重 깃” 형태는 한 점도 없다. 이 “이중 깃”이라는 명칭은 깃 너비 중간을 二等分으로 나누어 이은 형태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명칭이나 형태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밝혀내야 할 과제이다. 깃을 이 처럼 이등분으로 나누어 이은 것은 깃의 너비가 넓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나타난 것인지?, 몇?, 계급적인 이유?, 아니면 단순한 유행일까?... 등의 변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용 下衣 綴衣類 중에는 제작상 특수형이 있으며, 여성들이 사용하였던 것과 같

다는 점도 특기 할 만한 일이다.

色은 오랫동안 시신과 땅속에 있었으므로 쪽(藍)색 외에는 누런 緋色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퇴색되어 정확한 색감은 알 수 없다.

특히 다양한 무늬가 많다. 이 분야 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유물을 기증하고 연구비를 지원하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高靈 申氏 安峽公派 宗中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후손을 위해 귀한 자료들을 남겨주신 故人 세분의 靈前에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기증하여 주신 유물은 영구히 보존되어 좋은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家門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유물이 정리되기까지 많은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직물 감별에는 민길자 교수님(문화재위원, 국민대학교교수)과 심연옥박사(본 연구소 연구원 및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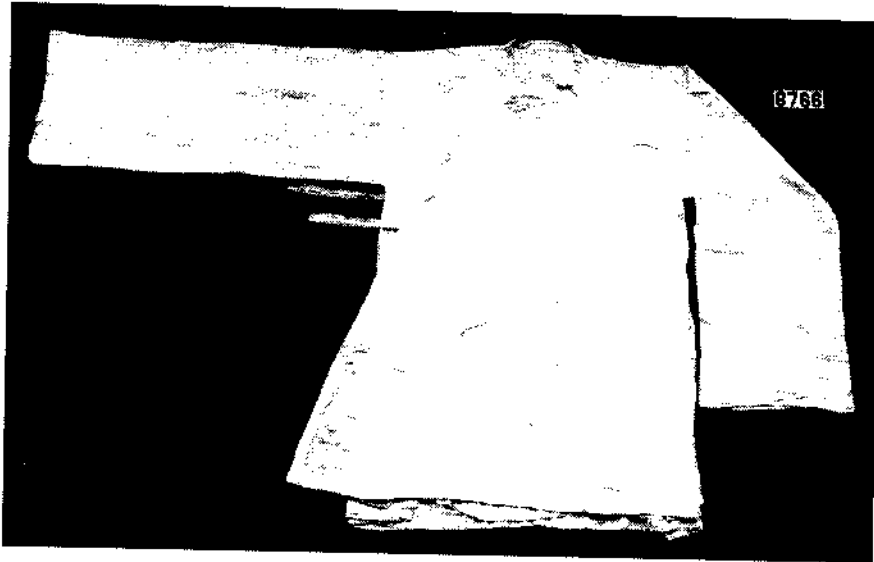
수거 및 정리와 보수작업에는 본 연구소의 연구원 황희옥과, 전통문화강좌(1998년 9월 단국대학교부속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의 특설강좌로 시작하여 현재 본 대학교 평생교육 원으로 이관됨) 제1회 수강중인 박경자 안인실 김영숙 정미경 외에 여러분이 수고하였음을 밝힙니다.

본 유물정리 작업에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물 도해 및 해설

1. 참봉유물

(1) 圖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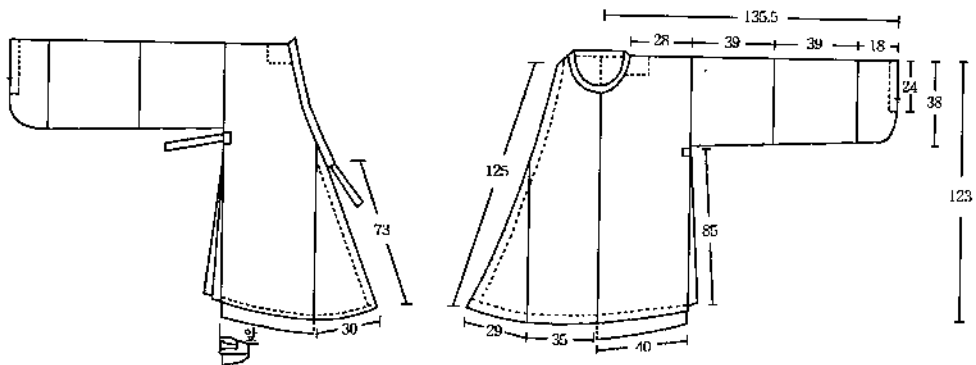
綿 : 얇고 부드러움

홀

百色

무 : 쌍주름, 안으로 겹침

앞과 뒷길이 차이 : 7cm



(2) 帖袂



明紬

겉 : 갈색 안 : 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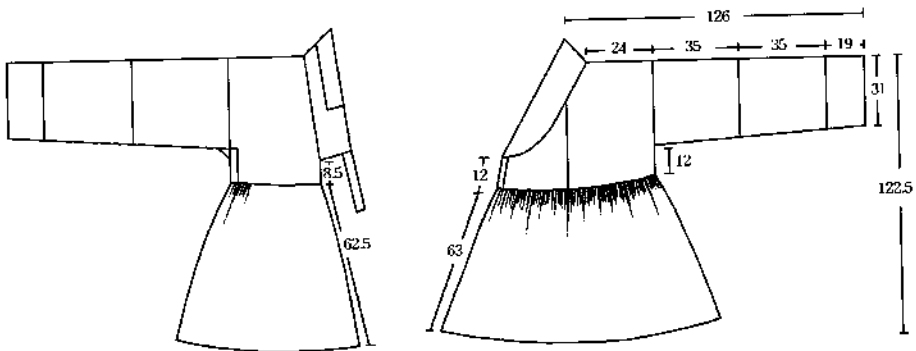
성글게 누빔 : 두줄 누빔(간격 0.5cm)

치마 13폭(1폭 40cm)

옷고름 바대 : 小花紋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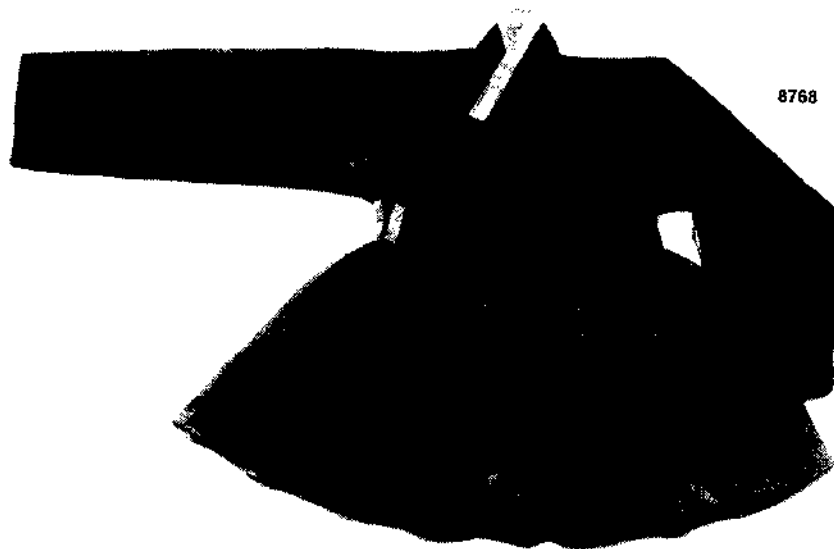
주름 : 맞주름, 너비 0.7~0.8cm

통소매



48768 94347

(3) 솜帖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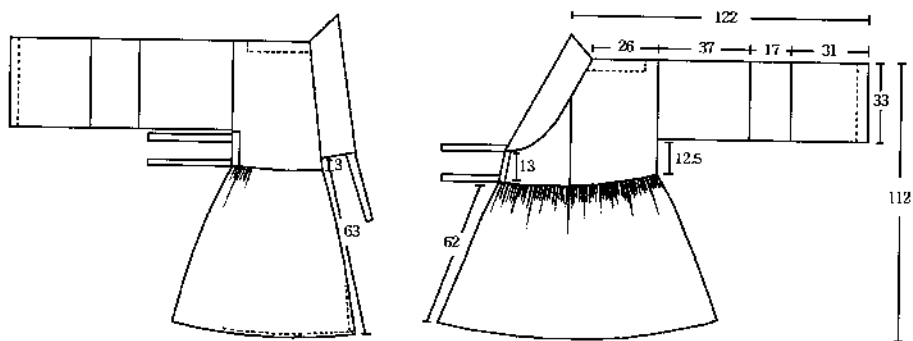
明細

겉 : 갈색 안 : 상색

솜두께 : 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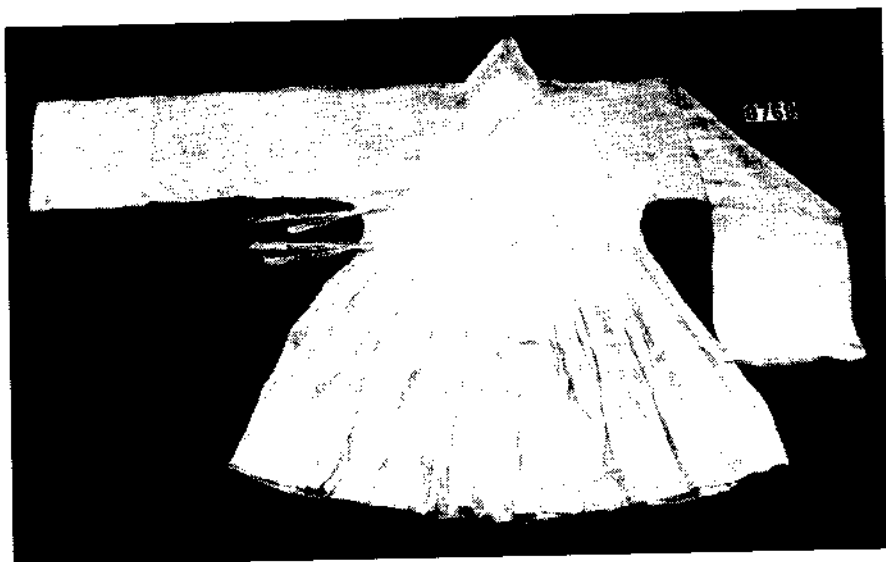
옷고름 바대 : 唐草花紋緞 緋色

통소매



< 8769 도식화 >

(4) 帖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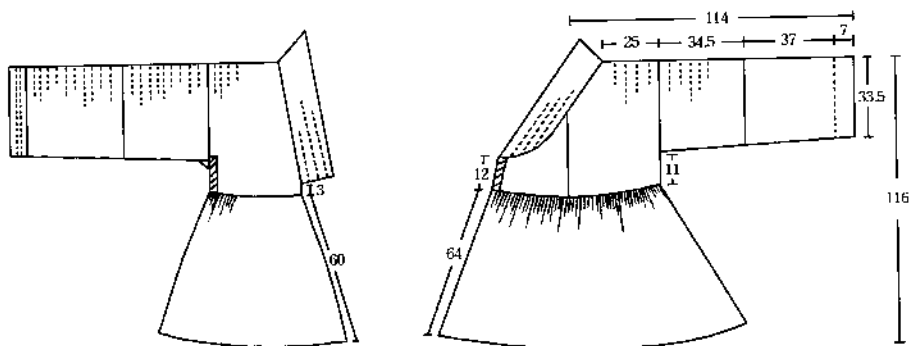
모시

百色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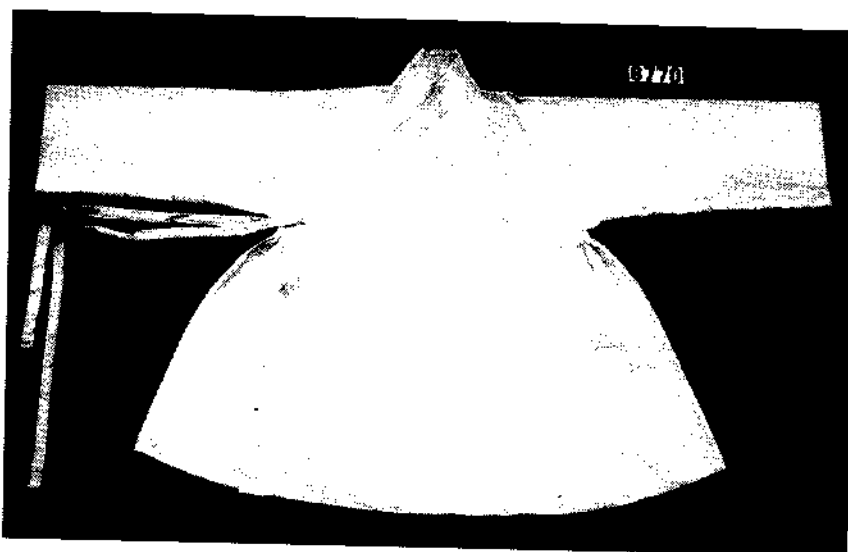
고름 : 쌍고름

통소매



< 2767 2424 >

(5) 액주음



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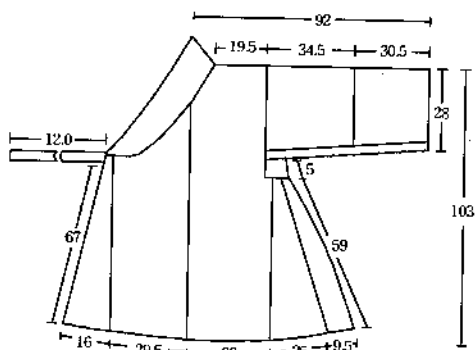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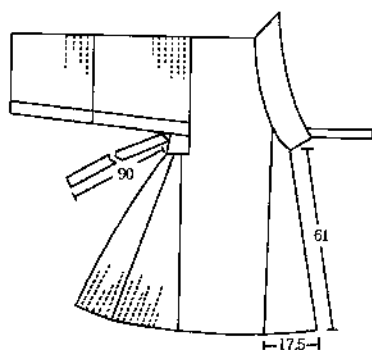
솜

누비 : 간격 0.2~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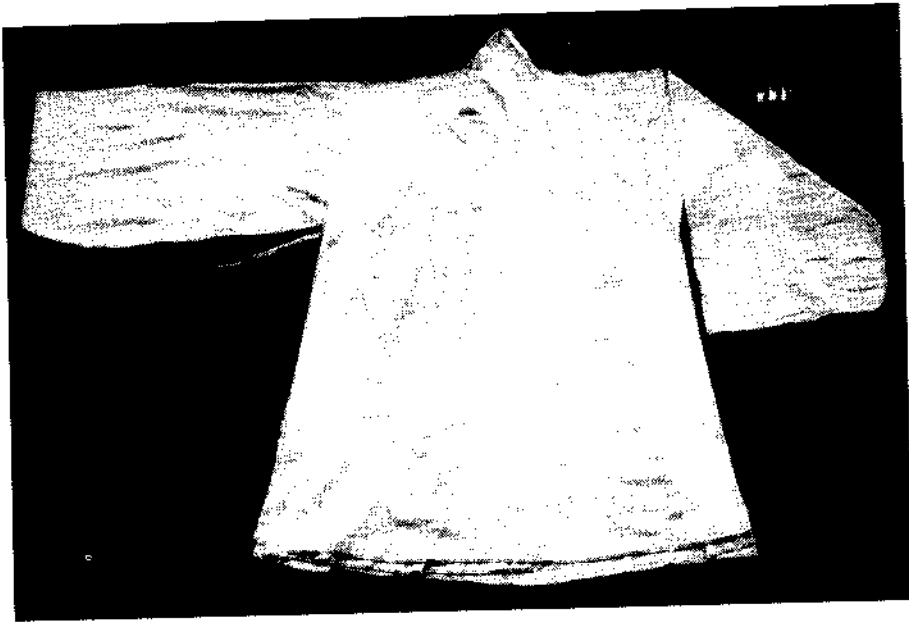
양쪽 고름 모두 길다 : 90/3cm

130/3cm

겨드랑이 밑주름 : 맞주름(주름너비 1cm)



(6) 直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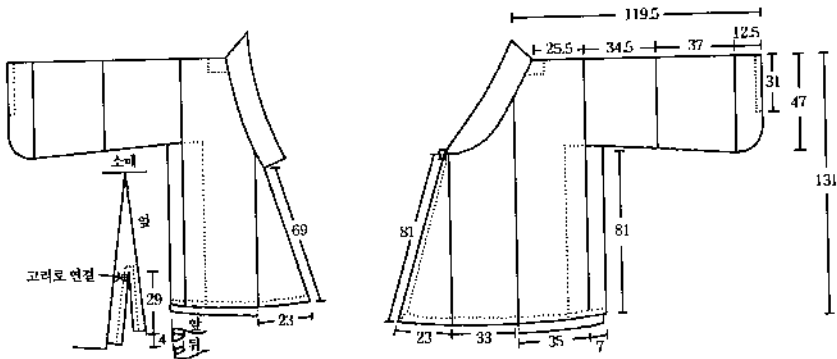
무늬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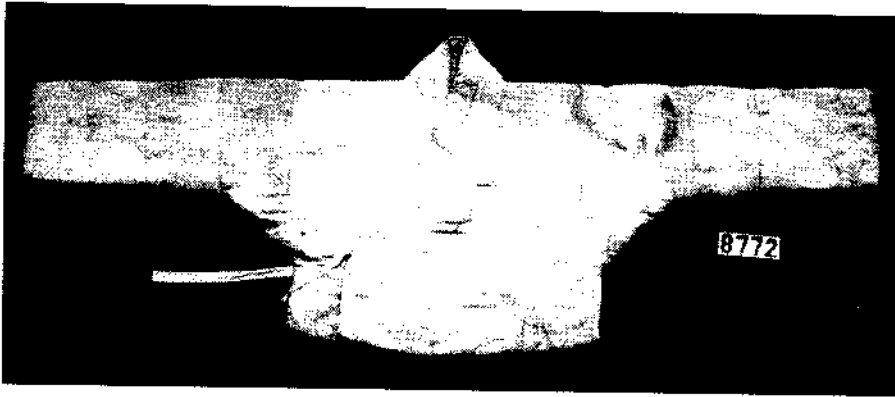
무 : 외주름. 안으로 접어 넣음

옆선 중심 아래로 29/33cm 트이고, 사이에 가는 고리를 전과후에 연결시킴

길이 : 前後차이 4cm



(7) 숨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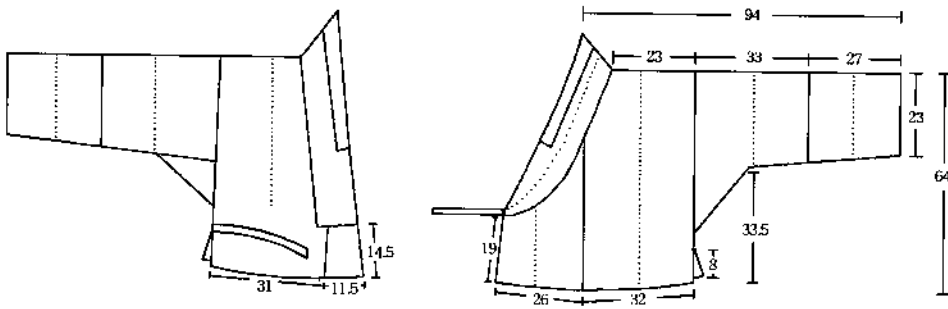
명주

紺色

두꺼운 솜 : 0.7cm

동정너비 : 3.5cm

겨드랑이 밑의 襠 : 좌우 접힘이 다름. 좌측 뒤로, 우측 앞으로 접힘



(8) 地 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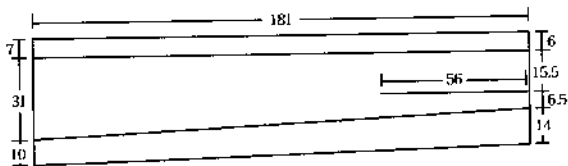
明紬

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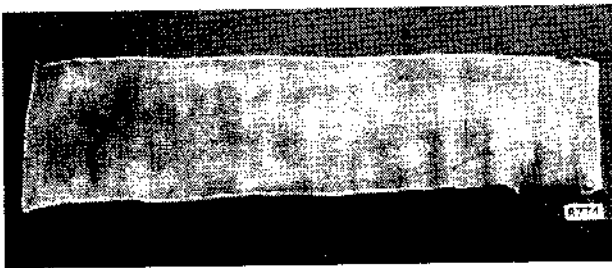
紺色

上 : 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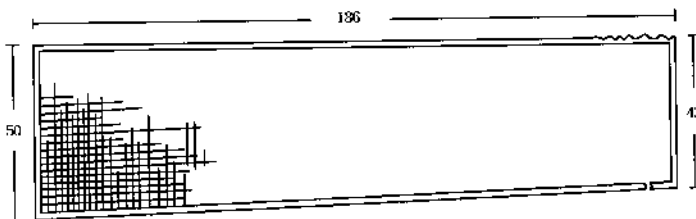
下 : 4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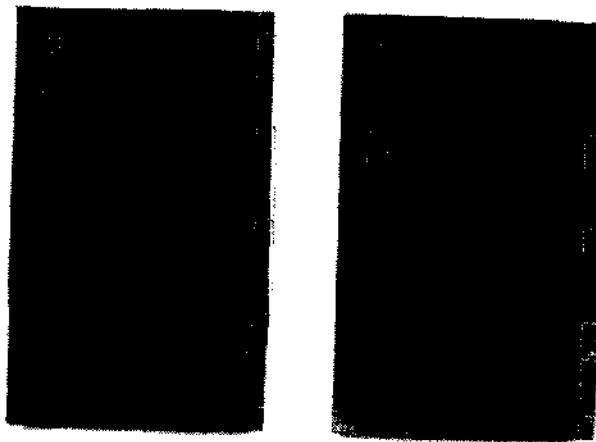
(9) 席(돗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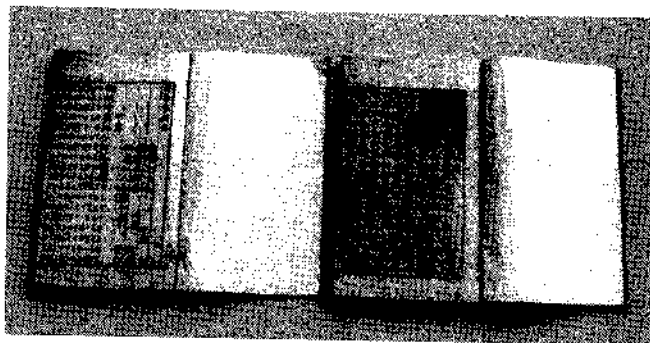
明紬莞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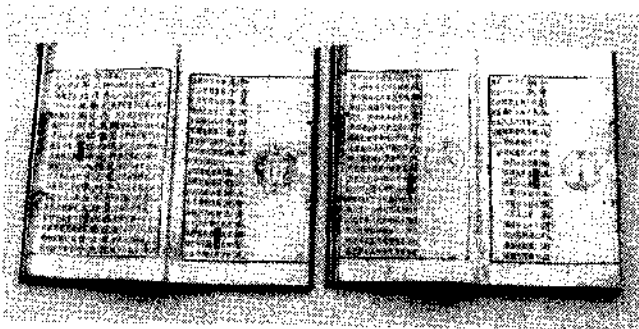
(10) 冊 : 『周易參同契』 - 2책 上·中, 下권. 표지 : 갈색 紋緞



『周易參同契』 - 上·中권 첫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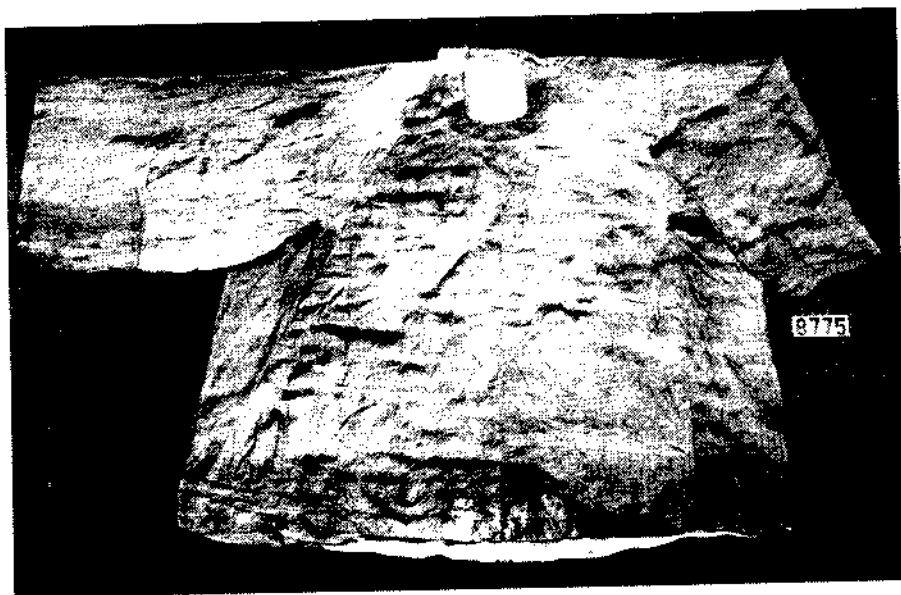


『周易參同契』 - 내부



2. 군수유물

(11) 團領



三八紬

무 : 외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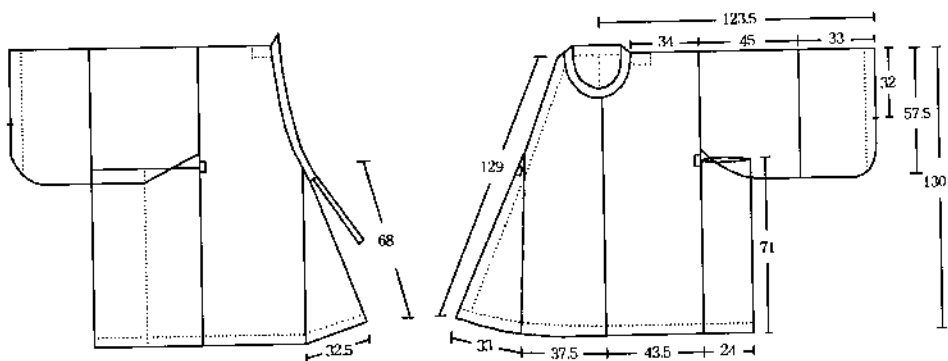
두리소매형

고름 : 고리고름형고리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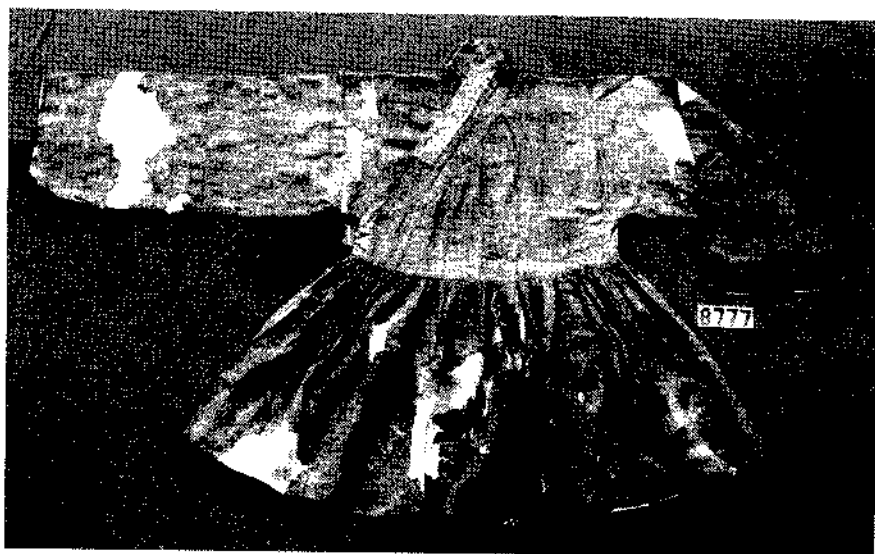
綠紺色

길이 : 前後차이 8cm(前 130cm, 後 122cm)

壽衣 : 廣多繪 허리에 맴(사진 25번)



(12) 帖裏



明紬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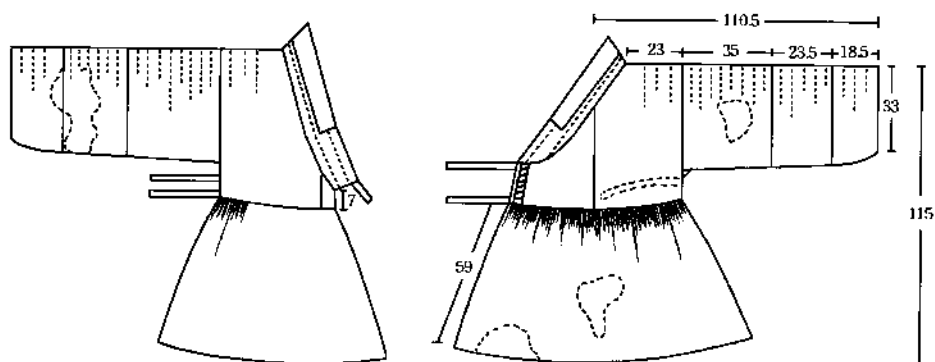
통소매

성근누비 : 4cm

綠・紺色

옷고름 : 쌍. 옷고름 바대 : 공단, 상색

치마폭 : 13(1/25.5cm)



(13) 누비 帖裏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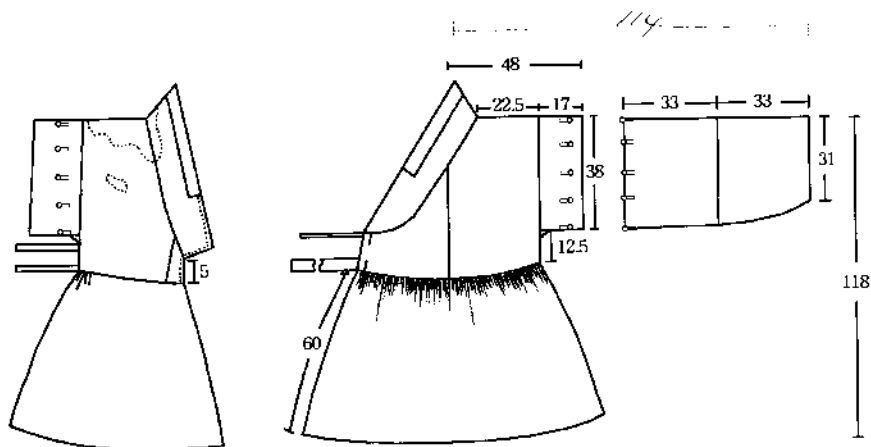
紺色

소매분리

누비 간격 : 0.4~0.5cm

옷고름 : 上 28/2cm 下 145/5cm

치마폭 : 14(1/33cm)



(14) 帖裏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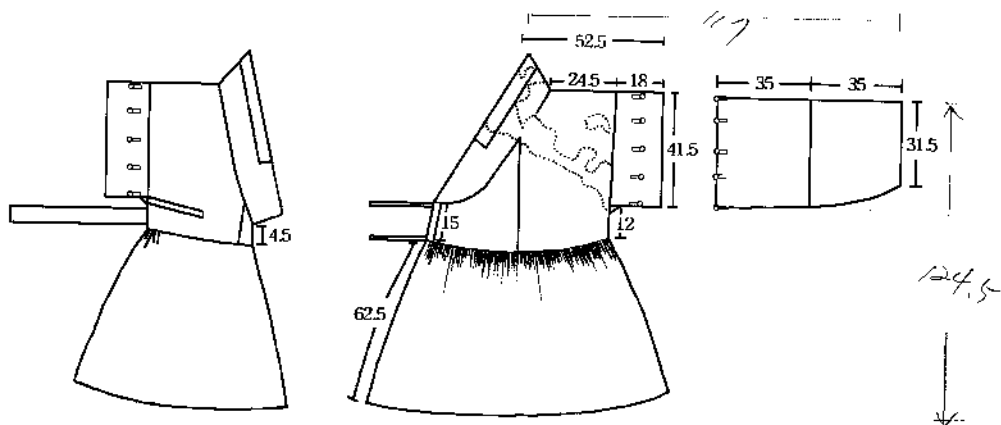
겉 : 綠・紵色 안 : 상색

고름 : 쌍, 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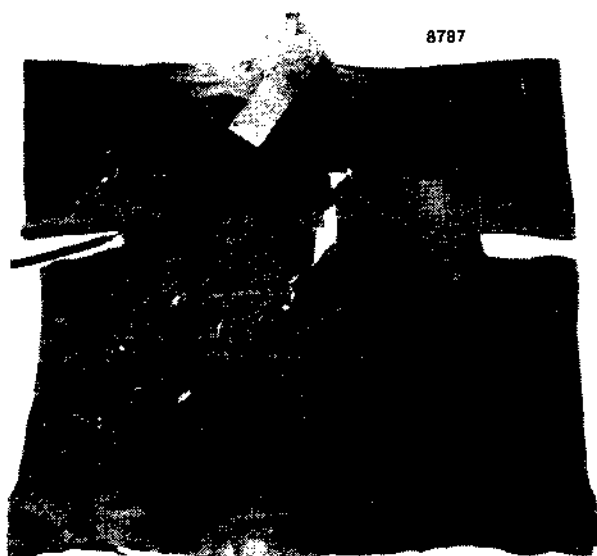
소매분리

고름바대 : 공단, 상색

치마폭 : 14폭(508cm)



(15) 襟襖



明紬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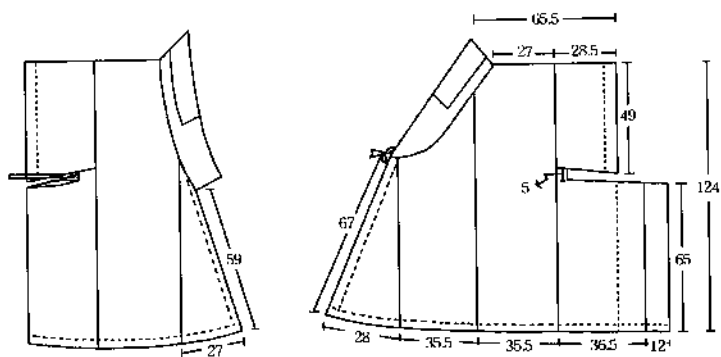
갈색

동정 : 너비 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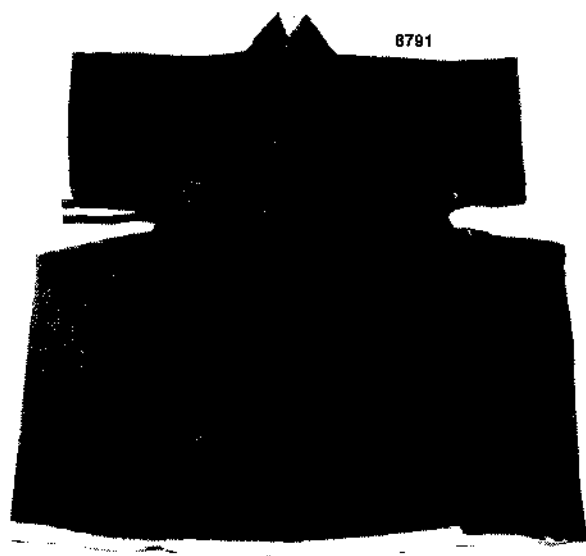
고리고름

부 : 외주름, 직선으로 접힘

길이 앞뒤차 : 3cm(前短後長)



(16) 裕褸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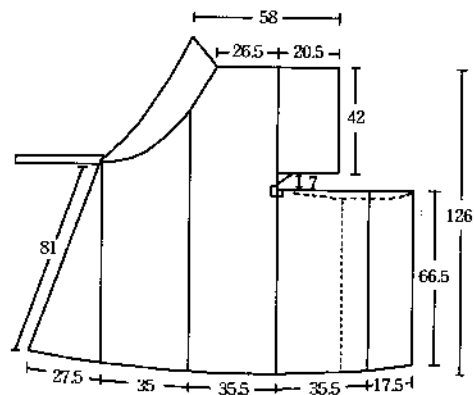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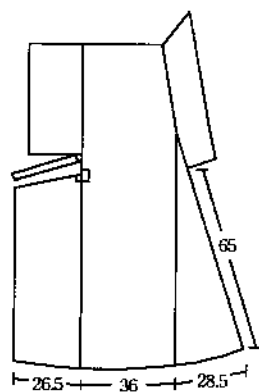
접

겉 : 갈색 안 : 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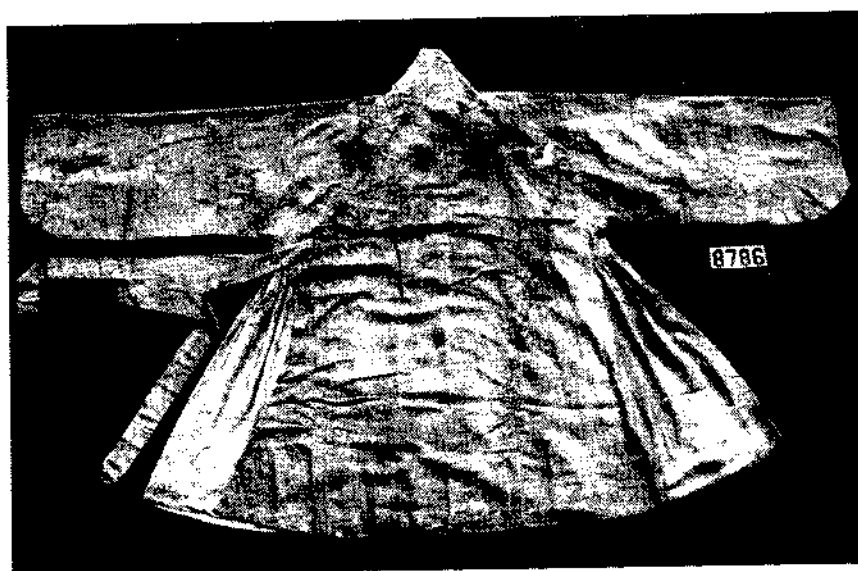
무 : 외주름

길이 앞뒤차 : 前短後長

壽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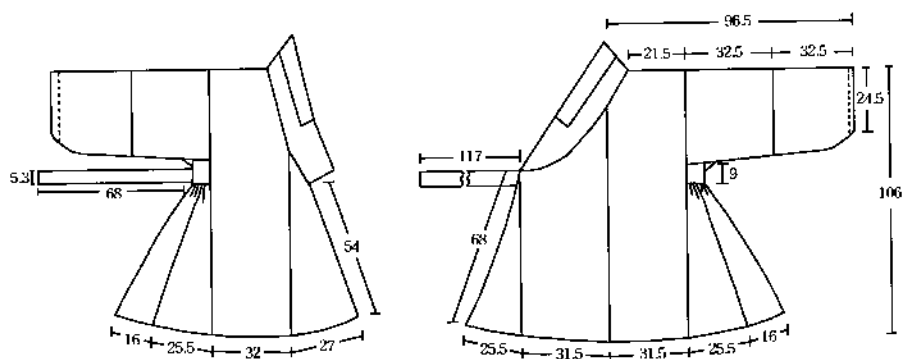
(17) 腋注音



明紬

紺

紬色



(18) 솜장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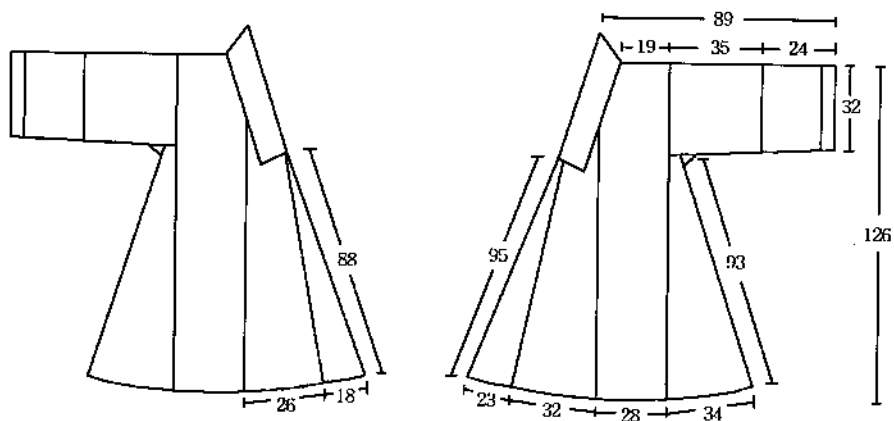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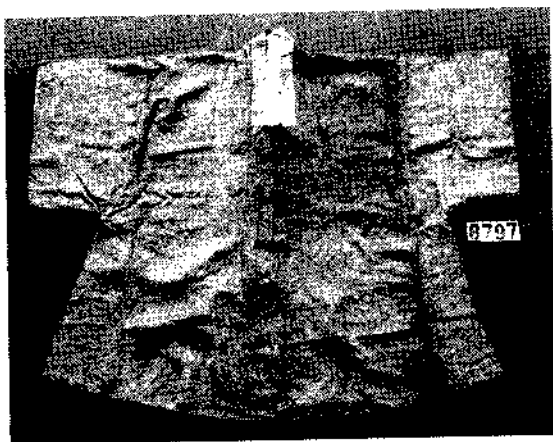
겉 : 남색(쪽빛) 안 : 상색

솜 : 0.3cm

옷고름, 동정 파손



(19) 上衣



겹

겉 : 紋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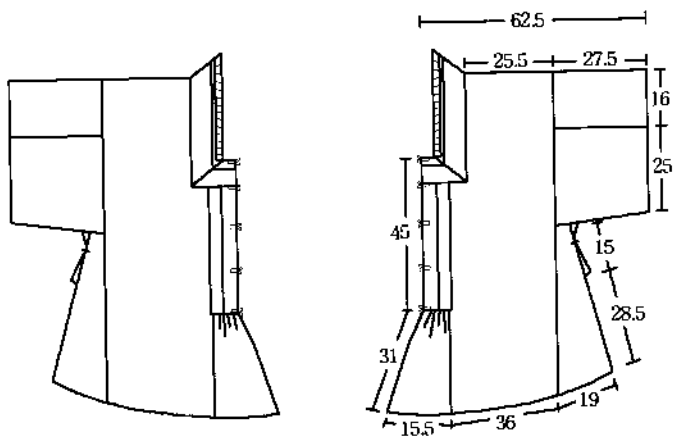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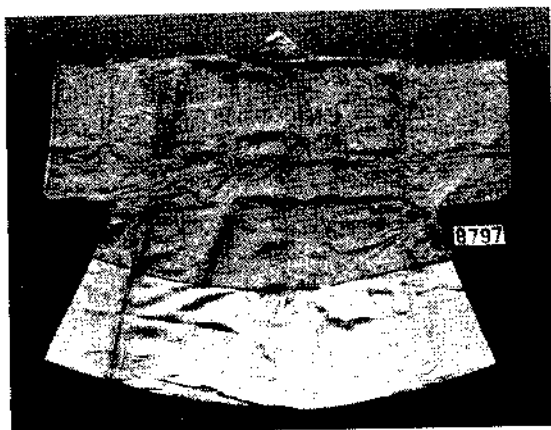
안 : 明紬

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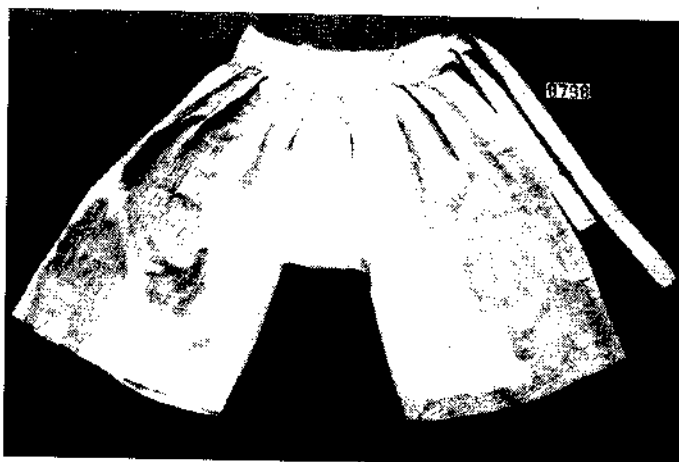
方領, 半袖

前長後短 : 前 90.5cm

後 67.5cm



(20) 누비 開襠袴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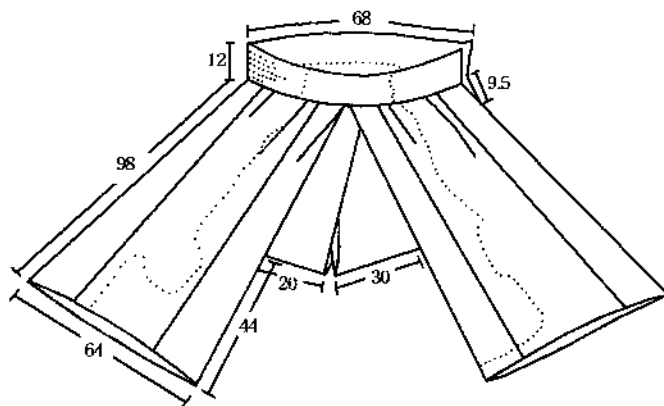
겹

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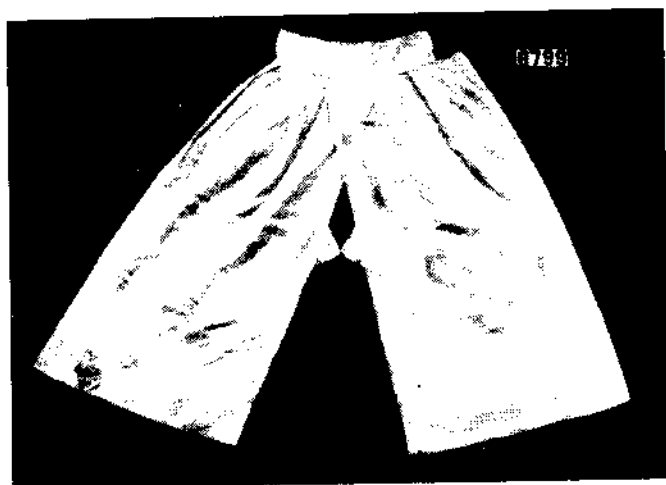
누비 : 1.2cm

밑여밈 폭이 다음 : 20cm, 30cm

壽衣



(21) 開襠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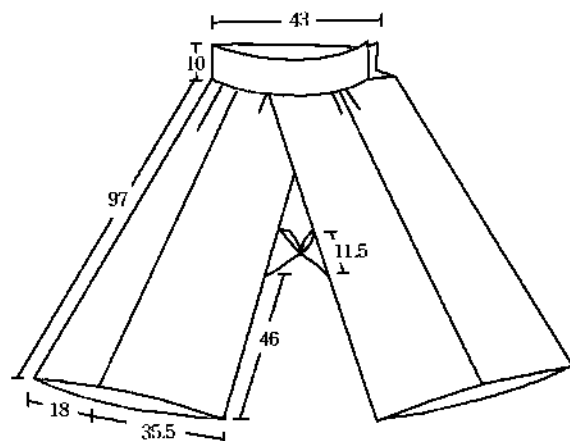


반(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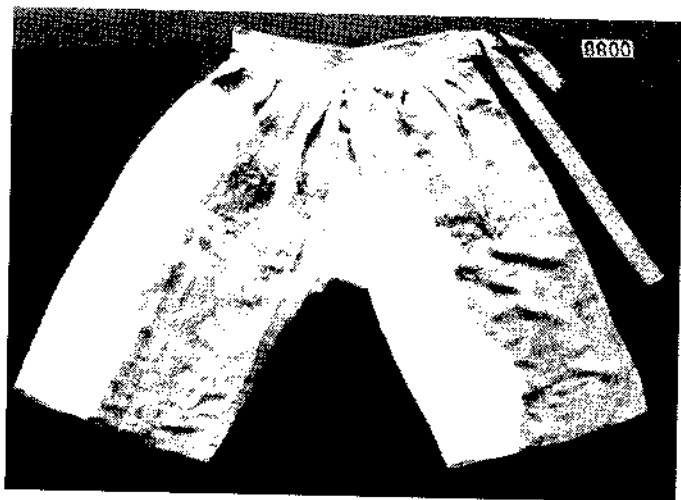
겹

가랑이 삼각褶

壽衣



(22) 開檔袴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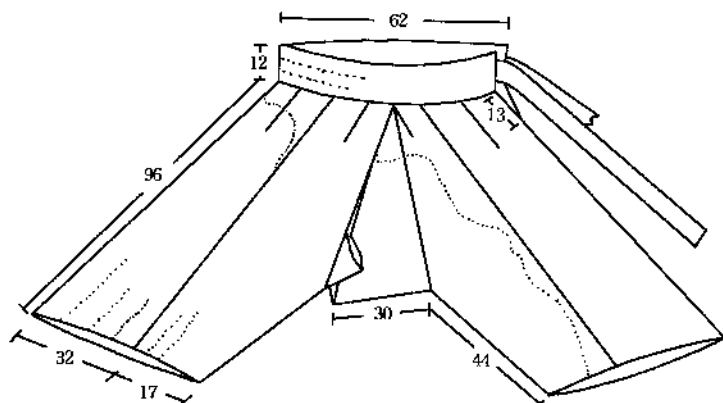
紺

上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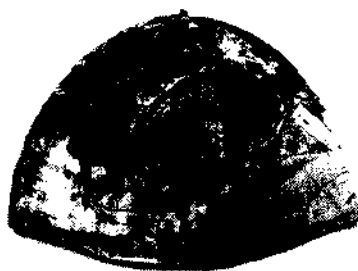
밑여밈이 좌우 다름 右 : 바지형 밑바대

左 : 삼각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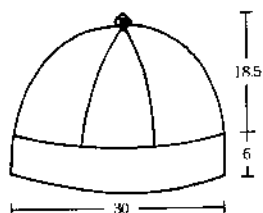
壽衣



(23) 六合帽



8801



겉 : 공단 남색

안 : 명주 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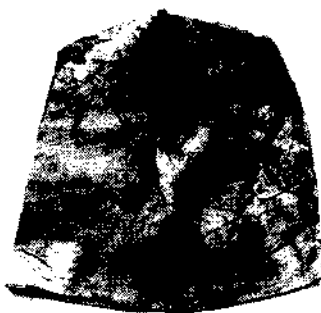
속에 얇은 솜이 있음

꼭대기에 매듭형 꼭지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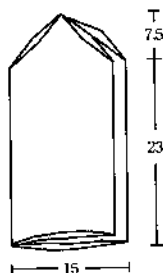
壽衣

사망모(?) 속에 쓰고 있었음

(24) 四方帽(?)



8802



明紬

겉

겉 : 남색

안 : 상색

모자 정상에 四方으로 트고

중심중앙에 정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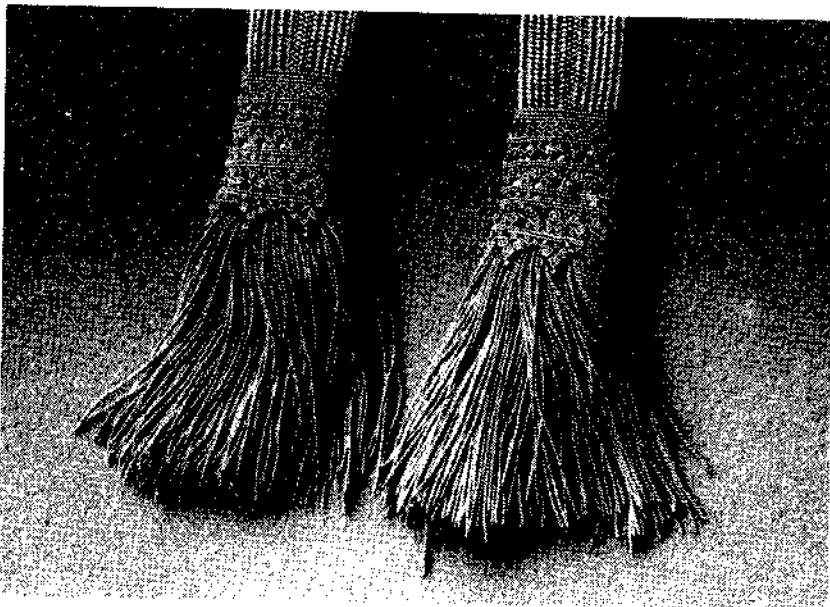
壽衣

六合帽 위에 썼음

(25) 廣多繪



8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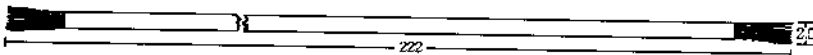
絹紗

상색

매듭술장식 속에 白雲母가 들어 있어 반짝임

사진 11번 團領위에 맴

壽衣



(26) 약수



8805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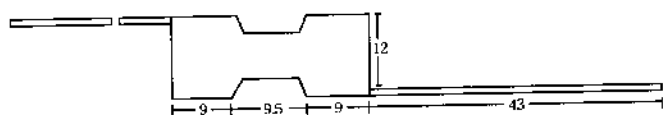
겉

겉 : 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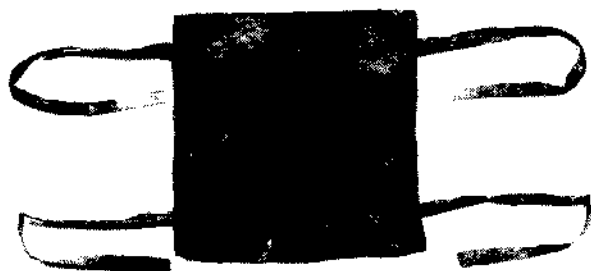
안 : 상색

도투마리형

壽衣



(27) 幞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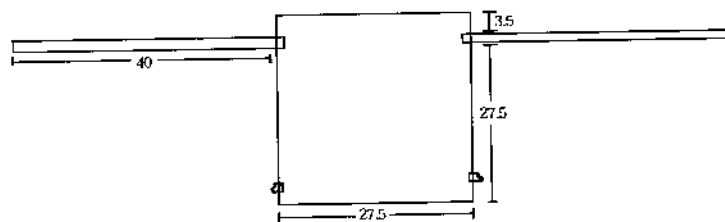
8806

明紬

겉 : 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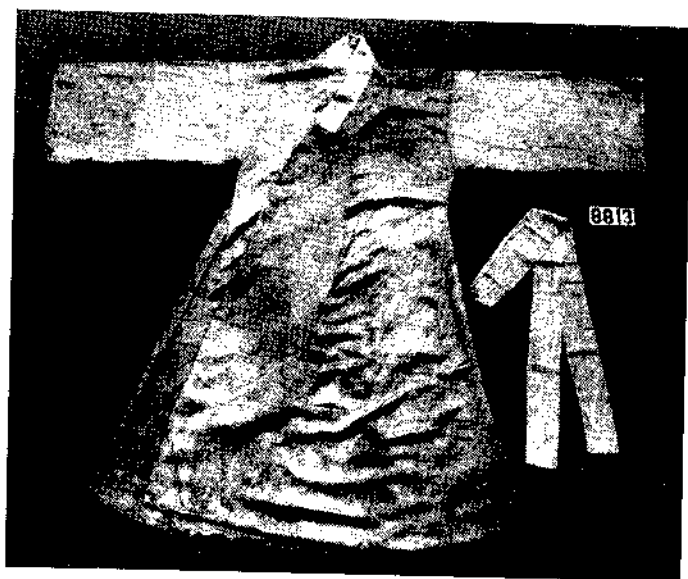
안 : 상색

壽衣



3. 양천허씨 유물

(28) 장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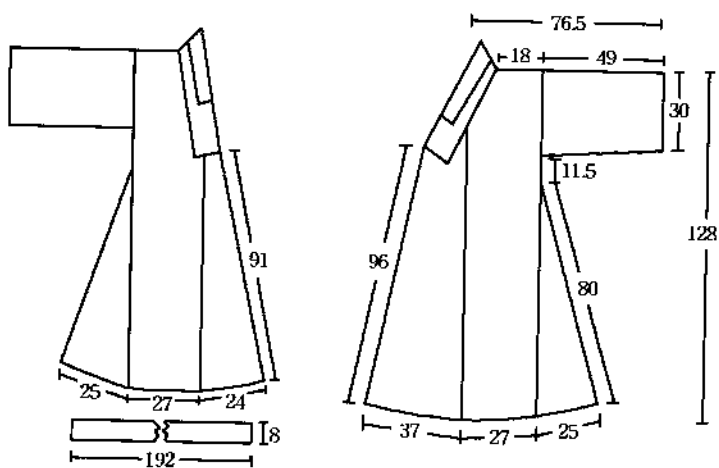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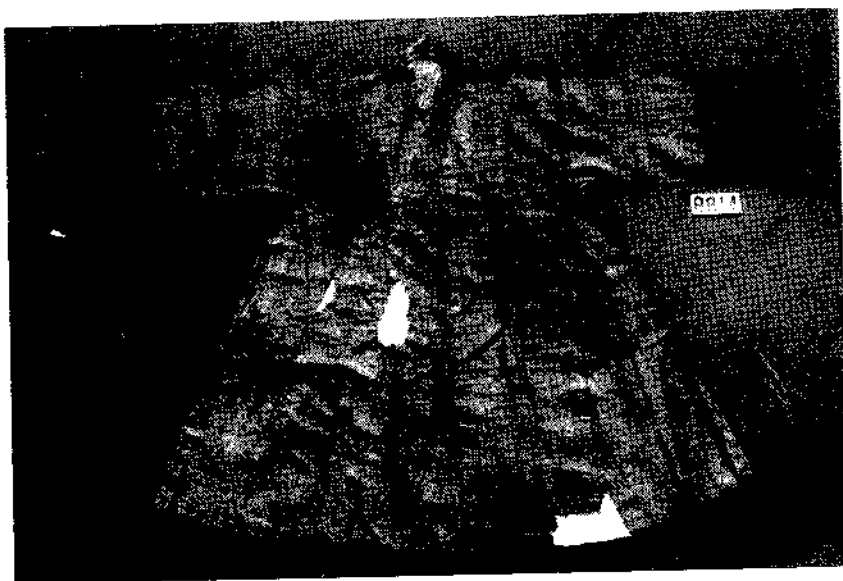
겹 : 紋緞(花, 파수, 새) 안 : 明紬 상색

허리띠 : 紋緞(16가지) 상색

壽衣



(29) 장옷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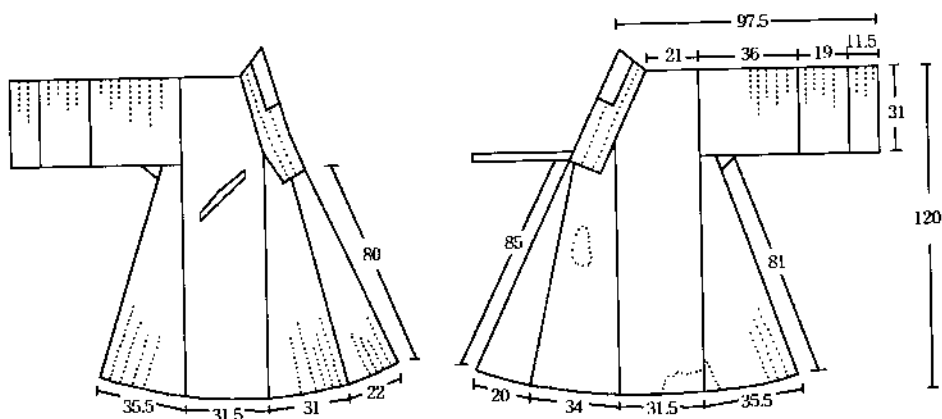
겉

겉 : 갈색 안 : 상색

성근누비 : 4.5cm

고름 : 갈색

襠 : 공단, 갈색



(30) 중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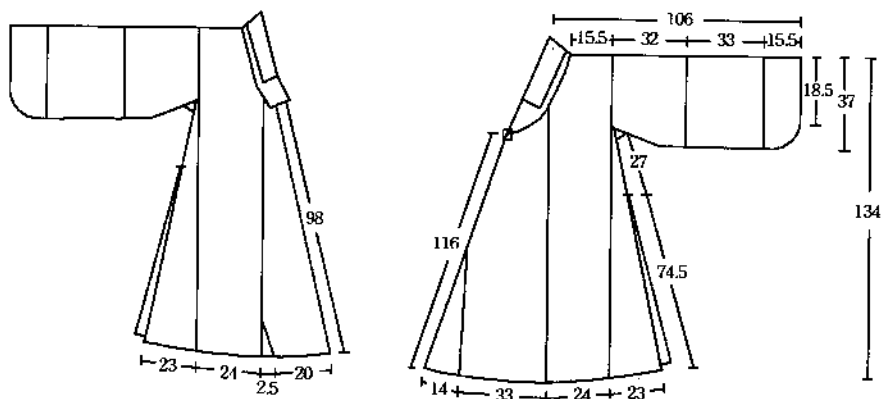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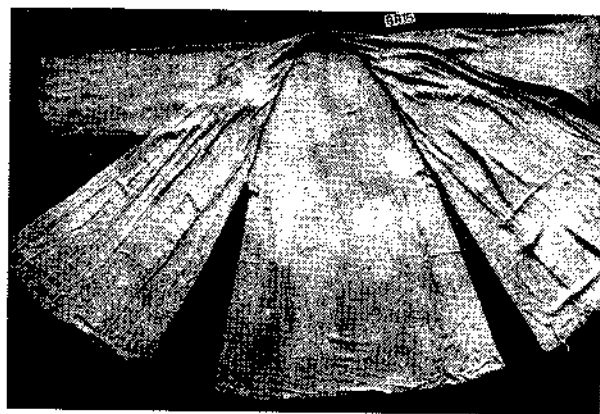
明紬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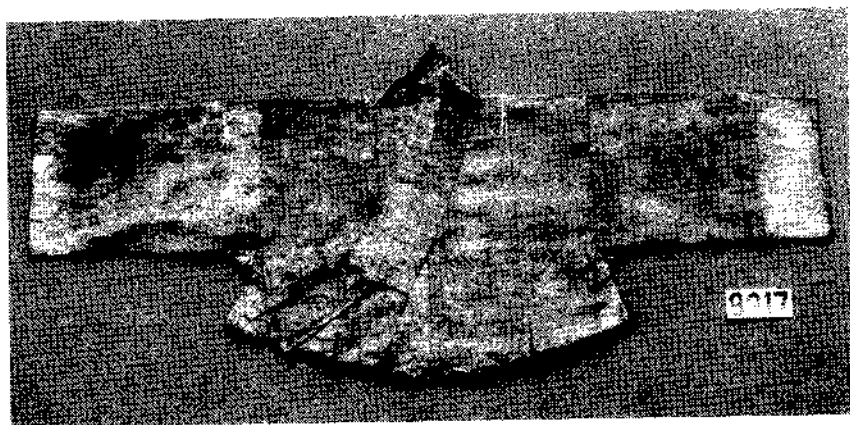
상색

소매 : 두리소매형

겨드랑이 襻부착



(31) 삼희장저고리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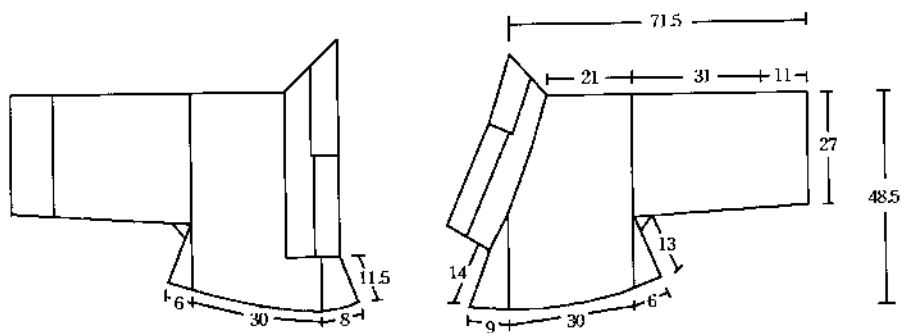
明紬

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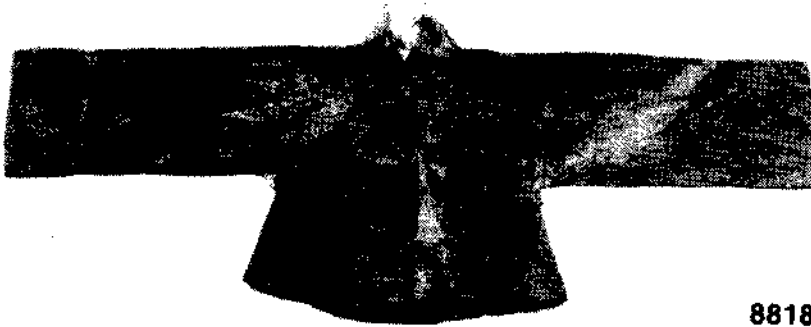
깃 · 수구 · 결마이 · 襟 : 七寶雲紋緞, 상색

옷고름 : 상색

모판깃



(32) 삼희장저고리



8818

숨 : 0.1cm

길 : 남색, 목단격자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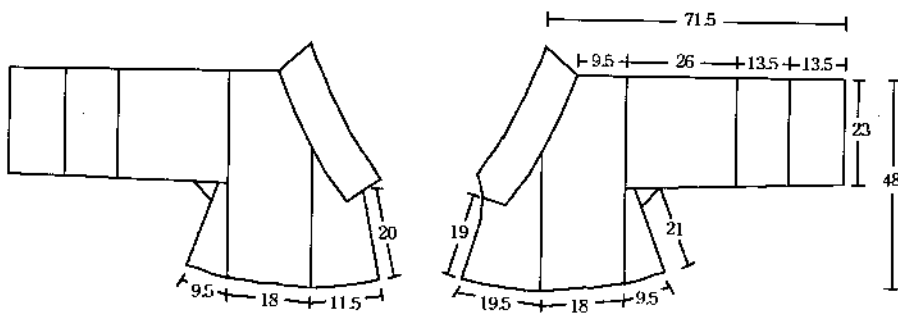
깃·섶·소매·결막이 : 花紋緞·상색

襠 : 花草紋緞·상색

초기 당코깃형

몸에 맞는 치수

補空



(33) 겹저고리



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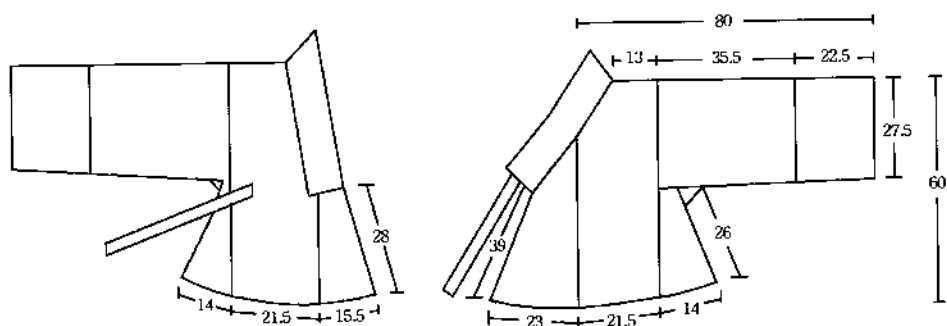
상색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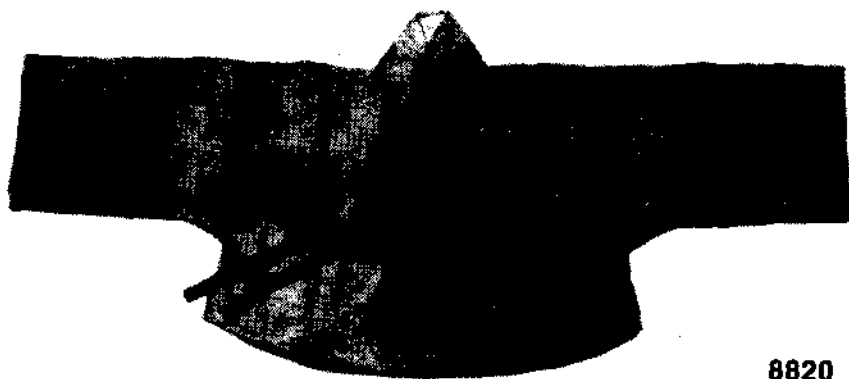
단 · 수구 · 도련 : 온박음질 처리 (0.1cm)

몸에 맞는 치수

모판깃



(34) 겹저고리



8820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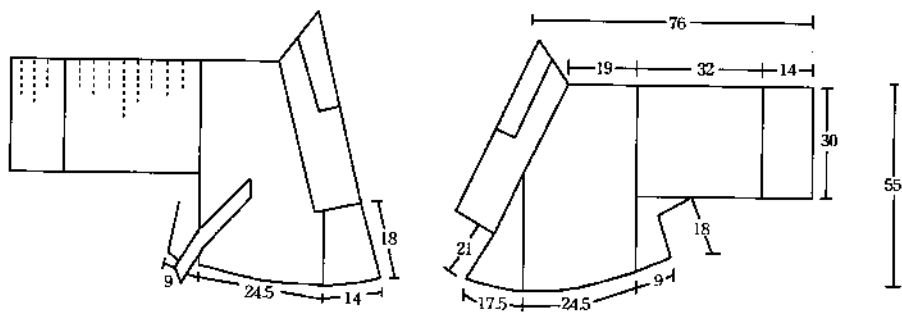
겉 : 남색

안 : 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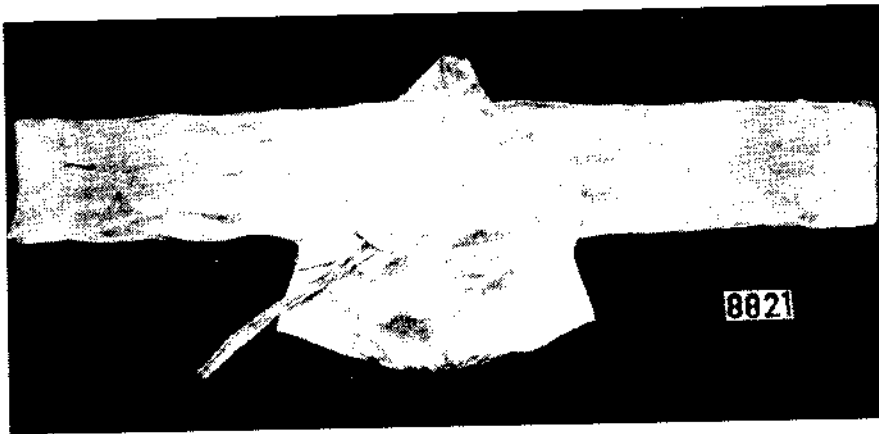
웃고름 : 갈색

누비 : 3.5cm

모판깃



(35) 적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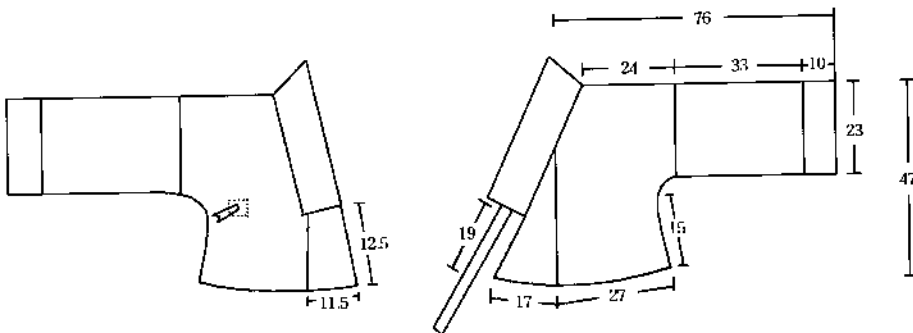


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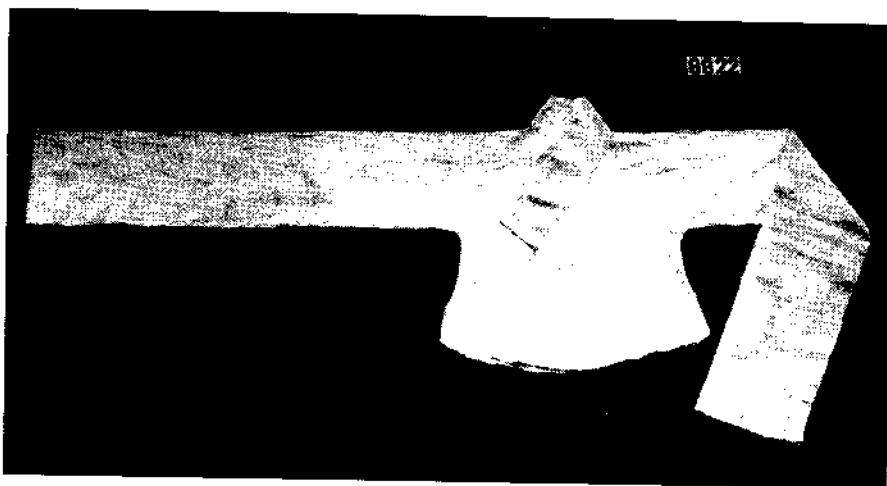
百色

도련단 말아 감침

모판깃



(36) 적삼



삼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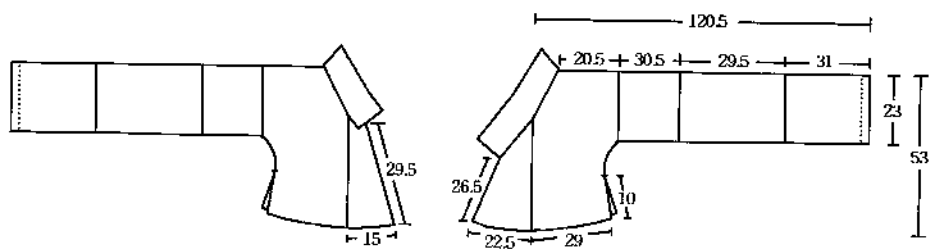
소매끝 모시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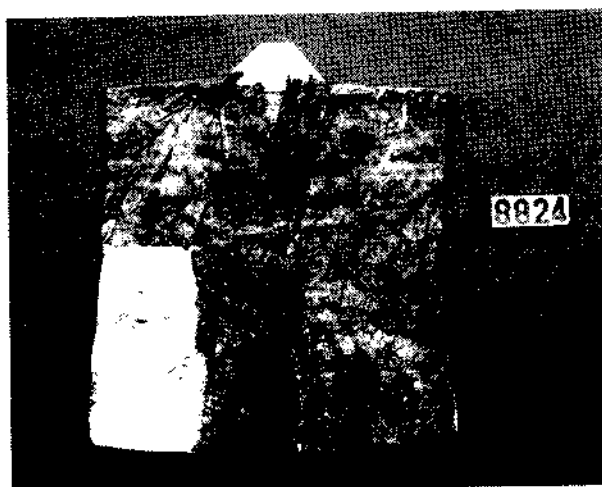
상색

소매 매우 길다

겨드랑이 아래로 옆트임이 있음 : 10cm



(37) 배자



겉

겉 : 小雲紋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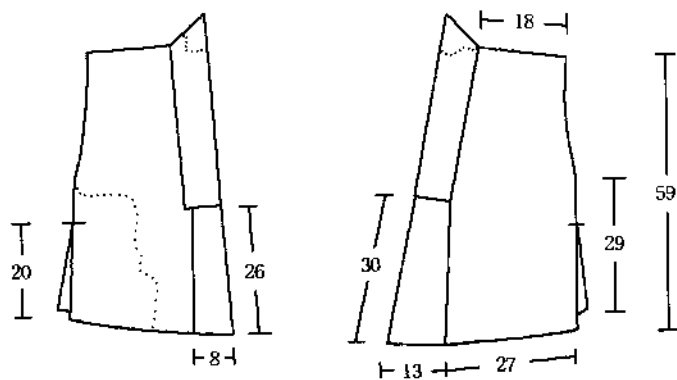
안 : 명주

緞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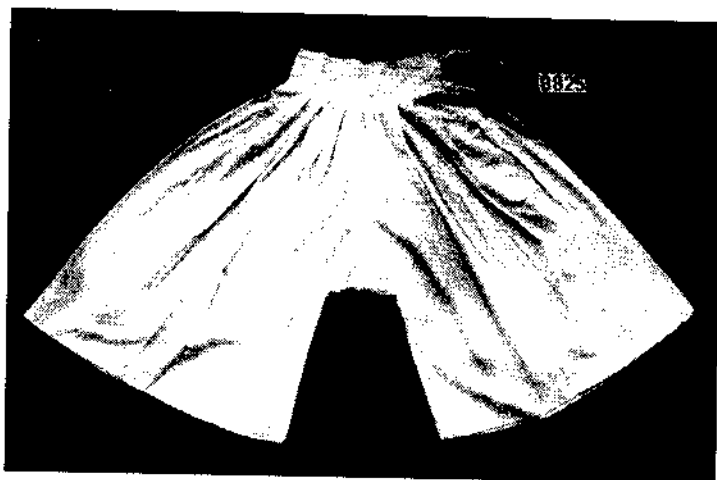
옆선 겨드랑이 아래 사뜨기 흔적이 있음

치수 : 몸에 알맞은 형

오물이 많고 파손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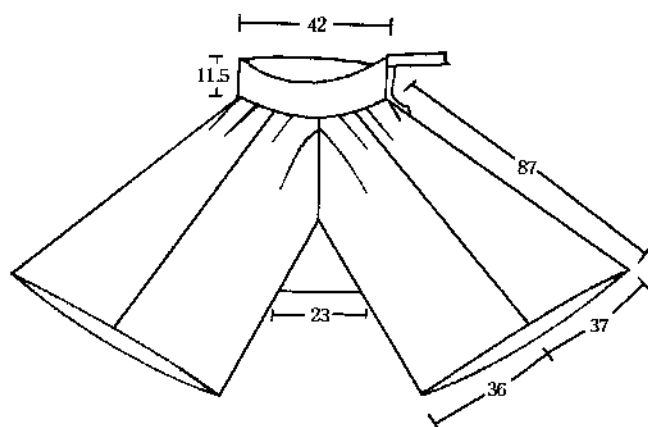
(38) 단속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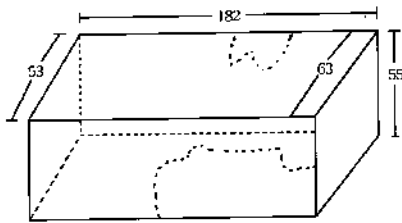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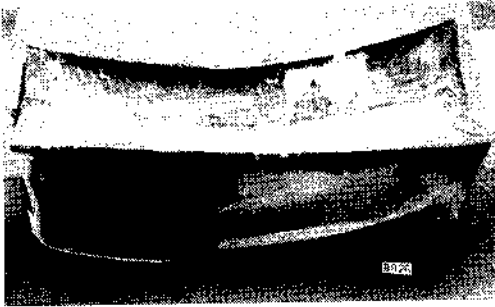
면(무명)

흔

紺色



(39) 柩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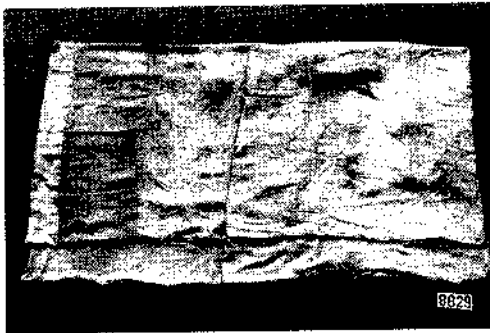
흔

紋紗(唐草花紋)

上部(頭) : 63cm

下部(足) : 53cm

(40) 솜이불



동정·안 : 明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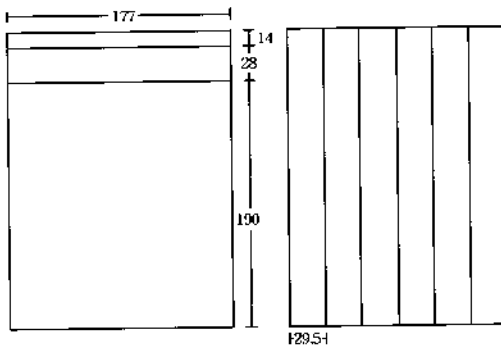
깃 : 花鳥紋緞

紅色을 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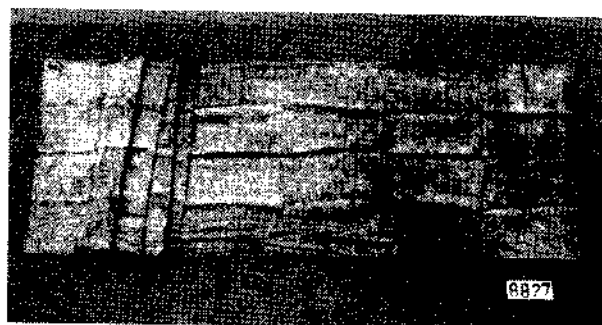
길 : 七寶·과수문단

남색을 땀(16가지 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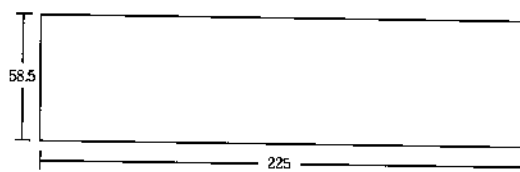
시신 찢던 연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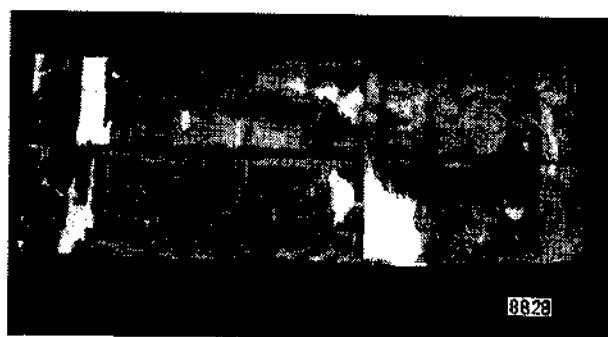
(41) 天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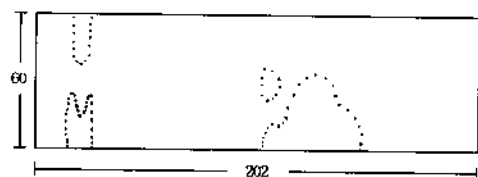
홀
 紋緞(七寶果樹紋)
 紅色을 띠
 1폭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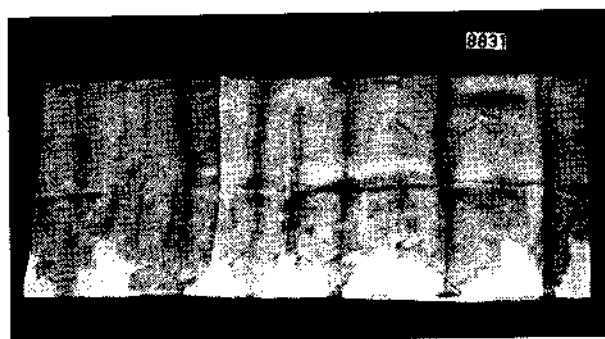
(42) 명정



갈색
 홀
 三八紬
 1폭너비
 紅色을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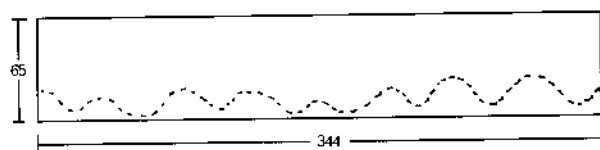
(43) 玄纁(幣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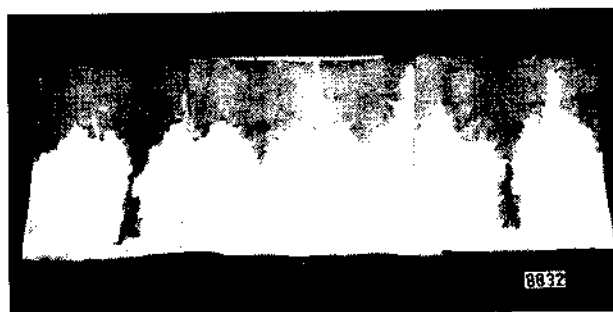
紋紗：大花唐草

紅色을 띠

1폭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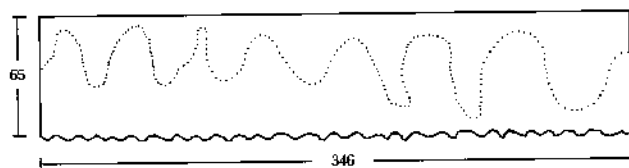


(44) 玄纁(幣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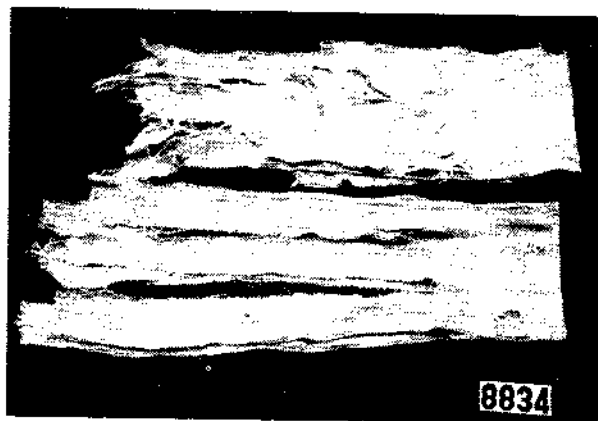


紋紗：小花연속

緋褐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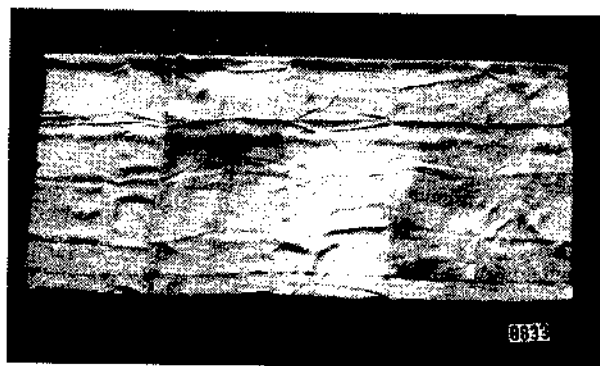


(45) 염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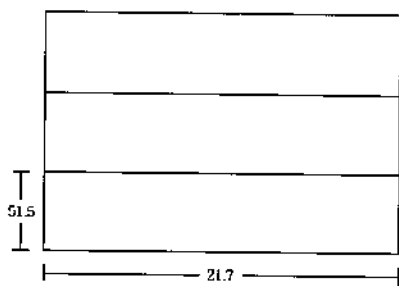


모시

(46) 염布



紋紬：四方연속능문
홀
紺・青色



(47) 帽(六合)



8835

숨

면(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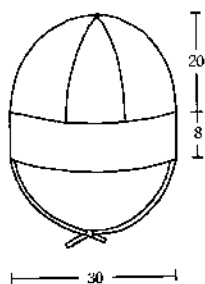
겉 : 남색

안 : 상색(白)

끈이 있음

속에 달비(48번)가 들어 있었음

補空 : 시신의 頭部쪽



(48) 달비



8836

5쪽지

六合帽속에 들어 있었음

補空用

유물무늬



〈무늬 1〉 紋紬(四方連續 마름모) --- 殯布(양천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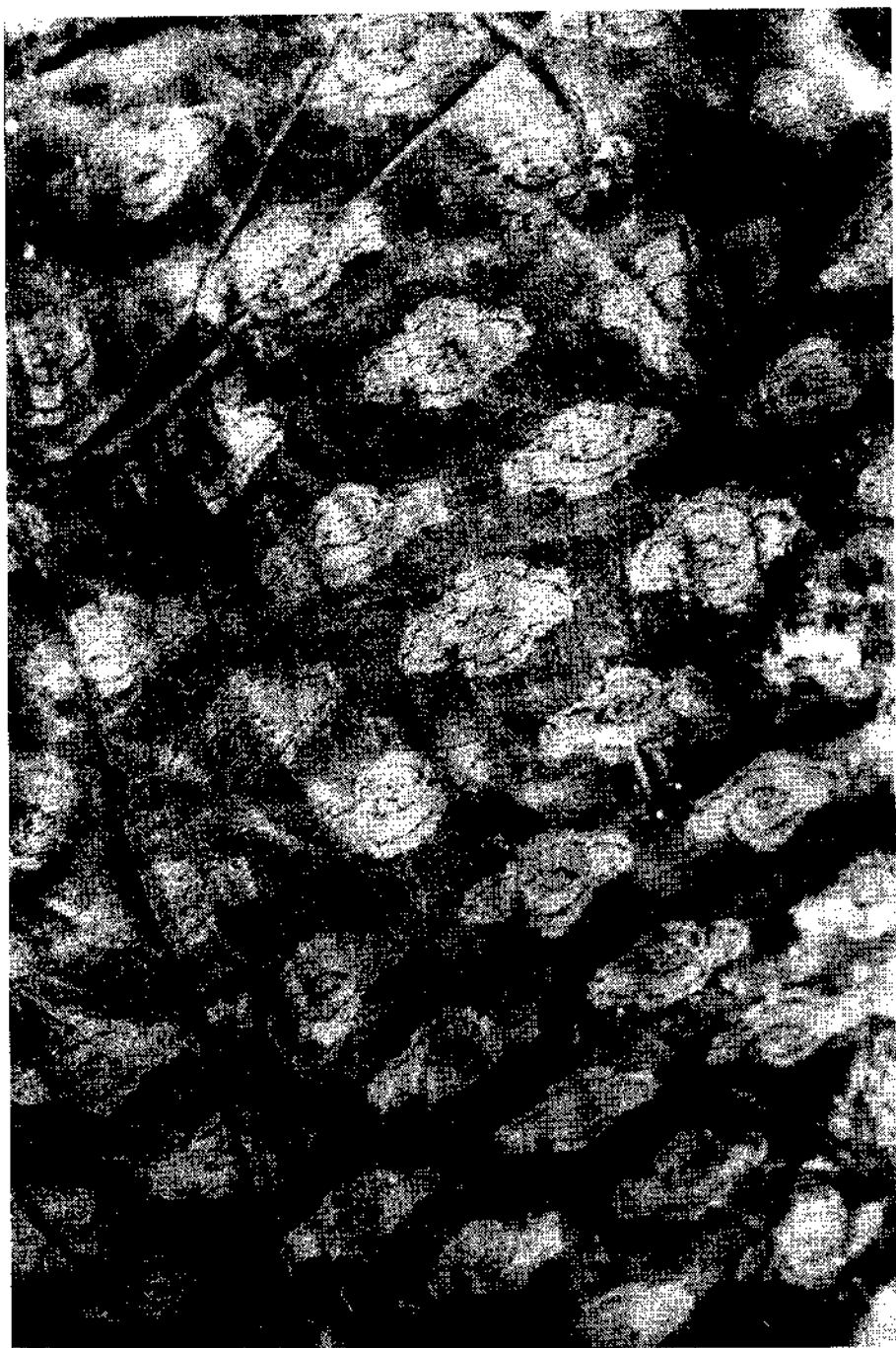


〈무늬 2〉 紋紬(길과 소매에 사방연속 목단 格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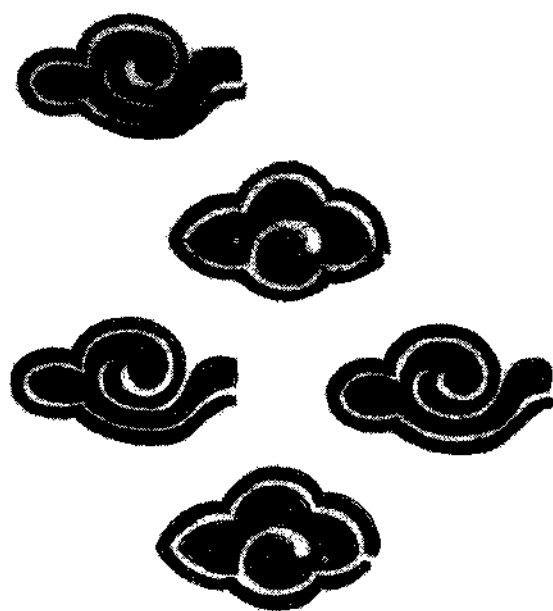
— 솜삼회장저고리, 鳥花紋紬 — 襠(양천허씨)



〈무늬 3〉紋緞(七寶大雲) --- 겸삼희장저고리의 깃·수구·결막이·褶(양천허씨)



〈무늬 4〉 紋緞(小雲) --- 배자(양천허씨)



〈무늬圖 1〉 〈무늬 4〉와 同一



〈무늬 5〉 紋緞(花鳥果樹) --- 장옷
 길 --- 화문단(매화 장미 석류 목단 새(鳥))(양천허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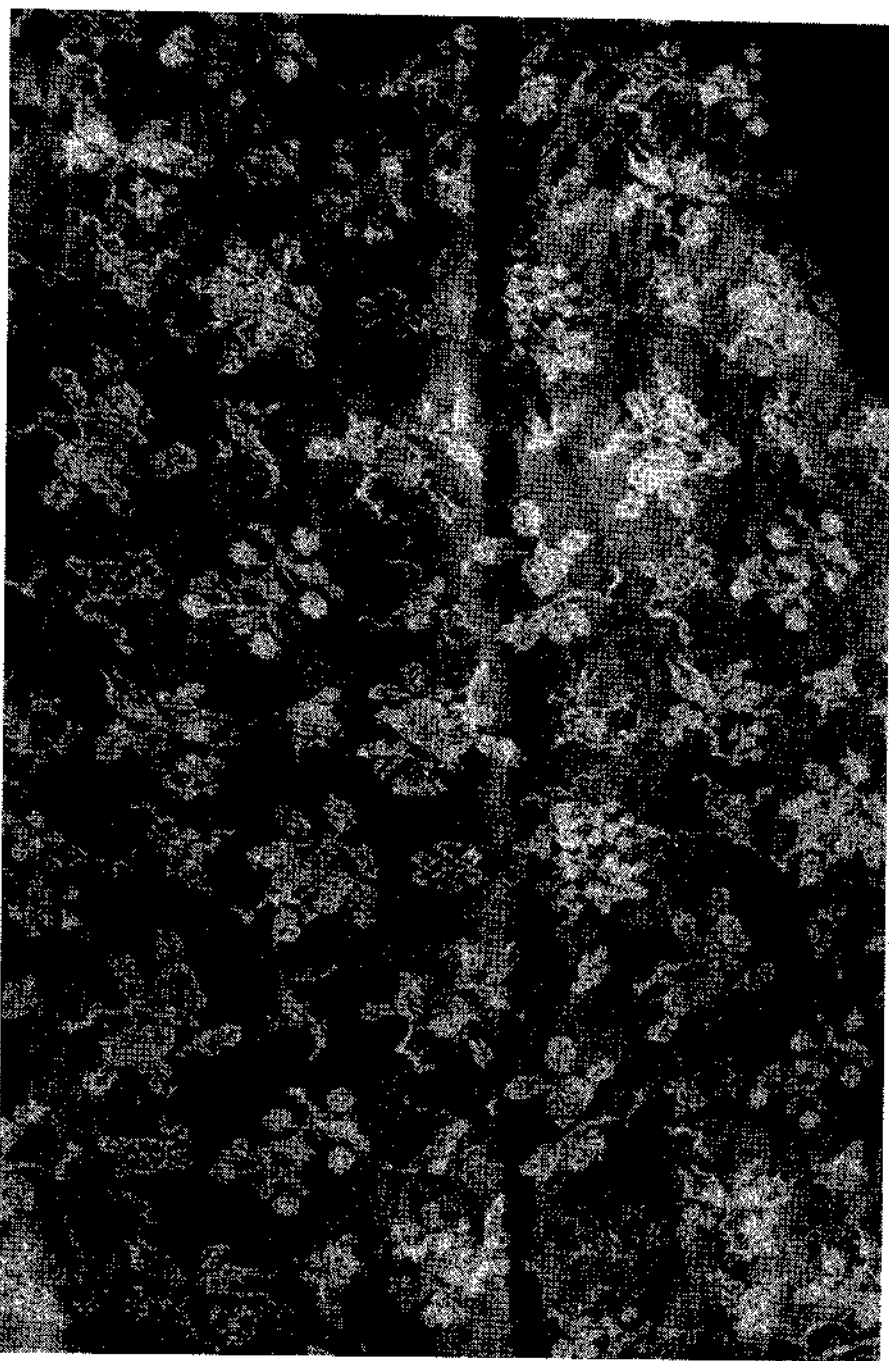


〈무늬圖 2〉〈무늬 5〉와 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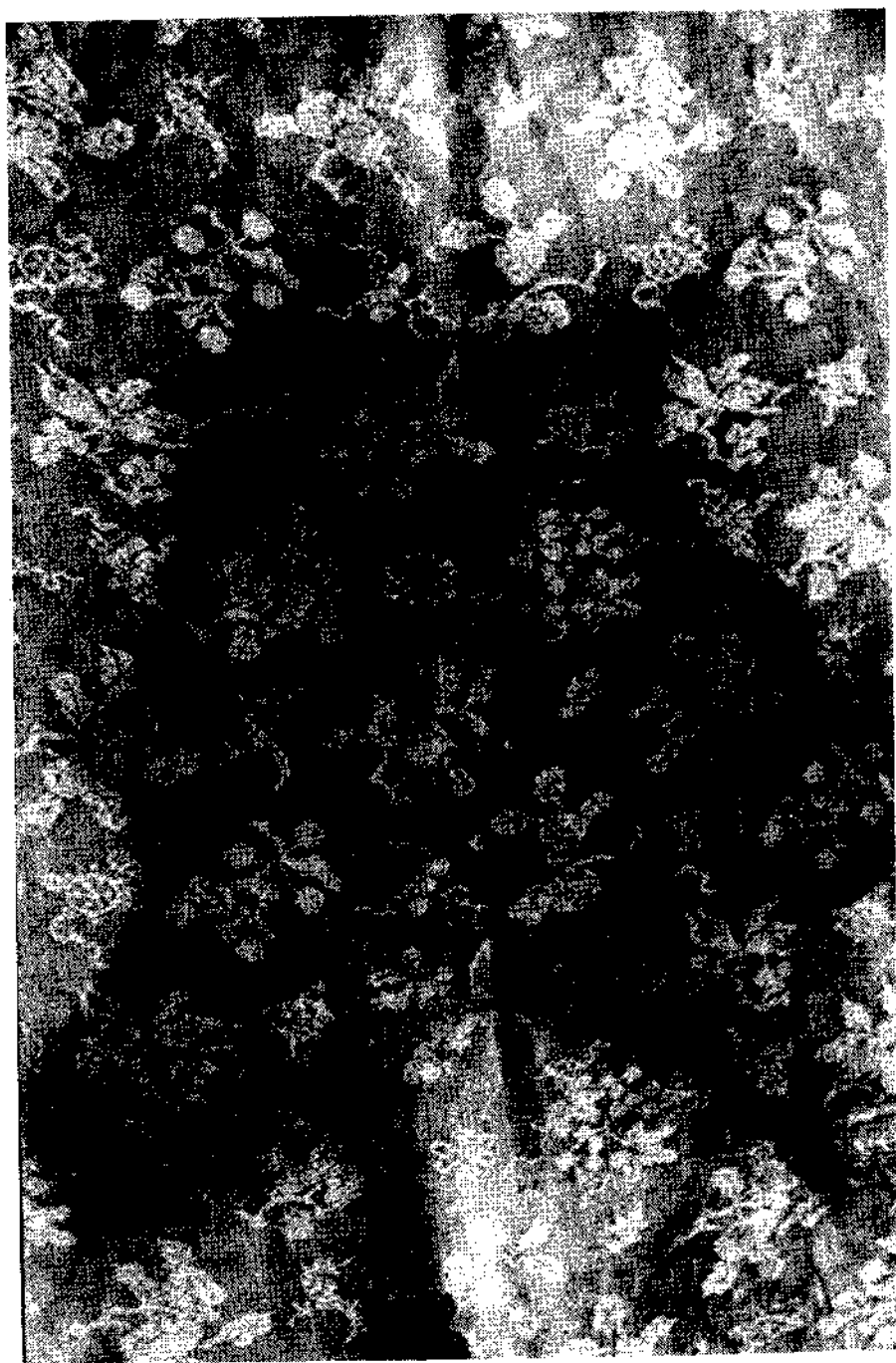
〈무늬 6〉 장옷의 허리띠 — 4壇4種

(16紋 — 七寶果樹紋 : 산호 향로 방승 물고기 포도 佛手 감 석류 등)



〈무늬 7〉 紋緞(七寶果樹) --- 天衾

장옷의 허리띠와 솜이불의 길과 같은 무늬(양천허씨)



〈무늬 8〉 紋緞(七寶果樹) —— 솜이불 길부분(양천허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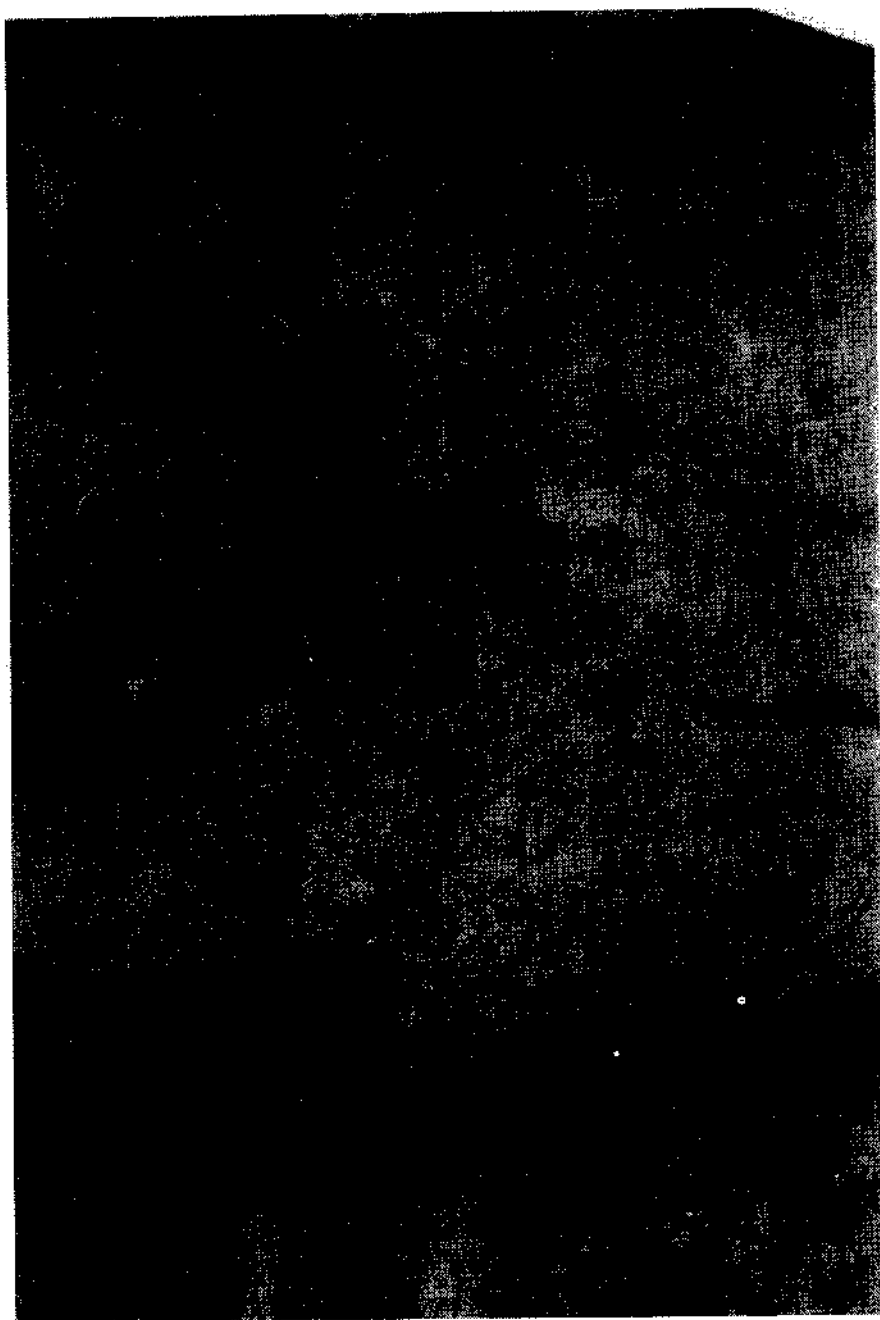
〈무늬圖 3〉〈무늬 6·7·8〉과 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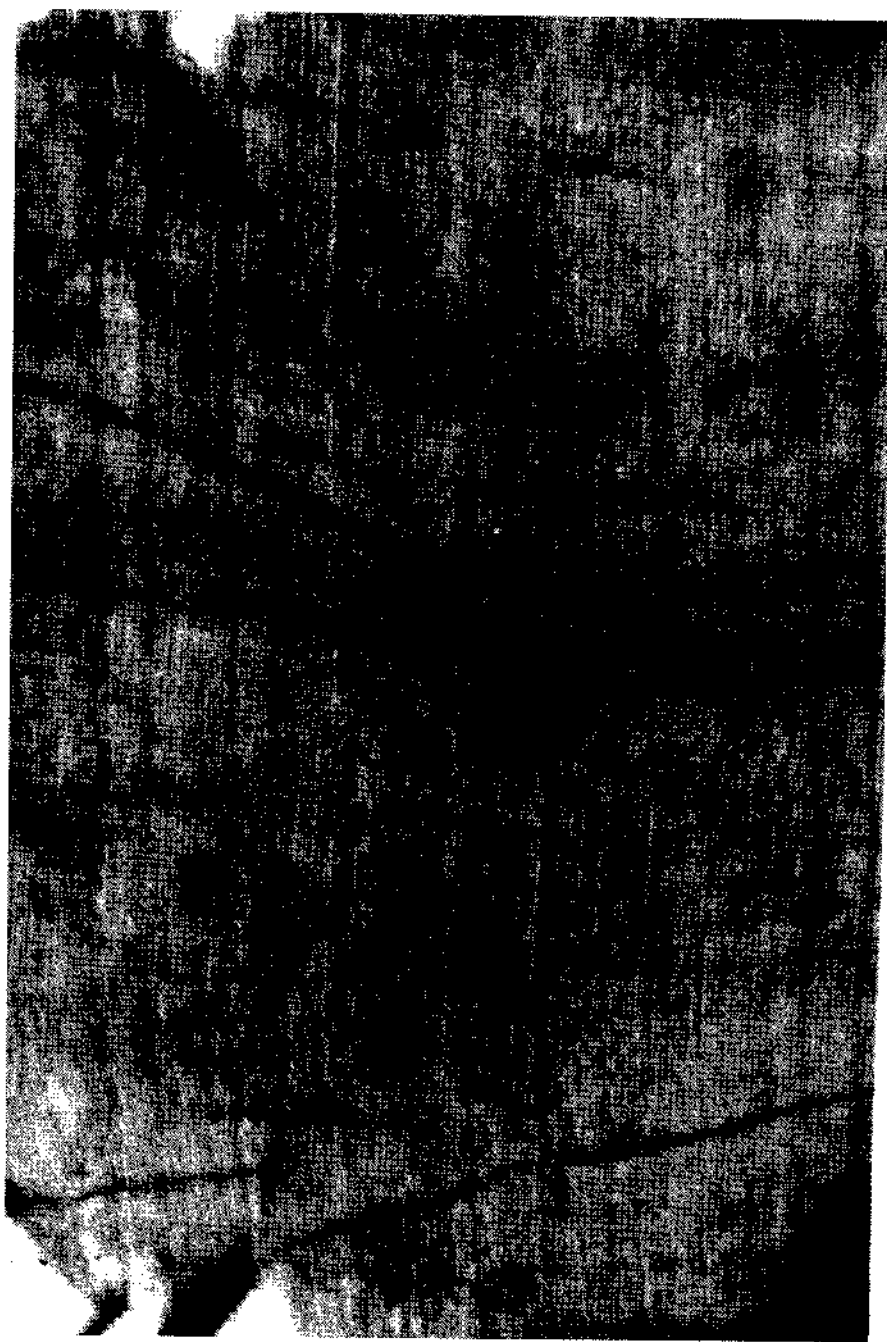
〈무늬 9〉 紋紗(花唐草) — 樞衣(양천허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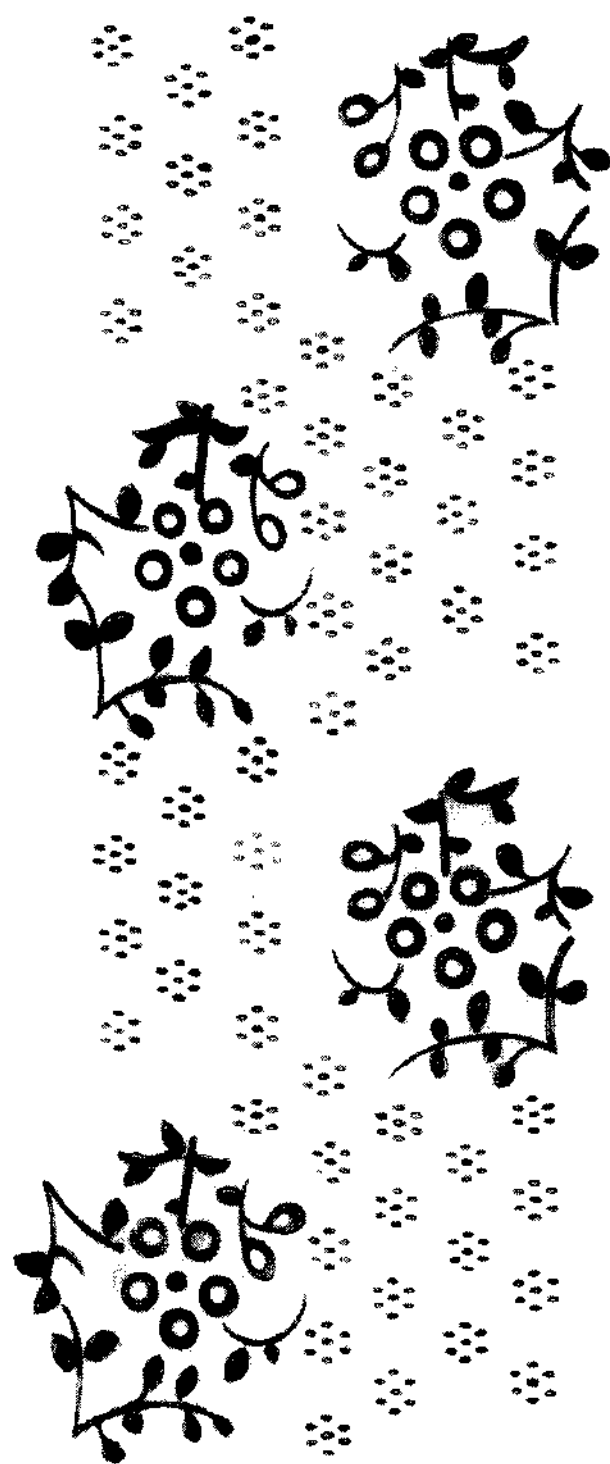
〈무늬圖 4〉花鳥紋緞 — 숨이불(깃부분)(양천허씨)



〈무늬 10〉 紋紗(大花唐草) --- 玄纁(幣帛)(양천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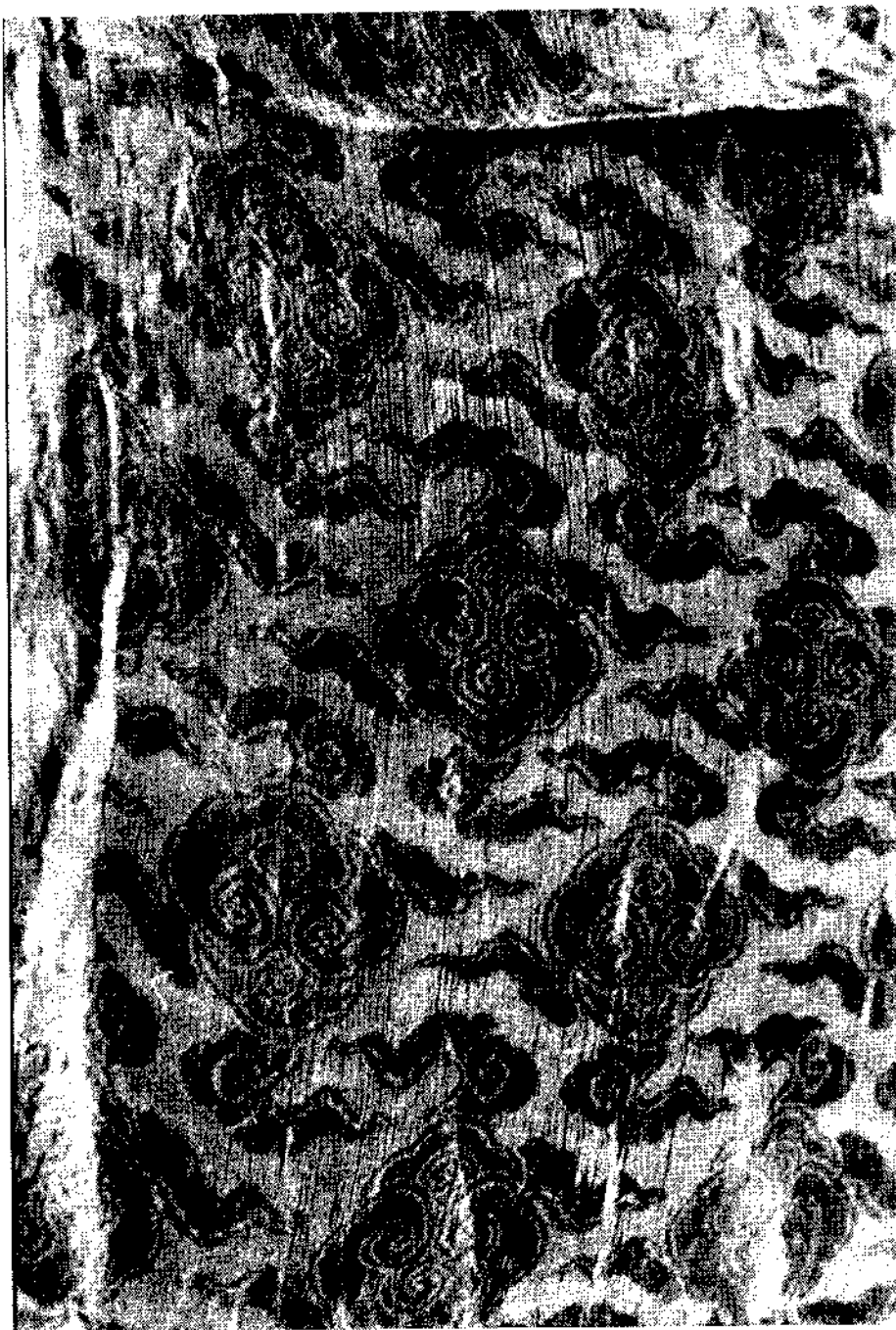
〈무늬 11〉 紋紗(小花 연속) — 玄纁(幣帛)(양천허씨)



〈무늬圖 5〉
 〈무늬 11〉과
 同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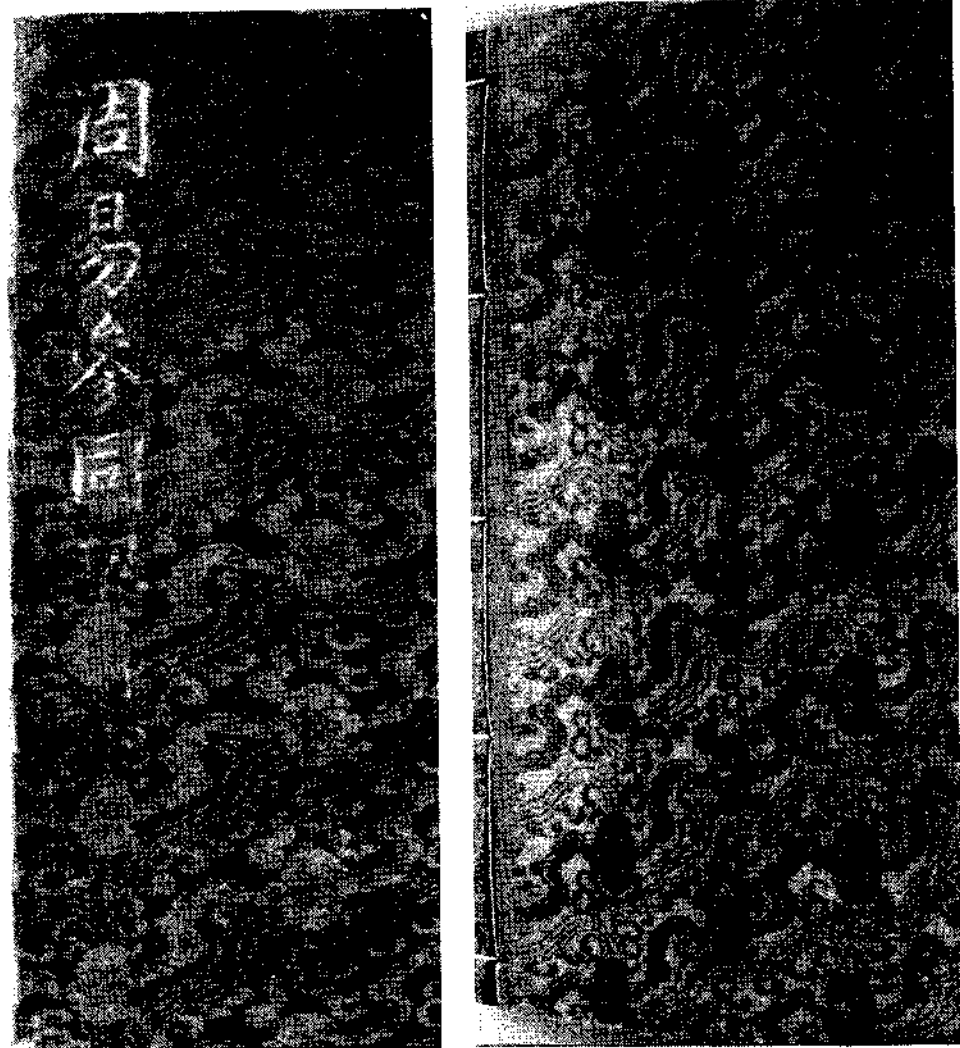
〈무늬 12〉 紋紗(사방연속 如意格子) --- 袍(直領布형)(양천하씨)



〈무늬 13〉 紋緞(雪紋) — 솜이불의 길(군수공)



〈무늬 14〉 紋緞(칠보화문 : 물방울 犀角 산호 소화 등)
 — 저고리(맞여밈, 方領, 半袖, 前長後短)(침봉공)



〈무늬 15〉 紋緞(花雲飛紋?) --- 『周易參同契』 전(좌) 후(우)(참봉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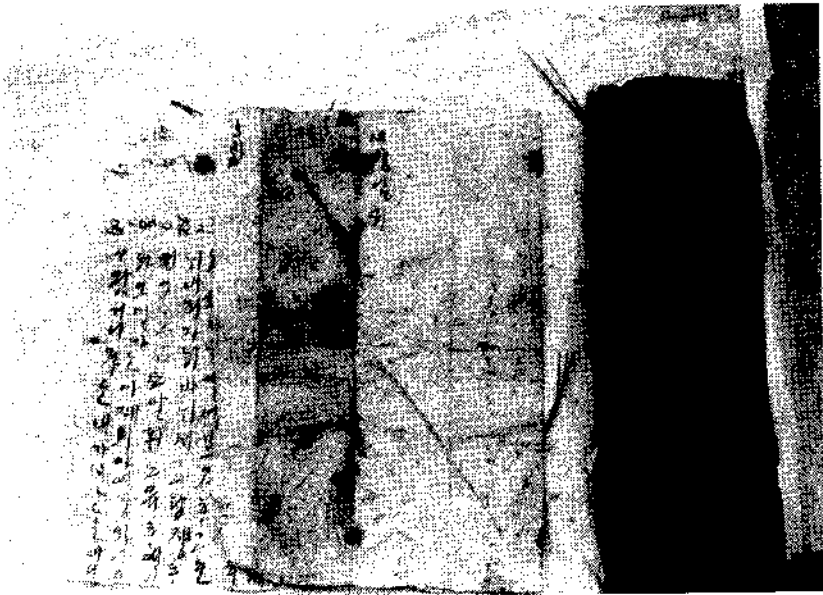
출토 현장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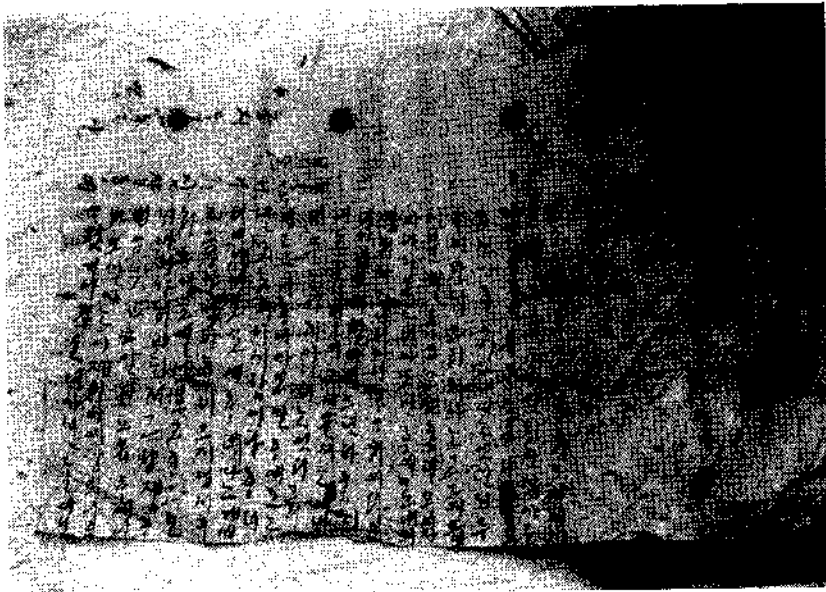
〈사진 1〉 유물 출토현장 : 고령신씨 안협공파 묘역
1998년 4월 22일, 경기도 일영



〈사진 2〉 유물 출토현장과 유물 인수.
1998년 4월 22일, 종친회장 및 관계자 입회하에 참봉공의 유물을 인수받고 있다.



〈사진 3〉 서간문(전면) : 참봉공의 부인이 남편에게 보낸 것이다.



〈사진 4〉 서간문 : 내용



〈사진 5〉 양천허씨 유물 수습.
內棺 뚜껑을 개봉한 후 天
숨을 걸어내고 있다.



〈사진 6〉 양천허씨 유물 수습.
시신과 유물을 밖으로 옮긴후 내관 속 상태.
外槨과 內棺사이에서 黠4개가 나왔다.



〈사진 7〉 양천허씨 屍身과 유물수습.
관밖으로 시신을 모신후
싸고 있는 유물을 수습하
고 있다.



〈사진 8〉 양천허씨 시신 : 발쪽.
袍, 치마(하단 부분을 두 번 접음), 단속옷, 습신, 버선이 보인다.

開館紀念行事 해적이

檀國大學校 附屬

石洞善紀念博物館

開館紀念行事 해 적 이

開館 1981. 5. 2

1. 開館紀念“慶州李氏 壽衣 特別展”開催

- ・ 日 時：1981. 7. 13~7. 19
-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
- ・ 1979. 3. 京畿道 果川出土. 1580年代
- ・ 1980. 11. 29 重要民俗資料 第114號 指定

2. 開館一周年紀念“第2回 壽衣 特別展”開催

- ・ 日 時：1982. 5. 8~5. 15
-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 ・ 南陽洪氏 壽衣 1980. 京畿道 楊洲 出土 1450年代
- ・ 慶州李氏 壽衣 1979. 3 京畿道 果川 出土 1580年代
- ・ 全州李氏 壽衣 1981. 6 京畿道 龍仁 出土 1730年代

3. 開館二周年紀念“第一回 學術 세미나”開催

- ・ 日 時：1983. 5. 2~5. 3
-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
- ・ 論題 및 演士

1) 染織品の 保存과 陳列

典實榮子 先生(東京 國立文化財研究所 主任研究官)

2) 朝鮮時代 出土服飾의 實態

石宙善 博士(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長)

4. 開館三周年紀念“第二回 學術세미나 및 朝鮮朝 衣裳 復原 特別展”開催

・ 日 時：1984. 5. 1~5. 4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중앙홀

・ 論題 및 演士

1) 民俗博物館의 課題와 方向

河孝吉 館長(國立民俗博物館)

2) 古代 우리나라의 機織技術

閔吉子 教授(國民大學校)

3) 舊韓末 宮中禮服 및 一般婦女服飾 研究

金英淑 院長(東洋服飾研究院)

・ 特別展：朝鮮朝 衣裳 復原 特別展

袞龍袍 外 20여점

5. 開館四周年紀念“第三回 學術세미나 및 朝鮮朝 女人 襪衣類 特別展”開催

・ 日 時：1985. 5. 1~7

・ 場 所：本 博物館 세미나실・중앙홀

・ 論題 및 演士

1) 텔레비전 사극의 고증과 실제

朴貞植 教授(培花女專)

2) 우리나라 傳統染色에 관한 考察

蘇晃玉 博士(中央大學校)

3) 翟衣制度의 變遷研究

朴聖實 研究員(本 民俗博物館)

・ 特別展：朝鮮朝 女人 襪衣類 特別展

단속곳 외 40여점

6. 開館五周年紀念 “第四回 學術세미나 및 第五回 朝鮮朝 여자저고리 特別展”

開催

・ 日 時 : 1986. 5. 2 ~ 5. 10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한국고대의 장신구

김기웅 박사(문화재 전문위원)

2) 高松塚의 복식사적 연구

박경자 교수(성신여대 가정대학장)

3) 濟州島 女人의 속옷에 대한 民俗學的 研究

高富子 研究員(本 民俗博物館)

・ 特別展 : 朝鮮朝 여자저고리 特別展

光海君妃 靑衫 外 57點

7. 開館六周年紀念 “第五回 學術세미나 및 第六回 朝鮮朝 冠服 特別展” 開催

・ 日 時 : 1987. 5. 2 ~ 5. 9

・ 場 所 : 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우리나라의 甲冑實態

李康七 先生(前 軍事博物館長)

2) 제주도 갈옷의 實態調査에 대한 應用方案 研究

孫敬子 教授(世宗大學校)

3) 親蠶禮 및 親蠶服에 관한 研究

朴聖實 研究員(本 民俗博物館)

・ 特別展 : 朝鮮朝 冠服 特別展

興宣大院君 紫的團領(重要民俗資料 第214號) 外 22點

8. 開館七周年紀念“第六回 學術세미나 및 第七回 出土 服飾 特別展”開催

・ 日 時：1988. 5. 2~5. 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道教服飾小考

任榮子 教授(世宗大學校)

2) 日本의 服裝에 있어서의 韓日關係

山邊知行 館長(遠山紀念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1) 金海金氏(涵. 1568~1598. 重要民俗資料 第209號)

2) 楊川許氏(1450년대 추정)

3) 慶州李氏(泰坤. 1672~1763)

9. 開館八周年紀念“第七回 學術세미나 및 第八回 出土 服飾 特別展”開催

・ 日 時：1989. 5. 2~5. 11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居家雜服攷를 통해본 朴珪壽의 服飾觀

趙孝順 博士(明知大學校)

2) 韓・中文官胸背樣式 比較小考

裴貞龍 教授(淑明女子大學校)

3) 우리나라 婚禮服의 民俗學的 研究

高富子 研究員(本 博物館)

4)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에 관한 小考

朴聖實・高富子 研究員(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및 傳統壽衣一襲 복원전시

- 1)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服飾(1529~1604) 30여점
- 2) 傳統壽衣一襲 복원전시 30여점

10. 開館九周年概念 “第八回 學術세미나 및 第九回 出土 服飾 特別展” 開催

- 日 時：1990. 5. 2~5. 1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佩玉에 關한 研究
洪那英 博士(釜山女大)
 - 2) 深衣構成에 關한 研究
金正子 教授(大田實傳)
 - 3) 驪州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 小考
高富子・朴聖實 研究員(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驪州出土 東萊鄭氏 出土服飾(1574~1669) 50여점

11. 開館十周年紀念 “第九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回 出土 服飾 特別展” 開催

- 日 時：1991. 5. 2~5. 10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 1) 日本 文化女子大學 服飾博物館 所藏 德惠翁主 遺物 小考
石宙善 博士(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長)
 - 2) 우리나라 古代 喪制 속에 반영된 宗教觀
全惠淑 教授(東亞大學校)
 - 3)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考
朴聖實・高富子 研究員(本 博物館)

· 원고 게재

1) 中國 古代服飾 文物的 發掘・整理和 研究

周 訊(上海藝術研究所 中國服飾史研究室 主任)

2) 中國服飾常用文樣考釋

高春明(上海藝術研究所 中國服飾史研究室)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出土服飾(1508~1572) 30여점

12. 開館十一周年紀念“第十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一回 出土 服飾 特別展”開催

· 日 時：1992. 5. 2~5. 1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15世紀 服飾의 樣式과 特性

柳喜卿 博士(服飾文化研究院長)

2) 朝天錄과 燕行錄의 服飾

林基中 博士(東國大學校)

3)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遺物小考

高富子・朴聖實 研究員(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서울 下溪洞 出土 文化柳氏 出土服飾(1615~1685) 20여점

13. 開館十二周年紀念“第十一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二回 出土 服飾 特別展”開催

· 日 時：1993. 5. 2~5. 11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韓國服飾과 西域服飾의 共通要素

무함마드 간수 博士(檀國大學校)

2) 5・6세기 敦煌壁畫를 통해 본 服飾의 東西交涉史

柳惠英 博士(弘益大學校)

3) 慶州郡 突馬面 朽栗理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朴聖實 研究員(本 博物館)

4)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州許氏 遺物 小考

高富子 研究員(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1) 廣州郡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1431~1489年)遺物 20여점

2)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1660年代 추정)遺物 20여점

14. 開館十三周年紀念 “第十二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三回 출토 服飾 特別展” 開催

・ 日 時：1994. 5. 2~5. 12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쪽염료의 제조과정 소고

李炳瓚 선생(식물염색 연구가)

2) 中央아시아-宗教傳播의 諸樣相-

閔丙勳 教授(中央大學校)

3) 中央아시아 修髮樣式과 頭衣

金容文 教授(성신여자대학교)

4) 「豊公遺實圖略」에 나타난 宣祖朝 王室服飾

朴聖實 研究員(本 博物館)

5) 天安 雙龍洞 出土 豊山洪氏 遺物 小考

朴聖實 研究員(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天安 雙龍洞 出土 豊山洪氏(1761~1841)遺物 30여점.

15. 開館十四周年紀念“第十三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四回 出土 服飾 特別展” 開催

・ 日 時：1995. 5. 2~5. 15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7~9세기 신라인의 해외무역 활동

김문경 교수(숭실대학교)

2) 正倉院의 服飾과 梁織

李春桂 교수(동국대학교)

3) 충북 충주시 목계동 출토 풍산홍씨 유물 소고

高富子 교수(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忠北 忠州市 牧溪洞 出土 豊山洪氏(1699~1763)遺物 30여점.

16. 開館十五周年紀念“第十四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五回 出土 服飾 特別展” 開催

・ 日 時：1996. 5. 2~5. 13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장당

・ 論題 및 演士

1) 구포리 최숙 무덤의 구조와 출토유물

한창균 教授(단국대학교)

2) 화성 구포리 출토복식의 섬유 외물질 분석에 관한 소고

안춘순·조한국·김정완 教授(인천대학교)

3) 화성 구포리 출토복식 소고

박성실 研究員(本 博物館)

・ 特別展：出土服飾 特別展

華城 鳩浦里 出土 隨城崔氏(1636~1698)遺物 30여점

17. 開館十六周年紀念“第十五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六回 出土 服飾 特別展” 開催

・ 日 時：1997. 5. 2~5. 16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조선 전기 출토 직물의 종류와 그 제작 機構에 대한 고찰

-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을 중심으로 -

심연옥 · 민길자教授(국민대학교)

2)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表記 研究(1)

- 조선후기 服飾 어휘를 중심으로(1) -

오창명 教授(제주대학교)

3)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 연구

고부자 소장(단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8. 開館十七周年紀念“第十六回 學術세미나 및 第十七回 出土 服飾 特別展” 開催

・ 日 時：1998. 5. 2~5. 15

・ 場 所：本 博物館 중앙홀 · 제1전시실

蘭坡紀念音樂館 소강당

・ 論題 및 演士

1) 파주 금릉리 慶州鄭氏 墳墓에서 出土된 服飾에 찍힌 陀羅尼와 佛教符籙

박상국 실장(국립문화재연구소)

2)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의 섬유와 성분에 관한 분석

안춘순 · 조한국 교수(인천대학교)

3)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박성실(본 박물관장)

慶 祝

檀國大學校

石廟善紀念民俗博物館

開館 18 周年

高靈 申氏 安峽公派 宗中會

博物館 利用案内

관람기간 : 매주 화, 목 2일간

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

휴관 : 1. 국경일과 공휴일

2. 본교의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3. 기타 본 박물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단, 본 박물관 사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TEL.(02)709-2188, 2186 FAX.(02)792-4162, 4258

受 領 證

韓國服飾 第 17號를 受領하였습니다.

수 령 일 : 년 월 일

성 명 :

주 소 :

보 낼 곳 : 석주선기념박물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단국대학교

☎ 140-714

* 다음 간행물을 보내드릴 때 명단작성의 근거가 되오니

꼭 반송해 주십시오.

韓國服飾

第十七號

찍은날 1999年 4月 15日 印刷
펴낸날 1999年 4月 25日 發行

編輯制作 檀國大學校  國立韓國博物館

TEL : (02) 709 - 2186 · 2188

FAX : (02) 792 - 4162 · 4258

發 行 檀 大 出 版 部

서울特別市 龍山區 漢南洞 山 8

1140-714

登 錄 1968年 2月 27日 NO. 가 제3-95

印 刷 新 陽 社

TEL : 275 - 0834 · 4585

FAX : 275 - 4589
